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발간사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자 근대 민주주의를 추구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이자, 일제의 침략
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어섰던 반일구국항쟁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은 동학농민혁명 직후부터 지
역적 민란 혹은 반란사건으로 왜곡·축소되어 왔으나, 1994년 100주년
을 계기로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집하는 사업이 다양하
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민간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과 아
울리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들이 속속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학
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마침내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사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 유실(遺失)·멸실(滅失)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세상에 나오길 바라며 세계인의
유산이 된 고창지역 관련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비롯해 새롭게 발굴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과 자료들을 심도있게 고찰하고자, 2025년 9월
고창군의 지원을 받아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룬 기록물은 『취의록』, 『갑오일기』, 『이풍암공신행록』 등으로, 이들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아울러 그 속에 담긴 내용 분석을 통해 관련 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풍암공신행록』은 2024년 이병춘 선생 후손의 재단 기증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번역 작업을 통해 2026년 『신국역총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성과물을 한데 묶어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제5권으로 발간합니다. 학술총서가 발간되기까지 발표와 토론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고창군을 비롯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총서를 통해 2023년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인식 고취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록물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김 양 식

목차

발간사 / 4

고창 지역 민보군의 거의(舉義) 정당화와 의리론

- 『거의록』과 『취의록』을 중심으로 - | 정경민 ————— 9

1. 머리말 / 10
2. 고창 지역 민보군의 반동학 활동 / 12
3. 고창 지역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와 의리론 / 19
4. 맺음말 / 31

고창지역 영학당과 결세 저항운동 | 조재곤 ————— 35

1. 머리말 / 36
2. 영학당 운동 / 38
3. 결세 저항운동 / 55
4. 맺음말 / 69

『갑오일기(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 신진희 75

1. 머리말 / 76
2.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찾아서 / 80
3.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 87
4.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 / 99
5. 맺음말 / 105

『이풍암공신행록(李豊菴公實行錄)』의 내용 검토와 사료적 가치 분석 | 최진욱 111

1. 머리말 / 112
2. 『이풍암공신행록』의 구성과 내용 / 114
3.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 / 129
4. 맺음말 / 149

종합 토론 155

좌장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토론자

윤상원 전북대학교 교수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진현 경북대학교 박사수료

이병규 전북사학회장

고창 지역 민보군의 거의(舉義) 정당화와 의리론

- 『거의록』과 『취의록』을 중심으로 -

정경민

독립기념관 연구원

-
1. 머리말
 2. 고창 지역 민보군의 반동학 활동
 3. 고창 지역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와 의리론
 4. 맺음말
-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간으로 보더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을 비롯하여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을 막론하고 당대 조선 사회에서 두루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는 모두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으나, 대체로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단계별 전개 과정, 농민군의 활동 양상과 지향점, 동학교단과 농민군 지도자들의 활동, 동학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 농민군 집강소 등¹에 관해서 진행되어 왔다.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기존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인식한 보수유림층의 동향도 주목을 받았다. 보수유생층은 동학농민군과 동학교단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민보군, 유회군(儒會軍) 등으로 불리며 동학농민군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² 이들에 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³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되어 지역 사례에 대한 연구들도

1 박맹수·김봉곤·조성환, 2019, 「전라도 근대사 연구 현황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286쪽.

2 민보군 연구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와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바가 있다.(박상진, 「동학농민혁명 시기 지평 민보군 연구」, 『강원사학』 35, 2020; 박정민, 「1894년 남원지역 동학 농민군과 민보군의 전투: 방아치·관음치 전투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59, 2025;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 김현주, 「근대전환기 사회운동사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 근대사 연구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3.

생산되었다. 특히 고창⁴은 무장기포가 일어난 지역으로 많은 연구성과들이 제출되었다.⁵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반대 입장에 있었던 고창 지역 민보군의 활동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⁶

이렇듯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동학농민군과 민보군 양측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 특징을 보여준다. 더욱이 고창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료집이 발간되는 등 동학농민혁명 지역 사례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⁷

이번 글에서는 제1장에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창 지역 민보군의 활동과 그 성격을 정리하고, 제2장에서 『거의록(舉義錄)』과 『취의록(聚義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민보군의 활동과 거의(舉義)를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거의록』은 고창 지역에서 활동한 민보군들의 활동 기록을 모은 자료이다. 백낙규(白樂奎)가 쓴 서문, 이규채(李圭彩)가 쓴 거의사실(舉義事實), 지역사회에 은밀하게 돌린 취의통문(聚義通文), 밀령(密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민보군이 수성군으로 활동할 때 맡은 소임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취의록』은 민보군의 명단을 적은 기록이며, 『거의

4 현재 고창은 1914년 무장현, 흥덕현, 고창현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5 박맹수, 김봉근, 조성환, 위의 논문, 289쪽의 각주 17번에 소개된 연구성과 참조.

6 박찬승, 「전봉준·손화중의 茂長起包와 반농민군의 동향」,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 경인문화사, 2008, 2008; 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2012.

7 성주현, 「동학농민혁명운동 이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 『송실사학』 30, 2013, 145쪽.

록』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취의통문이 첨부되어 있다. 『거의록』에 있는 명단 이외에도 추가된 명단들이 있다. 이 자료들은 고창 지역 민보군에 의해서 생산된 자료로 자신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당시 어떠한 논리로 거의를 정당화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거의에 참여한 인물들도 보여준다.

고창 지역 민보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반대편에 있었던 보수적인 인물들이 중심으로 활동한 세력이다. 동학농민군과 대칭점에 있었던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고창 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고창 지역 민보군의 반동학 활동⁸

1894년 우금치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패전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패전하면서 보수유립층이 반동학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고창 지역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1894년 12월 1일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경군과 일본군으로 구성된 부대는 흥덕에 들어왔다가, 다음 날 고창으로 이동하였다가 12월 3일에는 무장으로 갔다. 무장에서는 3일 동안 머무르며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⁹ 경군과 일본군으로 구성된 부대는 흥덕에 경군 20명을 보내서 민보군과

8 해당 장은 신영우(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2012), 박찬승(박찬승, 「전봉준·손화중의 茂長起包와 반농민군의 동향」,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08) 등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였다.

9 신영우, 앞의 논문, 2012, 112쪽.

함께 수색작전을 전개하였고, 고창에는 경군 30명, 일본군 20명을 보냈다. 이때 고창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체포가 진행되었다. 12월 1일에는 흥덕에서 동학농민군 2명이 붙잡혀서 진중으로 압송되었고, 12월 2일 무장에서는 해당 지역민들이 동학농민군을 잡아왔다. 경군도 14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무장에서 동학농민군 42명을 체포하고, 김경운(金景云)을 효수하였다. 이외에도 12월 17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에 동학농민군이 붙잡혔다.¹⁰

고창 지역 민보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은 경군과 일본군이 해당 지역에 들어온 이후였다. 하지만 고창 지역 민보군은 그 이전부터 거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영중(姜泳重)은 평소 시절을 슬퍼하고 개탄해하던 선비로서, 평상시에 충의로써 자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때를 당하고, 유학의 운수가 다해가는 때를 당하여 늘 답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중략) 그들이 모의한 것은 대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들의 형세는 날로 불어나고, 한쪽 손으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중략) 동도들을 정발할 생각이 일어나 옷을 떨쳐입고 운후를 찾아보였다.¹¹

위의 내용은 1894년 12월 이규채가 작성한 「거의사실(擧義事實)」에 수록된 것이다. 강영중이 흥덕현감 윤석진(尹錫禎)을 찾아가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윤석진은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임지에 남아 있었다. 9월 초순경 윤석진에

10 신영우, 앞의 논문, 2012, 113~114쪽.

11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2쪽.

게 강영중이 찾아가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겠다는 의사를 알린 것이다.¹²

처음에 거의를 논의할 때는 수십 명이 동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취의록』에는 홍덕현 77명, 고창현 439명, 고부 부안면 15명, 부안 건선면 우포 10명, 장성 북이면 8명, 무장현 48명 모두 597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경군이 해당 지역에 들어온 12월 초순 이후에 서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¹³ 서명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오늘날의 고창인 홍덕현, 고창현, 무장현 이외에도 고부 부안면, 부안 건선면, 장성 북이면을 거주지로 하는 사람들이 확인된다.

이는 고창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고부, 부안, 장성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경군이 오게 되면서 거위가 본격화되었고 참여한 인원들에게 역할이 분배되었다.

강영중을 수성좌부장으로 삼고, 감찰 신종관(愼宗寬)을 도령장으로 삼고, 진사 김상환(金商煥)을 주희관으로 삼고, 진사 이병광(李秉光)을 우부장으로 삼고, 황재진(黃在鎭)을 도찰원으로 삼고, 첨사 박래민(朴來敏)을 중군으로 삼고, 최영섭(崔榮涉)을 별참모로 삼고, 박윤화(朴胤和)를 도호장으로 삼고, 강수중(姜守重)을 고창수성장으로 삼고, 이석구(李錫九)를 좌부장으로 삼고, 김상렬(金相烈)을 우부장으로 삼고, 진사 김영철(金榮喆)을 참모로 삼고, 전 현감 은수룡(殷壽龍)을 별장으로 삼고 유광희(柳光熙)를 서사(書史)로 삼았다.¹⁴

12 박찬승, 앞의 책, 2008, 81-82쪽.

13 박찬승, 앞의 책, 2008, 82쪽.

14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2쪽.

강영중이 수성좌부장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하여 거의에 참여한 인사들은 각자 역할을 부여받고 본격적으로 경군을 도와 동학농민군을 수색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¹⁵ 사실 민보군의 군사력이 강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예로 11월에 고창 지역에 차치구 지휘하의 동학농민군 일부가 남아 있었을 때, 민보군이 봉기하고자 한 적이 있었다. 차치구가 아전들을 살해하는 등 위협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고창의 김영철 등이 11월 15일 홍덕현감 윤석진에게 강영중 등을 홍덕, 고창의 수성장으로 임명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청원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윤석진은 이를 만류하였다.¹⁶

그런데 열흘 정도가 지난 11월 25일 홍덕현감 윤석진은 고부의 강영중 등에게 밀령을 전달하였다.

지금 곧 듣건대, 전적(全賊, 전봉준)이 패주하였다 하니, 왕사가 전라도 경내로 들어가면 너희 백성들이 아마도 살아날 수 있는 때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손적(孫賊, 손화중)은 아직까지 그 기세가 치성하니, 생령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관(官)은 국가적 근심에 늘 연애(涓埃)의 탄식이 있는 바, 적도

15 “강영중이 물러나와 여러 벗들과 널리 충의를 지닌 사람을 구하여 수읍에서 백에 이르는 사람들을 얻었는데, 이들은 모두 뜻을 같이하고 같은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일제히 함성을 맞추고 몸을 떨쳐 일어나 왕사를 도와 적을 토벌하기를 원하였다.”(『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3쪽) 해당 내용을 보면 강영중이 민보군을 모으고, 활동에 나서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왕사 곧 경군을 도와 적을 토벌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적인 목표였다. “같은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모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덕”을 크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박찬승, 앞의 책, 2008, 82-83쪽.

들이 패배하여 흩어지는 날, 만약 평민들을 살상하는 폐단이 일어난다면 관에서 뜻하지 않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일제히 대의를 향해 달려 나가 흩어진 적들을 잡아 죽일 것이로되,¹⁷

윤석진이 내린 밀령을 보면 당시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전봉준이 패주하였고, 경군이 전라도 경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것이다. 다만 손화중 부대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생령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진은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여 흩어지게 될 때, 일반 평민들이 해를 당할 경우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 의도는 유사시에 민보군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진의 명령은 11월 29일에 보낸 전령(傳令)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려왔다.

저 동도들이 사방으로 소란을 피우고 요동치되,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어, 담당 영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왕사가 인근 장소에 도착하여 문을 치고, 죄를 성토하고 적을 토벌하되, 옥석을 분간하여 처리하고 있다. (중략) 너희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일어나 흩어진 적도들을 무찔러 죽인다면, 어찌 안전을 획득하는 좋은 계책이 되지 않겠는가?¹⁸

윤석진의 전령을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초기 과정에서는 지방

17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42~443쪽.

18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43~444쪽.

관청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웠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경군과 일본군이 오면서 전황이 바뀌고 있음을 파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지점은 “죄를 성토하고 적을 토벌하되, 옥석을 분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체는 경군(京軍)이었다. 민보군에게는 “일제히 일어나 흩어진 적도들을 무찔러 죽인다면” 좋은 계책이지만, 이는 조선 정부의 통제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태반이 백면서생들인지라,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인즉, 더불어 안락함을 같이 누릴 수는 있지만, 더불어 환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요, 근심 속에서 즐거움이 찾아오고, 즐거움 속에서 근심이 찾아온다는 도리를 모르는 자들이니, 이것이 이른바 관이 우선 염려되는 바이다. 이에 영을 내려 깨우치니, 이후 비록 어떤 날에 만약 시급한 회문(回文)이 있게 되면, 같은 읍이건 다른 읍이건 논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대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로되, 만약 혹시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먼저 그 목을 베어 군율을 엄히 시행할 것이다. 이에 깊이 유념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것이다.¹⁹⁾

위의 내용은 전령의 뒷부분이다. 윤석진은 민보군을 “백면서생”으로 보고 있으며, “용기와 결단력”도 부족하고, “더불어 안락함을 같이 누릴 수는 있지만, 더불어 환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요, 근심 속에서 즐거움이 찾아오고, 즐거움 속에서 근심이 찾아온다는 도리를 모르는 자들”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염려”가 될 정도였다. 그래서 명령에 따

1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44쪽.

를 것을 지시하면서 명령을 어길 경우 그 목을 베어 군율을 엄하게 시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윤석진이 민보군의 거의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전투력이나 엄정한 기강이라는 기준에서는 그 역량이 실제 필요한 만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민보군은 홍덕수성청, 고창수성청 등에서 활동을 하였지만, 전투에 실제로 참전하기보다는 색출작전에 동원되었다.

홍덕의 수성군은 이동면(二東面) 은동(隱洞)에서 서상옥(徐相玉)을, 일서면(一西面) 진목정(眞木亭)에서 정무경(鄭武景)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홍덕의 대접주 고태국도 체포하여 효수형에 처하였다. 이외에도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고성천(高成天), 강윤언(姜允彦), 김태운(金太云), 추운문(秋允文) 등도 홍덕의 수성군에 의해서 붙잡혔다. 그리고 차치구도 체포되어 처형되고 말았다. 이렇듯 민보군은 수성군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군 색출작전에 투입되었고, 이들의 행적은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에도 기록될 정도였다.²⁰

이와 같이 민보군은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전투에서 패전함으로써 세력이 약화되자 그 틈을 타고 이른바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경군과 함께 행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그들의 특징을 활용하여 동학농민군을 색출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등 반동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20 박찬승, 앞의 책, 2008, 91~93쪽.

3. 고창 지역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와 의리론

고창 지역의 민보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경군, 일본군을 보조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이 군대와 동일하게 전투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생활해 왔던 점을 활용하여 행동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당시 지역사회 내에서 당위성을 가지지 못했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그 기세가 줄어들고 부대를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민보군의 편을 들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조선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동학농민군의 문제 제기에 동의 내지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에 호응했다는 것이었다.²¹

이는 달리 말하면 민보군 측도 동학농민군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였고, 이를 해당 지역 구성원들에게 설득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소한 해당 지역 구성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민보군의 행동에 반발하는 것은 억제해야만 했다. 민보군은 이를 위해서 동학농민군을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21 「취의통문」에는 민보군 측의 이러한 고민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도 있다. “제상에 혹 난신적자가 있기도 하니, 자식이면서 적이 되면 그 적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신하이면서 난을 일으키되”(「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09, 437쪽) 이 표현은 난신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나,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호응한 인원들이 매우 많았다는 점, 고창, 흥덕 등의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여론이 민보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론전’을 전개하였다.

장보(章甫: 유자(儒者)을 말함)의 창의를 예부터 있지 않았던 일이었으나 우리 동방의 용사지변(龍蛇之變: 임진왜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동도(東徒)들의 작란(作亂)에 미치어 붓을 던지고 창을 휘두르는 선비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헌원(軒轅)이 전쟁을 벌인 이래, 처음 있는 유생으로 구성된 병사들(儒兵)이다.²²

위의 글은 『취의록』 내에 수록되어 있는 「거의사실(舉義事實)」의 첫 부분이다. 이 글은 1894년 12월 이규채(李圭彩)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규채는 유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의 기원을 임진왜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하게 된 이유를 동도들의 작란-동학농민혁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규채는 동학농민혁명을 난(亂)으로 규정하였으며, 고금을 통틀어서 유자(儒者)들이 거의한 일이 없었는데, 당대에는 유자들이 거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거의의 기원을 임진왜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은 당시 조선 전토에 걸쳐서 전쟁이 진행되었고,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1876년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을 전후해서도 조일간의 분쟁은 지속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동학농민군이 척왜(斥倭)를 주장할 정도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기원으로 하면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을 임진왜란의 일본의 위치로 자리매김을 시도한 것이었다.

22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4쪽.

이는 이규채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동학농민군을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일본 세력만큼이나 용인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일본 세력과 동일시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단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대개 춘추의 법에 따르면,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의이다. 어찌 유독 입곡(笠轂)을 타고 호부(虎符)를 가진 연후에 적을 토벌할 수 있겠는가? 도도한 물결처럼 천하에 능히 춘추대의를 밝힐 수 있는 곳은 우리 동방 뿐이었다.²³

이규채는 이어서 민보군의 거의(舉義)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규채가 언급한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의이다”라는 것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의리론이었다. “사람마다”라는 말은 곧 누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유독 입곡(笠轂)을 타고 호부(虎符)를 가진 연후에 적을 토벌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입곡은 병거(兵車)를 의미하는데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이며, 호부는 원래는 군대를 출동시킬 때 사용하는 부절(符節)로 지방 수령의 관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관직에 있지 않더라도 거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민보군이 관직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춘추대의라는 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보군의 행위는 의를 행하는 것이었다.

23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4쪽.

민보군의 의리론은 통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의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니,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은, 크기는 천지와 같고, 밝기는 일월과 같이 뚜렷하다.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신하로서 그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닌 이가 일삼아야 할 마땅한 바로서, 모든 도리가 이것에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 아님이 없다. 그래서 선왕(先王)들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우선으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 성명(聖明)에 이르러서도, 한결 같이 옛 제도를 따르시어 지키고 이루셨으니, 예약과 문물은 이에 환하였으며, 덕으로 배푼 정치의 교화는 이로써 꽃을 피웠다. 이렇게 즐거이 기쁨을 누려 세상에 사치함이 없고 세속에서는 명분과 절개를 숭상하였다. 생각하니 우리 동토(東土)의 원기(元氣)는 이렇게 아름다웠으니, 이는 진실로 백세토록 바뀌지 않았던 법도였다.²⁴

위의 글은 1894년 9월 9일 작성되어 강영중(姜泳重), 박윤화(朴胤和), 최영섭(崔榮涉), 이회백(李會白), 박추화(朴鍾和), 최규섭(崔圭涉), 김봉섭(金鳳燮), 이길의(李吉儀) 등이 서명한 「취의통문(聚義通文)」이다.

「취의통문(聚義通文)」은 “비밀스레”지만 “돌려 가며 보고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강영중, 박윤화, 최영섭 등으로 대표되는 민보군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이를 널리 알리면서 민보군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한 상황이었고, 당시 분위기도 동학농

24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4~435쪽.

민혁명에 동조하는 이들이 더 많았기에 “비밀스레” 여론전을 전개해야만 했던 것이었다.

통문을 보면 “의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며,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한 보다 자세한 것으로는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신하로서 그 임금의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닌 이가 일삼아야 할 마땅한 바로서, 모든 도리가 이것에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 아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의를 섬겨야 하며, 이는 “선왕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우선으로 삼”을 정도였다. 당대의 임금인 고종도 “한결같이 옛 제도를 따르”면서, “덕으로 베풀 정치의 교화”가 “꽃을 피”울 정도였으며, “명분과 절개를 숭상”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 이는 “백세토록 바뀌지 않았던 법도였”고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었던 것이다.

즉 민보군의 인식에서 의는 당시 조선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 시켜나가는 사회의 기본 준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학농민군도 이미 동학농민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에 근거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²⁵

민보군은 어떠한 점을 근거로 동학농민군이 난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보았을까? 『취의통문』에서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난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동학(東學)의 학(學)이 무슨 학인데 학이 아닌 것으로 난을 일으키는가? 지

25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의를 둘러싼 전체적인 경쟁 구도에 관해서는 다음과 연구성과를 참조(김현주,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 『역사와담론』 93, 2020)

금 그들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또한 난이 되는 까닭을 말하여 그 죄상을 들고자 하노라. 이른바 동학이라는 것은, 이번 봄부터 일어나서 서로 모여들어 도적질을 하고, 완부(完府, 전주)를 범하였으니, 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첫 번째 까닭이다.²⁶

민보군 측은 동학을 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난으로 보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모여들어 도적질을 하고, 완부를 범”한 것을 들고 있다. 도적질을 하고 전라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전주를 점령한 것은, 의에 어긋남은 물론이며 국왕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 때 성조에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고자 정벌한 것은 다만 평정하여 편안히 모이게 할 뿐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용서하여 귀화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천은(天恩)이 망극하다 하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버티면서 흩어지지 않고, 비록 높은 벼슬을 누리던 옛 족속 후손들이나 여염집의 양민들이라 하더라도 으르고 협박하여 같이 그 무리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큰 무리들은 성읍을 공격하고, 작은 무리들은 향리를 노략질하고 있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두 번째 까닭이다.²⁷

민보군 측은 위와 같이 동학을 난으로 규정하는 두 번째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조선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을 하는 동시에 난민이 일반 양민으로 교화되도록 국왕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 측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해산하지 않은 것만을 문

26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5쪽.

27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5쪽.

제삼는 것은 아니었다.

동학농민군 측이 “높은 벼슬을 누리던 옛 족속 후손들”로 표현한 지방의 유력자들이나 그 후손들을 동학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여염집의 양민들”로 표현한 일반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여, “성읍을 공격하고”, “향리를 노략질”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비난하였다. 바로 이것이 동학이 학이 아니라 난이라는 것이었다.

즉 민보군 측의 논리를 살펴보면, 조선 정부가 전통적인 방법대로 군사를 보내서 진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위무를 하여 난민이 일반 양민이 되도록 도리를 다하였으나, 동학농민군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난민으로 활동하면서 국왕의 통치체제를 부정하고,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학의 무리는 난신적자로 의를 거스르고 의를 잃어버린 이들이었다. 이러한 무리에 지방의 유력자들이나 그 후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를 지키는 지방 향촌 세력들을 “학”이 아닌 “난”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의 시각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난”의 지역으로 ‘오염’시키는 것이었다.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니 그 화가 백골에 미치고, 사람들의 집을 부수니 창생에게 원한을 맺고 있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세 번째 까닭이다. 부녀자들과 재물을 금수처럼 겁탈하고, 사대부들의 의관을 똥 무더기에 빠뜨리며, 명분을 문란케 하여 공과 사가 헛되이 무너지고, 사람의 도리를 쓸어버려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네 번째 까닭이다. 도적들이 황지

(潢池)를 농단하여 병권을 휘두르고, 창고의 곡식을 빼앗으며, 관리를 능욕하고, 관군을 항거하였다. 이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이 아니요 난이 되는 다섯 번째 까닭이다.²⁸

민보군 측은 동학이 난이 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이유를 계속 언급하면서 동학농민군의 불의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화가 백골에 미치”게 하면서 “사람들의 집을 부수”기까지 한 이들로 규정하고, “부녀자들과 재물을 금수처럼 겁탈하”는 등 도적들이 세력화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전형적인 도적들의 모습이었다.

반역자와 도적은 조선 사회에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었다. 민보군에게 동학농민군은 “사대부들의 의관을 뚫 무더기에 빠뜨리”고, “공과 사”를 “무너지”게 함으로써 “사람의 도리”가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게” 한 원인의 제공자였던 것이다.

민보군의 이러한 시각은 통문의 후반부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춘추의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대의에 따라 곧 성토하려 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관의 명령에 근거해 먼저 세상의 향로(鄉老)·향대부(鄉大夫)와 이웃 읍의 여러 군자들에게 이서(移書)한다. 우리 성조 오백 년 이래, 모두 인화(仁化)의 덕과 예의의 기운을 입은 데다가 또한 그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고 그 아비를 아버지로 섬길 줄을 아니, 신하가 충성을 바치고, 자식이 효도를 하는 것은, 인화에 의해 행해지는 까닭이다. 예의를 숭상하여

28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5~436쪽.

받들 날은 바로 오늘이다.²⁹

민보군은 “춘추의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대의”에 따라 동학농민군을 성토하고자 하던 중에 “관의 명령에 근거”하여 “세상의 향로, 향대부와 이웃 읍의 여러 군자들에게” 글을 보내는 것임을 밝혔다. 자신들의 행동은 조선 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임금을 임금으로 섬기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줄을 아”는 의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의를 숭상하여 받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오늘날 저 흉악한 무리들은 인의(人義)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반역을 저질러 임금의 위엄을 범하였다. 참으로 임금과 아버지가 노할 노릇이고, 신하와 자식이 원수로 여길 일이다. 그러니 진실로 하루라도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살 수 있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마땅히 정법(正法)에 따라 그들의 죄상을 성토해야 할 것이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으며, 스스로 천박하다 하여 뒤로 물러서서 진실로 오백 년 이래로 생성시키고 함양하고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⁰

위의 글은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동학농민군을 민보군과 대비시키는 내용이다. 동학농민군은 “흉악한 무리들”로 “인의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반역을 저질러 임금의 위엄을 범”하고야 말았다.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임금과 아버지가 노할 노릇이고, 신하와 자식이 원수로 여길 일”이었다.

29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7쪽.

30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7쪽.

그 정도가 심하여 “하루라도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살 수 있게 용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민보군과 다르게 의를 저버리고 조선 사회의 기본 질서인 의를 어길 뿐만 아니라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민보군은 자신들의 행동을 의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의를 거슬러서 반역을 행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민보군의 활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동의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설령 동의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일반 지역민들이 민보군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요컨대 민보군에게 동학농민군은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생활을 어지럽히면서 그 터전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였던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의 주장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동학농민군의 공격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은 이러한 주장을 지역사회 내에서만 하지 않고, 조선 정부 측에도 알림으로써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창의 유생 김영철(金榮喆), 유학 유광희(柳光熙), 이석구(李錫九), 흥덕 유생 김상환(金商煥), 전 감찰 신종관(愼宗寬) 등이 흥덕현감에게 글을 올렸다.

삼가 알립니다. 저희들은 어려움에 처하여 의를 생각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군자(君子)의 무리요, 이로움을 보고 탐심을 내며 자신의 명성을 돌

아보지 않는 것은 소인(小人)의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니까? 아! 저들 동적(東賊)의 난은, 위로는 국가에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는 생명(生靈)들에게 원한을 쌓고 있습니다. 무릇 기개와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³¹

김영철 등은 “어려움에 처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군자의 무리”, “기개와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의를 실천하는 이들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은 “이로움을 보고 탐심을 내며 자신들의 명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소인의 무리”라고 하였다. 이는 의라는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거의에 동참하는 것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당성을 더욱 강고하게 주장하는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은 “동적의 난”, “위로는 국가에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는 생명들에게 원한을 쌓고” 있는 존재들로 표현하고 있다. 민보군과 동학농민군을 조선 정부에 표현할 때에도 의리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동학은, 곧 동방의 성학을 모조리 말살하려는 사학(邪學)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설이 있는 연후에 맹자와 같은 아성이 이단의 설을 막고 오도를 존치시킬 도가 드러나는 것”³²이라고 한 것에서도 더욱 잘 드러난다.

민보군 측을 “동방의 성학”, “맹자와 같은 아성”으로, 동학농민군을 “사학(邪學)” “이단의 설”로 위치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정부에 알릴 때에도 민보군이 “의”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당성의 측면에

31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9쪽.

32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9쪽.

서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었다.³³

그리고 민보군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이들이 추구하고자 한 조선 사회의 방향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개개의 유생들이 충의로써 서로 목숨을 맡기니, 어디를 간들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며, 어떤 어려움인들 건너지 못하겠는가? 이제 이 창의(倡義)의 거사로 말미암아 국운(國運)이 다시 창성할 것이며, 사기(士氣)가 다시 떨칠 것을 점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감히 그 사실을 민멸(泯滅)하게 할 수 없어 그 대강의 전후 사정을 서술하여 후일의 말을 세우려는 군자에게 참고자료로 삼게 하고자 한다.³⁴

위의 내용은 이규채가 작성한 「거의사실」의 마지막 부분이다. 민보군의 활동에 참여한 보수유림들에 대한 기대와 그 이후의 조선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유생”으로 표현된 보수유림들이 “충의”를 매개로 단합하였으므로, “어디를 간들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어려움인들” 극복하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보수유림층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민보군의 “창의의 거사”로 인해서 “국운이 다시 창성”하고 “사기”가 다시 떨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보수유림층이 조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선의 국운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33 「취의통문」에서 민보군의 각오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이 생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비록 맨주먹일지라도 하늘의 이치에 응하고 사람들의 도리에 따른다면 어찌 이기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이기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의와 불의에 달린 것이니, 의로운 것은 우리 의병이요, 불의한 것은 저들 동학이다.”(『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7쪽)

34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434쪽.

것을 보여준다.³⁵

이규채로 대표되는 고창 지역의 보수유림층은 의를 조선 사회를 통치하는 데 기본적인 질서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신분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였다. 이는 보수유림 세력이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었으나, 이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내지는 희망하였고, 자신들의 영향력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4. 맺음말

민보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조선 정부를 도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조선 사회에 대한 구상에서도 동학농민군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사상적인 배경의 차이는 보수세력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5 이규채의 전망과 달리 보수유림층은 이후에도 조선 정부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는 못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운이 다시 창성할 것이라는 이규채의 전망과 다르게 조선 정부에 대한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당시 일본군의 활동을 목격하였을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규채에 의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겨준 것이다. 갑오개혁의 자율성, 타율성에 관한 문제는 별개로 고려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 과정 혹은 그 이후에 형성된 고창 지역 보수유림층이 지향한 조선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보군의 행위가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와 고창을 비롯한 해당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사회의 구성원들 다수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였다. 고창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창 지역은 우금치전투 패배 이후에도 동학농민군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지역이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지 않게 동학농민혁명에 동의 내지는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창 지역 민보군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기득권에 있는 민보군 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거병을 위해서는 조선 정부와 해당 지역사회로부터 자신들이 동학농민군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동의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민보군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상황을 억제해야만 하였다.

「거의록」과 「취의록」은 이를 위해서 민보군 측이 어떠한 논리를 내세웠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보군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한 바람직한 조선 사회는 군자, 향대부 등으로 표현되는 유자들이 영원히 함께 하면서 신분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였다. 즉 중세 봉건왕조의 통치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민보군은 조선 사회의 구성원들이 신분에 맞게 행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조선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의(義)라고 이해하였다. 민보군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동학농민

군은 의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사학(邪學)이거나 난을 일으키는 역적,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난신적자였다. 이러한 행동의 정당화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혹은 지역 사회로부터 터져나올지 모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대를 억제하기 위해 통문을 작성하였고, 조선 정부에는 별도의 글을 올렸다.

민보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동학농민군보다 의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거의를 정당화하였다. 민보군의 거의 정당화를 위한 주장이 바로 이러한 의리론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득권에 속한 민보군 인사들이 은밀하게 통문을 돌리면서 ‘여론전’을 전개하며, 동학농민군과 의리를 둘러싼 경쟁을 해야만 했던 것은 당시 고창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민보군보다 동학농민군의 의리 혹은 주장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선 사회를 구성하는 의에 대해서는 민보군과 동학농민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다. 국왕에 대한 충성 등이 그것이었다. 그렇지만 의가 현실의 세계로 나왔을 때, 그 의가 현실에 적용이 되었을 때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은 달랐다. 동학농민군이 추구한 의에 동조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창 지역도 이러한 현실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고창 지역의 민보군은 동학농민군의 패전이라는 시세를 이용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하는 의의 내용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거나 반대 여론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전개된 의의 이론과 현실, 그 사이의 적용에 대한 교차점을 보여주는 것이 고창 지역 민보군의 의리론과 그 정당화 과정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거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2009a.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취의록」,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5권, 2009b.

단행본

김현주, 「근대전환기 사회운동사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 근대사 연구의 쟁점』, 한국학 중앙연구원출판부, 2023.

박찬승,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08.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논문

김현주,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 『역사와 담론』 제93호, 호서사학회, 2020.

박맹수·김봉곤·조성환, 「전라도 근대사 연구 현황과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2호,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

박상진, 「동학농민혁명 시기 지평 민보군 연구」, 『강원사학』 제35호, 강원사학회, 2020.

박정민, 「1894년 남원지역 동학 농민군과 민보군의 전투: 방아치·관음치 전투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59호, 육군군사연구소, 2025.

성주현, 「동학농민혁명운동 이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 『승실사학』 제30호, 승실사학회, 2013.

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제26호, 동학학회, 2012.

고창지역 영학당과 결세 저항운동*

조재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머리말
2. 영학당 운동
3. 결세 저항운동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25년 9월 30일 고창군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전북사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에서 발표한 원고(『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재판과 결과』)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머리말

현재의 전라북도 고창군은 조선시대부터 1914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통폐합되기 전까지 고창군·무장군·홍덕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창은 정읍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 전봉준을 비롯한 많은 농민군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향후 투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무장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¹ 특히 홍덕군은 1888년 이래 명례궁의 장토가 설치되어 소유권과 지주 소작 문제 등으로 농민들과 첨예한 대립관계를 유지하던 지역이었다.²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지역은 한동안 경제적·사회적으로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³

동학농민군 중 살아남은 일부 세력은 대한제국 초기인 1898년 12월과 18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홍덕·정읍·고창·무장·부안·영광·장성·함평 등 전라도 지역에서 영학당 운동으로 부활하였다.⁴ 첫 번째는 이화삼을 중심으로 홍덕군민이 영학에 투탁하여 활동한 것이다. 이들은 세금 징수와 균전 문제, 향임과 이임 등 지방관직 임명 과정에서의 뇌물, 방곡

1 배항섭·김양식·조재곤·이병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역사공간, 2011.

2 왕현종,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1991.

3 정재철, 「동학농민전쟁 이후 홍덕현의 지역사정과 수습책」, 『史叢』 55, 2002.

4 鄭昌烈, 「韓末 變革運動의 政治·經濟의 性格」, 『韓國民族主義論』 I, 創作과 批評社, 1982; 金度亨, 「大韓帝國의 改革事業과 農民層動向」, 『韓國史研究』 41, 1983; 吳世昌, 「英學黨研究」, 『史學論叢』, 溪村閣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88; 姜吉遠, 「戊戌·己亥(1898~1899) 古阜等諸邑의 農民蜂起」, 『韓國史研究』 85, 1994; 이영호, 「대한제국 시기 영학당 운동의 성격」,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2004.

(防穀)과 미곡 구매 과정에서 군수의 과실을 지적하고 있다.⁵ 이 같은 문제는 동 시기 삼남 지방에서 전개되던 활빈당 운동에서도 제기되었다.⁶ 제1차 영학당 운동이 홍덕군민이 주도하였던 데 반해 제2차 영학당 운동은 홍덕 외에 고창과 무장 지역 출신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고창군 포군 순찰 김상흠은 “밖으로는 영학(英學)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 전날의 동학(東學)”⁷이라며 영학당은 동학농민군의 후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여한 김선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체포 직후 옥사함으로 인해 판결 없이 종결된 경우가 많았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말기 국권이 식민지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홍덕군민들의 조세 저항운동은 지속되었다. 정부 측에서도 ‘홍덕군 민요’로 규정한 이 봉기는 유력 포구인 사포를 근거지로 정부의 수세 청부업과 농촌 고리대와 소작권 변경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지가 군 행정당국과 심한 갈등을 빚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인접지 목포항 개항과 더불어 이 지역에 대거 진출한 일본인들의 토지 점탈 문제와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었다.⁸ 사건은 1905년 홍덕 사포 도여각주인 채내삼 부자와 군민들이 합세하여 군청을 점거하고 군수를 폭행하고 인장을 탈취한 일로 발전하였다.⁹ 홍덕군 이동면의 주민들은 결세 부족본 수백 냥을 재배정하여 분할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시달리던 상황에서

5 『興德郡亂民取招事案』『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6 朴贊勝, 「活貧黨의 활동과 그 성격」, 『韓國學報』 35, 1984.

7 『司法稟報』「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匪類罪人供招記』, 光武 3년 7월 15일.

8 이영호, 앞의 책, 369~370쪽; 민희수, 『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소명출판, 2024, 263쪽.

9 『報告書』第十三號(內部), 全羅南道 觀察使 署理 光州郡守 權重殷→議政府贊政 內部大臣, 光武 9년 3월 26일, 奎. 26178.

함께 관아 점거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전개된 이상 세 가지 사건의 실상과 의미를 살피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각각의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 영학당 운동

1) 제1차 영학당과 흥덕

먼저 1898년 12월 제1차 영학당 운동을 살피기로 하자. 이 운동은 흥덕농민항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부 검사국과 사리국에서는 흥덕군 영학당과 관련하여 송민수·이이선·이복환·채기엽·박기수·정계술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법부대신 서리 신기선은 1899년 2월 17일 고등 재판소 검사 함태영에게 훈령을 내렸다. 그 훈령에 흥덕군 난민작요(亂民作擾)를 조사하기 위해 전남재판소 관하 장성군수 김성규를 명사관으로 정하여 사건의 전말을 조사토록 하였고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군수 임용현은 직책이 지방의 수령이라면 마땅히 몸가짐이 청렴결백해야 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매우 놀랍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오직 마땅한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난민들의 수괴인 이화삼(李化三)의 경우는 원래 흔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로 멋대로 영학(英學)을 믿고 의지하여 나서서 이웃과 친구들의 원망을 깊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죽기를 원하는 무리가 서로 결탁하여서 잡자는 백성들을 두드려 깨워서는 바로 관아로 들어가서 임금이 임명한 관리를 능멸하고 관리의 거

처를 수색하여 관리를 발로 차고서 인장을 탈취하였으니 기강이 매우 심하게 어그러진 것입니다. 송민수의 경우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명된 것에 원한을 가져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서 이화삼을 따르는 것이 하나지만 돌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달아났으나 다른 도망친 여러 놈들과 함께 특별히 기찰 염탐하도록 단단히 타이르고 반드시 체포할 것입니다. 수서기 박우종의 경우는 변고가 밤중에 발생하여 일이 비록 정신이 없었으나 고는 하지만 행동거지를 절제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난민들과 왕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과 행적이 망측하고 도리가 어그러졌으니 합당한 처벌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¹⁰ 이 운동을 주도한 이화삼은 일찍이 동학농민혁명 직후인 1895년 8월 탁지부 파감(派監)으로 고부군의 둔세(屯稅)와 조세 징수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탁지부와 궁내부의 수세 갈등을 겪은 바 있었다.¹¹

위의 보고에 앞서 1899년 1월 7일 장성군수 김성규가 작성하여 전라도 관찰사 민영철에게 보고한 『흥덕군난민취초사안(興德郡亂民取招事案)』은 사건의 전말과 판단까지 적혀 있다. 김성규는 이화삼을 ‘난민(亂民) 작두(作頭)’·‘장두(狀頭)’로, 이이선 등 영학당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수종(隨從)’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이화삼이 난민들에게 스스로 만민회(萬民會) 연설 규칙과 격식이 이와 같다 하고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만민(萬民) 다 들어봅소. 흥덕(興德) 원을 여기 두고 재판하는 게 가하나? 월경(越境)을 시키고 우리까지 공사(公事)하는 게 가하나. 양단간(兩端間)에 소견(所見)해서 말합소”라고 운운하였다 한다. 이화삼은 서울에서 이루어진 만민공동회 연설에 세 차례나 참석한 바 있었다. 제1차

10 法部 檢事局, 『起案』, 「訓令高等裁判所件(第二十號)」, 光武 3년 2월 17일.

11 『宮內府去來文牒』, 「照會(第一百六十三號)」, 建陽 원년 6월 27일. 奎. 17882.

영학당 운동이 일어난 1898년 12월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기간으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론이 비등하였고 심지어 공화제 논의까지 언급될 정도로 과거와 민란의 ‘민회’와는 시대사적 조건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는 결국 대한제국 정권의 최대 위기로 인식되어 그 확산을 두려워한 고종이 군경을 동원하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체하는 결심을 수립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심문에서 송민수와 최주백은 이화삼은 스스로 ‘영학회장(英學會長)’을 칭하였는데 혹시 고부·부안 등지의 무리가 와서 약탈할까 염려되어 매 일 밤 면정(面丁) 50~60명을 소집하여 맡아 지킬 것을 지령하였다는 것이다. 이화삼의 친족이기도 한 이이선은 갑오년 호서 등지에서 동학 접주를 하다가 도피 후 되돌아와 스스로 영학당의 집사를 자처하면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민란을 일으키게 한 흥덕군수 임용현의 5건의 과실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한 일, 2. 고마답(雇馬畓)을 방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일, 3. 모경답(冒耕畓)을 방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일, 4. 뇌물받고 교임(校任)·훈임(訓任)·이임(吏任)을 교체한 일, 5. 세금으로 각지에서 미곡을 무역한 일이었다.

조사 결과 명사관 김성규는 영학당의 5가지 죄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1. 부모 같은 관리를 때리고 발로 찬 것. 2. 인신(印信)을 탈취한 것. 3. 세금을 가져다 쓴 것. 4. 겁박하여 군청의 화물(貨物)을 취한 것. 5. 서울의 ‘만민회’를 모방하여 이른바 ‘민회(民會)’를 개설하는 등 불법을 거리낌 없이 한 것.¹² 김성규는 이들 각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제시하였

12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奎. 17282-v.9.

다. 난민 작두 이화삼과 수종 이이선·이복환·정계술·박기수·채동엽은 모두 순교청에 얹히 가두고, 두민 변정호·허운 등은 보수(保授; 보석)하고, 면주인 수서기 박우종은 사령청에 가둔 후 수도성책(囚徒成冊)을 고쳐 바로잡아 올려보내고, 도망간 범인들은 해당 군의 순교를 각별히 타일러 경계하여 기회를 엿보아 체포케 할 것을 기약하도록 하였다.

이화삼은 공술에서 위의 5가지 군 행정 실책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흥덕군 주민들이 송관오 집의 장례식에 모여 관청이 잘못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다.

- “1. 세금 징수를 독촉할 때 돈을 지고 관청에 들어가는 자는 금전을 헤아려 불기를 치고, 도서관청(都書員廳)에 고한 자는 불기를 치고, 초상(初喪)에 상제(喪制)를 고한 자는 불기를 치고, 나이가 많다고 고한 자도 불기를 친다.
2. 고마답은 문권을 작성하여 각 작인(作人)에게 나누어 주고 값을 바치는 것은 금전으로 한다.
3. 모경답과 척량답(尺量畓)은 수량을 헤아려 문권을 작성하고 값을 바치는 것은 금전으로 한다.
4. 교임·훈임·이임으로 뇌물을 바친 자는 수를 헤아려 교체한다.
5. 본 지역에서 방곡(防穀)하여 혈값으로 관에서 미곡을 사들이므로 우리들이 논의하여 마땅히 민간의 공론에 부쳐 되돌려놓을 것이다.”¹³

이에 부연하여 이화삼은 모경답과 척량답은 두락과 가격을 상세히 알

13 『興德郡亂民取招事案』『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지는 못하나 제내답(堤內畓)은 수량을 헤아리는 것을 보았으나 세금은 어느 곳에서 거두어 갔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임·훈·임·이·임 채용 시 뇌물을 주고받아 교·훈·임은 수백 냥 혹은 수십 냥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아 일찍부터 기록해 두었는데, 체포될 때 인명과 액수 명부를 잃어버려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¹⁴ 이임의 경우 외간의 전해지는 말만 들어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각 면의 서원처(書員處)에 2천 냥을 내어야만 관에서 임용하였다는 것은 과연 소문과 같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방곡과 관련하여 그는 흥덕군 내 다섯 곳에서 쌀을 사들였으나 군수 임용현이 엄히 방곡을 실시하여 매석당 시가 15냥의 쌀을 13냥 5전으로 가격을 정하여 헐값으로 사들여 차액을 착복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명확히 조사하여 밝힐 것을 호소하였다.

제1차 영학당 활동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1899년 3월 18일 법부대신 의정부 찬정 유기환은 전남재판소 판사 민영철에게 “도망간 송민수·이이선·이복환·채기엽·박기수·정계술 등을 엄밀히 염탐 붙잡아서 모두 별도로 조사하여 경중을 나누어 엄히 징계 처벌하라”고 훈령하였고,¹⁵ 4월 6일 민영철은 그 같은 내용을 흥덕군에 비밀 지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⁶ 유기환은 6월 22일 민영철에게 재차 “흥덕군 피고 죄인 이화삼은 귀 재판소의 판결선고서에는 당초 징역 종신의 율으로 되어 있으나 죄와 율명이 서로 합당하지 않으니 『대명률(大明律)』 소

14 수서기 박우종도 당시 군 향교 장의와 양토재 장의는 각 100냥, 복면의 훈·임은 70냥씩 책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興德郡亂民取招事案』 『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15 法部 檢事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十三號)」, 光武 3년 3월 18일.

16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二十九號)」, 光武 3년 4월 6일.

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주소(奏訴)가 있다고 하면 서 아문으로 곧바로 들어와 관리를 협박한 자는 변방 수비로 보내 군인으로 충당한다는 율”로 바로잡고, “정계술·이이선은 수종의 율로 2등을 감하였으나 수종의 율에는 2등을 감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이화삼의 본 율에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3년으로 바로잡고 아울러 사면의 은전을 받들어 감등하고, 이복환·박기수·채기엽은 위협에 속아넘어가 관인(官印)을 탈취하고 관리를 위협하는 데 간여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있다고 하겠는가? 이 세 놈은 즉시 풀어줄 것”¹⁷이라고 훈령하여, 동일 내용으로 7월 25일 전남재판소 판사 민영철이 최종 판결하였다.¹⁸

이화삼처럼 『대명률』 소송편 「월소조」를 적용받아 처벌된 경우는 1898년 사환미(社還米) 문제로 평안도 증산군에서 통문을 돌리고 민란을 일으킨 김용서,¹⁹ 같은 해 산송(山訟) 문제로 고등재판소에 호소하던 중 검사에게 칼을 휘두르며 난동한 박성하,²⁰ 1904년 경기도 시흥군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군수를 살해한 사건 관련자인 하주명 등이 있다.²¹

2) 제2차 영학당과 고창·무장·흥덕

1899년 4월의 제2차 영학당 운동은 고부·정읍·흥덕을 시작으로 하였는데 4월 18일에는 고부, 19일에는 흥덕, 20일에는 무장에 들어가 군기 탈취와 이교의 집을 불태우고 문부를 탈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2일 오후에는 고창의 수성군과 접전 후 패배하였고, 23일에는 광주와 전

17 法部 司理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三十二號)」, 光武 3년 6월 22일.

18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七十號)」, 光武 3년 7월 25일.

19 『司法稟報』, 「報告書(第五十三號)」, 光武 2년 9월 3일.

20 『司法稟報』, 「質稟書(第十五號)」, 光武 2년 11월 30일.

21 『司法稟報』, 「質稟書(第四號)」, 光武 9년 4월 17일.

주 지방대의 병정들이 이 지역에 출병하였다. 전라남도 관찰사 민영철은 4월 26일 고창 수성군(守城軍)이 체포한 영학당 6명을 심문하였다. 손치범은 농민군 최고지도자 손화중의 5촌 조카였고, 김선명은 행군 집사로, 전막동 등은 영학당 지도자인 정읍의 최익서와 함께 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 중 전막동·전성숙과 김선명·김준옥은 무장 출신이거나 무장 또는 고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당시 작성된 ‘영광읍인(靈光邑人) 사서(私書)’에 의하면 비도의 괴수는 정익서(鄭翼西), 손화중의 아들, 전명숙의 아들, 홍낙관, ‘정읍 최가’라고 되어 있다. 또 다른 자료에는 괴수는 ‘손화중의 子, 孫化中의 子’로 기록되어 있는데,²² ‘정읍 최가’는 최익서(崔益西)를 지칭한 것이다. 손치범과 전막동·전성숙 등은 손화중과 전봉준(전명숙과 전녹두는 전봉준의 다른 이름이다)의 아들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호남공동대회설소(湖南共同大會設所)’라는 문구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²³ 『독립신문』 기사에 따르면 “머리에는 평량자를 쓰고 흰 수건과 노란 수건으로 머리를 싸으며 옷 등에는 도서를 찍었고 큰 기는 하나인데 보국안민(補國安民) 네 글자를 썼고 작은 기는 네 개요, 영기는 세 개며, 서양 총과 조총이 백여 개라 하더라”²⁴라고 되어있다. 이 영학당 제2차 봉기도 앞선 제1차 봉기의 연장선상에서 ‘공동회소’의 깃발을 들고 활동한 점으로 보아 1898년 12월 강제 해체 이후에도 만민공동회는 여전히 이 지역 운동에 영향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국안민’의 깃발을 들어 동학

22 경남 함안군 지곡면 보산리 정취마을 허원식 종가 소장 문서(소장자 허태홍).

23 『司法稟報』, 『報告書』 第1號, 全羅南道 高敞郡守 鄭崙永—議政府贊政 法部大臣, 光武 3年 6월 11일.

24 『독립신문』, 광무 3년 6월 19일.

농민군의 지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광대(才人) 출신 홍낙관은 고창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스스로 대성수 접주(大成首接主)라 칭하였고 1894년 3월 고부 백산봉기에 다수의 천민 부대를 이끌고 참여하였다.²⁵ 그는 손화중 포의 가장 선봉이자 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로 무장봉기와 이후 집강소 활동에 참여하였다.²⁶ 당시 손화중 부대 내에는 천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홍낙관은 12월 9일 고창의 임리에서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진중에 수감되었다.²⁷ 홍낙관은 최경선 등과 함께 함평을 거쳐 1895년 1월 4일 나주로 보내진 후 일본군 대대장에게 압송되었고 전봉준·손화중·김덕명 등과 함께 서울의 일본영사관으로 호송되었다.

홍낙관은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로 이송 후 심문을 받았다. 법무아문 대신 서광범이 주도한 1895년 3월 판결선고서에 의하면, 체포 당시 그의 죄명은 고창지방의 ‘비도 거괴’로 농민군을 지휘하여 군기를 약탈하고 돈과 곡식을 겁탈하여 정부와 민간에 크게 소요하여 지방 안녕을 해했다는 것이었다.

“전라도 고창 거주. 농업 평민

피고 홍낙관(洪樂寬). 나이 46세

위에 기재된 홍낙관은 고창지방에서 비괴(匪魁)의 지휘에 따라 군기를 탈취하고 전곡을 빼앗았으며, 관정이나 마을에서 소요를 일으켜 더욱 혼란스럽

25 손태도, 「동학농민혁명과 광대집단의 활동 : 홍낙관·홍계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017, 53쪽.

26 『牒報』 1권, 개국 504년 5월 7일,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慰撫使 李道宰→法部, 奎. 26300.

27 『兩湖右先鋒日記』, 乙未 1월 12일.

게 하여 지방의 안녕을 해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 아문 재판소에 잡아와서 특별히 심문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지방에서 위의 사정을 함부로 저지른 증거가 명백하였다. 그 행위가 『대전회통』 추단안(案)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중범’이라는 명문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홍낙관을 장형(杖刑) 100대와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한다.”²⁸

그는 다행히 사형을 면하고 『대전회통』 추단조에 의거하여 장 100대를 맞고 3천리 유배형에 처해졌다. 이후에는 1896년 10월 손병규·최익서 등 8인과 함께 해월 최시형을 찾아가 고대산(高垜山) 아래 수춘점(水春店)에 구인접(九人接)을 설포(設包)할 것을 건의하고 활동하였다.²⁹ 이후 동생 계관과 더불어 1899년 제2차 영학당 운동에도 ‘거괴’로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³⁰ 그러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다.

체포된 영학당원 중 김선명은 공초에서 “저는 태인군 고현내(古縣內)에 살며, 갑오 거괴 임경학의 성찰(省察)로 역시 금변에 행군 집사가 되어 각처를 따라다녔습니다. 장차 고창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는 최익서와 김여중은 괴수가 되고, 포사대장(砲士大將) 박재관은 양총(洋銃) 9자루, 조총(鳥銃) 300여 자루를 영도하여 이끌고 고창읍에 당도했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달리 자복할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전막동은, “저는 무장 사점(沙店)에 거주하는데 그 무리가 무장에 난입할 때 총을 메고 함께 갔으며, 다음 날 고창전투 때 천보총(千步銃) 1

28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15號 判決宣告書原本 洪樂寬」, 개국 504년 3월.

29 『金洛喆歷史』, 丙申 10월.

30 『全羅南道高敞郡被就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竝錄成冊』, 奎. 26137; 『全羅南道高敞郡就就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竝錄成冊』, 奎. 26136.

자루를 제게 주는 고로 결국 이를 받고 접전하였고, 무장 이방에게 토색한 돈 300냥은 패주할 때 같은 무리 현재서가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준옥은, “저는 본군 산내면(山內面)에 거주하며, 무장 신대동(新大洞)의 성재명으로부터 도를 전하여 받았고, 동 무리는 거의 1,000명에 이르렀으나 이번 소요를 일으킬 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전성숙은, “저는 무장 사점에 살며, 갑오 비괴(匪魁)의 수종으로 결국 귀화하였는데, 이번에 무장 행군 때에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 무리에 참여했다가 붙잡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고창과 무장에서 관군과 접전하고 관청의 재물을 탈취하였는데, 이전부터 동학 교리를 전하여 받거나 1894년 농민군 접주의 부하로 활동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해 6월 10일 관찰사 민영철은 온몸에 총상을 입은 김선명·전막동·김준옥은 4월 27일 밤에 고창 감옥에서 사망하였고, 손치범·임벽화·전성숙은 ‘옥에 갇힌 이후 서로 겁먹고 물과 밥을 먹지 않고’라 하여 식음을 전폐하다가 당일 밤 모두 사망한 것으로 범부대신에게 보고하였다. 민영철은 “김선명 등은 모두 갑오 때 잡히지 않은 비도로, 이들이 이렇게 생존함은 조정의 하늘 같은 큰 은혜 아닌 게 없으나, 몰래 스스로 미리 빈틈없이 준비하여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었다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니, 그 심보를 헤아리면 마땅히 법으로 처형해야 하지만, 모두 죽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 이에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라고 부연하였다.³¹ 한 자료에 따르면 “체포한 자를 모두 진중(陣中)에서 문초하니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다.[含口無言]”³²고 한다. 이들 모두 진술서를 남긴

31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五十四號)」, 光武 4년 6월 16일.

32 경남 함안군 지곡면 보산리 정취마을 허원식 종가 소장 문서.

점으로 보아 관찰사의 보고 내용과는 달리 가혹한 고문 후유증으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외에 김상흠과 김재호도 고창군에서 영학당 운동에 참여 후 체포되어 전남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관찰 고창군수 정윤영은 법부에 “난당 김상흠은 이른바 포군순찰(砲軍巡察)로 체포되었고, 김재호는 이른바 대장기수(大將旗手)로 체포되어 음력 4월 25일에 전라남도 관찰부로 압송하여 보냈습니다.”³³라고 보고하였다. 6월 24일 법부대신 서리 조병식은 전남 관찰사 겸 재판소 판사 민영철에게 고창군수의 보고서를 배껴 보내면서 “고창군 보고에 따르면 난당 김상흠과 김재호가 범죄를 저지른 사정을 법률에 조사하여 속히 보고할 것”³⁴이라고 훈령하였다.

이에 민영철은 7월 15일 조병식에게 심문 결과 김상흠은 범망을 빠져 나간 동학 무리로 다시 비류가 되어 3개 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돈과 재물을 빼앗았으며, 사도(邪道)의 주문을 외우고 성찰 직을 맡는 등 여러 죄상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재호는 갑자기 비당(匪黨)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오년에 난리를 겪었을 때의 놀란 기억이 남아 있어 도망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기수로 강제로 충당되었고, 고창의 전투에 참여했지만 도망치려고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김재호의 경우는 협박 때문에 따라다닌 것으로 김상흠이 저지른 죄와는 차이가 있지만, 죄의 경중을 율로 헤아려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³⁵

33 法部 檢事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三十四號)」, 光武 3년 7월 8일.

34 『司法稟報』, 「本部訓令」, 光武 3년 6월 24일.

35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光武 3년 7월 15일.

이 보고서에 첨부한 「공초기」에 따르면 먼저 김상흠은, 갑오년에 태인의 동학 접주 류응로의 포(包)에 투탁하여 성찰에 임명되었고, 동학이 소탕될 때 산내면에 숨어 있다가 금년(1899년) 4월 19일에 영학당이 무리를 모으는 이야기를 듣고 우두머리 정사국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가서 그 동정을 살펴보니 밖으로는 영학(英學)이라고 하지만 안으로는 사실 전날의 동학(東學)이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영학당은 동학농민군의 후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20일에 고부군으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고 총 40여 자루, 화약 1짐[駄], 탄환 90여 개를 탈취하고, 21일 저녁 무렵에는 사방에서 모인 100여 명과 함께 흥덕군을 공격하여 군기고에 남아 있는 총기 10여 자루를 다시 탈취하였다. 22일에는 흥덕군 후포에서 200냥을 탈취하고 가는 길에 고창 봉암의 민가를 불태우고 그날 밤 무장군으로 들어가 군총 50여 자루, 화약 1작, 환도 10여 자루와 민가에서 200여 냥을 탈취하였다. 그는 24일 고창군 수정(葢亭)에 모여 수성군과 접전하다 패하고 흩어지는 중 73세의 연로한 나이로 빨리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 압송되었다. 한편 김재호는 영학당 수백 명이 마을에 모여 위협하였는데, 이는 갑오년보다 더욱 건디기 어려워 겁먹고 도망가는 중에 그들에게 잡혀 강제로 기수에 충당되어 따라다니던 중 잡혀서 압송되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³⁶

그러나 이들 후 민영철은 조병식에게 김상흠의 옥사를 보고하였다. 즉, “감옥 순검 김창원이 보고하였는데, ‘본서에 수감되어 있는 비류 죄인 김상흠이 본래 매우 늙었고 겹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 병에 걸려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못 먹다가, 이번 달 17일 밤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였습니

36 『司法稟報』, 「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七號)」, 「匪類罪人供招記」, 光武 3년 7월 15일.

다. 이에 몸소 정시처(停屍處)가 있는 감옥으로 가서 상세히 살펴보니, 전신의 상하에 달리 목을 맨 상처는 없었고 병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하며 달리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³⁷라는 것이다. 관찰사는 별도의 검험 결과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시신은 별도로 매장하였다. 반면 범부대신 조병식은 김재호의 경우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것이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곤욕을 당한 것이 확실하니 즉시 풀어주라고 훈령하면서 이들의 사건은 종결되었다.³⁸

영학당으로 활동하면서 홍덕과 무장의 군기를 탈취하고 고창에서 수성군과 전투 후 피신하였다가 1899년 9월 광주지방대에 체포된 홍덕의 오재봉 등 5명도 추가로 전라남도 재판소의 심문을 받았다. 이들 중 홍덕군 이서면 중등 출신인 송왈갑과 유도연은 ‘조금도 잡아들일 만한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박도서를 잡기 위해 체포 후 풀어주었다. 반면 오재봉과 양선태·김장일은 모두 ‘갑오년에 (범망에서) 빠져나간 무리’로 무리를 몰아 각 군에 난입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성읍을 함락시키려고 고창의 수성군과 싸운 후 도망하였지만 체포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공초를 통해 살필 수 있는 오재봉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덕군 일서면 백선동 출신으로 ‘동비(東匪) 여당(餘黨)’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894년 말 농민군 패전 이후 잠적하였다가 다시 1899년 음력 4월 6일 홍덕 삼태리 거주 이강성과 함께 태인 화호(禾湖)의 김여성의 집으로 가서 며칠간 머물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19일 홍덕관아

37 『司法稟報』「全羅南道 觀察使 閔泳喆 報告書(第六十八號)」, 光武 3년 7월 17일.

38 法部 司理局, 『起案』, 『訓令全南裁判所件(第四十二號)」, 光武 3년 8월 4일. 그런데 법부에서는 김상흠이 옥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훈령에서 그를 사형으로 처결하라고 지시하였다.

를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였고 20일에는 ‘알피[卵山]’ 시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21일에는 무장군으로 들어가 군기를 탈취하고 22일에는 고창군 수정에서 수성군과 전투에서 패전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가 며칠 후 순검과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고창관아에 수감되었다가 광주로 압송되었다.³⁹⁾

고부군 부안면 우수거리 출신 양선태는 “지난 갑오년에 동도에 참가했다가, 다행히 크게 사면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입고 겨우 남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음력 4월경에 다시 비류에 가입하여 접주인 동리의 현재서를 따라 죽창을 잡고, 이번 4월 15일에 고부군을 공격해서 군기를 탈취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읍군 구암리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같은 달 19일에 흥덕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했습니다. 22일에 진죽거리에 이르러 오후에 바로 고창군으로 향했습니다. 황혼 무렵에 수성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형세가 감당할 수 없어 서로 도망갈 때 순검 및 순교들에게 잡혀서 지금 압송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부안면은 흥덕 경계에 있는 고부군의 비입지(飛入地, 월경지)로 현재 고창군 소속지로 되어 있다.

한편 김장일은 “저는 고부군 알피시장에 살면서 술과 음식을 팔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음력 4월 20일 밤에 비류 백여 명이 무리 지어 와서는 술과 음식 및 짚신 등의 물건을 토색질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을 위협하여 그 무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저 역시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죽창을 들고 그 무리를 따라다녔습니다. 21일에 무장군을 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해당 군에 머물렀습니다. 22일에 고창군으로 서둘러 가서 고창군의 수성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형세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로 도

39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閔泳喆 報告書(第八十號)」, 光武 3년 9월 9일.

망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순교들에게 잡혀 압송되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부군 알피시[卵山市]는 당시는 고부와 흥덕 경계로 현 고창군 부안면 소속지이다.

그런데 이 영학당의 제2차 봉기에 대해서는 그 주장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향점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전 외부대신 김윤식의 일기 기록은 소략하지만 적지 않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899년) 6월 13일 호남 고부 등 여러 읍에 있는 백성들의 논이 궁장(宮庄)에 빼앗겨 서로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무리를 불러 모아 크게 난리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놀라고 근심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지난달 흥덕·고부·무장 등지에서 민요(民擾)가 크게 일어났는데 영학(英學)이라 부르고 혹은 서학(西學)이라고 칭하며 무리 수백 명을 모아 옥의 죄수를 함부로 풀어주고 군기를 빼앗거나 훔치니 전주와 광주 두 곳의 지방대가 협공하였다. (중략) 또 고부 등지는 군전사 김창석이 백성들의 토지(民田)를 빼앗아 명례궁(明禮宮)에 불합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궁내부대신 이재순에게 호소하였지만 듣지 않고 억지로 그들의 토지를 빼앗아 그 결과 이와 같은 소요에 이르게 되었다.”⁴⁰

흥덕·고부·무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영학당 제2차 봉기의 지향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으로 군전사 김창석이 백성들의 토지를 억지로 빼앗아 조선 왕실의 사금고를 상징하는 궁방인 명례궁(明禮宮)에 부속시

40 金允植, 『續陰晴史』上, 光武 3년 6월.

김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사(前史)인 동학농민군 봉기의 경제적 주요인의 하나인 균전사(均田使)의 작폐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영학당 운동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례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영학당 운동의 실패는 그 후사(後史)로서 러일전쟁 이후 흥덕군민의 결세 저항운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제2차 영학당 운동 참여자로 체포된 이들 중 재판 판결 이전 옥중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자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원 사망으로 이 사건은 판결 없이 종결되었다. 고창지역 인사로서는 오재봉·양선태·김장일 등 3명만 법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899년 9월 법부대신 권재형은 오재봉·양선태·김장일은 모두 『대전회통』 「추단조(推斷條)」 “군복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에 관계된 율”을 적용할 뜻으로 상주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아 전남재판소 판사 민영철에게 이들을 교수형에 처한 후 상황을 보고토록 하였다.⁴¹

그런데 김장일은 옥에서 병사하였고, 오재봉과 양선태에 대해서는 종신형 이상은 지방재판소에서 스스로 선고하는 전례가 없었기에 전남재판소에서는 법부대신에게 지령해 달라는 질품서를 1900년 5월 1일에 제출하였다.⁴² 이에 5월 18일 법부대신 권재형은 『형율명례(刑律名例)』 제15조⁴³ 개정 후 법부에서 발한 훈령이 한돌이 아니므로 두 범인을 율에 따라 선고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혹시라도 위반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령

41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閔泳喆 報告書(第八十號)」, 光武 3년 9월 9일.

42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閔泳喆 質稟書(第四十三號)」, 光武 4년 5월 1일.

43 “第15條：國事犯을 役刑에 處할 시는 반드시 上奏를 經함이 可함.”

하였다.⁴⁴ 그 결과 전남재판소 판사 조종필은 법부대신에게 6월 16일 전 판사 민영철이 판결한 선고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9월 12일 제출하였다. 판결선고서에 기재된 이들의 활동 내용은 9월 9일 전라도 재판소 판사 민영철의 보고 내용과 동일하다.⁴⁵

이에 대해 법부대신 권재형은 9월 25일 이들을 단단히 옥에 가두고 상주를 기다려 훈령 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⁶ 이 안건에 대해 1901년 5월 18일 법부대신 서리 협판 이재곤이 전남재판소 판사 윤운렬에게 이달 17일 고종 황제로부터 재가를 받았으니 형 집행 후 보고토록 훈령하였다.⁴⁷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형(絞刑)이 집행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관보』에 실린 최종 죄명은, “전라남도 재판소 심리 비류죄인(匪類罪人) 오재봉과 양선태는 모두 갑오(甲午) 동비(東匪)로 법망에서 빠져있다가 기해년(1899) 4월 무리를 이끌고 흥덕·고부·고창·무장 등 군의 군기를 탈취하고 더불어 고창군 수성군과 접전한 죄는 『대전회통』 「추단조」 ‘군복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의 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⁴⁸

그런데 『대전회통』은 『대명률』의 중세 중국법을 원용한 것이고 앞선 동학농민군들도 『대전회통』 「추단조」를 적용하여 처형하였다. 고창 출신 전봉준·홍낙관 외에 동학농민군으로 『대전회통』 추단조를 적용받은 인사는 손화중·최경선·성두한·김덕명 등이 있다. 이후 1898년 춘천군 ‘비도

44 法部 司理局, 『起案』, 「指令全南件(第三十三號)」, 光武 4년 5월 18일.

45 『司法稟報』,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趙鍾弼 報告書(第五十九號)」, 光武 4년 9월 12일.

46 法部 司理局, 『起案』, 「指令全南件(第四號)」, 光武 4년 9월 25일.

47 法部 司理局, 『起案』, 「指令全南件(第十七號)」, 光武 5년 5월 18일.

48 『官報』, 光武 5년 6월 1일.

죄인' 황강이도 이 조항으로 교형을 선고받았고,⁴⁹ 1899년에 체포된 천안군 동학농민군 참여자 박만귀와 정정기도 동일 조항으로 교형으로 처형되었다.⁵⁰ 1901년 제2차 제주민란 주도자 오대현도 이 조항으로 처형되었다.⁵¹ 반면 최제우와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교단 지도부와 교도는 『대명률』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도상(圖像)을 은밀히 보관하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척 꾸미고 인민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과 중범”에 관한 율을 적용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과거와는 형벌 적용에도 차이가 있어 장형이 태형으로, 유배형이 금고형(징역형), 참형과 총살형이 교수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금고형과 유배형이 뒤섞여 실시되는 등 일부 난맥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3. 결세 저항운동

1905년 2월 홍덕군민 채내삼(蔡乃三)과 그의 아들 동근(東根)·동호(東浩) 및 가내 식솔과 군민들이 관아에서 소란을 일으켜 군수를 폭행하고 인장을 빼앗아 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연원은 1903년 12월 채내삼이 이경호로부터 3만 6천여 냥을 빼앗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함경도 단천 출신 북어상 이경호가 소장을 올려 홍덕의 채내삼에게 봉

49 『官報』, 光武 2년 8월 19일.

50 『官報』, 光武 3년 1월 14일.

51 『高宗實錄』, 光武 5년 10월 9일.

표전(摜票錢) 3만 6천여 냥을 찾아서 되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감영은 “채내삼의 행위는 도적질과 같은 것이므로 잡아서 대질조사 하여 곤장 후 가두어 엄히 감독하고 수량을 준하여 되돌려주어 먼 곳의 사람이 낭패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⁵² 그 결과 채내삼은 체포되어 1904년 10월에 이르기까지 11개월 동안 목포항 감리서에 수감되었다.

채내삼은 1896년부터 흥덕 사포(沙浦)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순창인 윤도병이 선여각(船旅閣)의 권리를 얻은 이래 그가 거주하는 사랑을 여각으로 빌렸다. 사포는 당시 흥덕군의 가장 유력한 포구의 하나로 상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해창(海倉)이 존재할 정도로 상품 유통이 원활한 곳이었다.⁵³ 조선 후기 이래 사포·우포(牛浦)·후포(後浦)·석호(石湖) 등 흥덕군 각 포구의 수세는 명례궁 소속으로 도여각주인(都旅閣主人)을 두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1890년의 경우를 보면 이 4개 포구에서 매년 당오전 5천 냥을 5월에 3천 냥, 11월에 2천 냥씩 각각 명례궁에 분할 상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⁴ 동학농민혁명의 전사인 고부농민항쟁의 한 요인으로 최영년은 1894년 정월 11일 읍민 수백 명이 명례궁 보에 대한 세금 징수로 연달아 소장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⁵⁵ ‘왕실(王室)의 사고(私庫)’로 평가받던 명례궁의 보세(湫稅)는 같은 해 10월 영천민란의 원인이기도 하였다.⁵⁶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도 명례궁에서 각종

52 『各司謄錄』, 全羅道篇 4, 「各郡狀題」1, 光武 7년 12월 25일.

53 日本 陸軍 參謀本部 編, 「興德縣」, 『朝鮮地誌略(卷八)』, 全羅道之部, 明治 21년 11월, 130쪽.

54 『節目』(明禮宮), 庚寅 二月 日, 奎. 18288-19.

55 崔永年, 『東徒問辨』, 「古阜起擾辨」.

56 『永川按覈啓草』, 開國 503년 10월 4일; 『啓草存案』, 「永川按覈使李重夏狀啓」, 갑오 10월 13일.

징수금을 부과하는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 관례가 있어 누구나 돈만 내면 특허증을 얻어 이를 소지한 자는 하천이나 도로에 관소(關所)를 설치하고 통과 화물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이후 선상(船商)들로부터 많은 횡령을 한 윤도병이 도주하였고, 그러던 중 뜻밖에 1900년 이경호가 윤도병에게 받을 것이 있다 칭하고 영읍에 여러 가지로 무고하여 채내삼을 잡아 가두었다.⁵⁸ 이에 여러 번 재판으로 사안이 공정하게 타결되는 듯하더니, 1902년 채내삼이 장사차 서울에 상납전 2,795냥과 무명(白木) 20필을 짐말에 싣고 정읍 땅을 지나던 중 이경호가 졸지에 수십 명의 무리를 불러 모아 때리고 빼앗아 갔다. 이에 채내삼이 정읍군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군수는 이경호의 의뢰만 받아들여 화표(和標)를 작성해 주었고, 이경호가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뜻밖에 1904년 이경호가 무고하여 범부 훈령으로 채내삼을 광주관찰부에 수감하고 목포항 감리서로 이감하였다. 며칠 후 감리가 일본인 우즈기 키소우(宇津木颯)와 함께 안동(眼同; 입회) 순교(巡校) 수십 명을 채내삼의 집에 파견하여 가구와 전토문권(田土文券)을 몰수해 갔다.⁵⁹

5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內政改革을 위한 對韓政略에 관한 보고」,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外務大臣 子爵 陸奥宗光, 1894년 11월 24일.

58 사포의 여각주인권(旅閣主人權)은 원래 명례궁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1896년 7월 각항 잡세 혁파의 조치 이후에도 탁지부 주관하에서 이전처럼 수세권을 보장받았다(『宮內府去來文牒』, 『照會(第二百十八號)』, 建陽 원년 11월 5일). 사포 여각주인 수세권은 1896년 11월 7일 이후 궁내부 소관으로 이전되었다(『宮內府去來文牒』, 『照會』, 建陽 원년 11월 7일). 그사이 윤도병을 대신하여 채내삼이 사포의 새로운 여각주인이 되어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59 이때 몰수한 물건은 채내삼 삼부자의 토지 문권, 전답 문권 5석락, 낫그릇(鋤器), 백미와 대·소맥, 콩 4석, 철물 기계, 의복, 서책 72권, 은가락지 4건 등이었다. 『務安報牒』, 外部大臣 李夏榮→務安監理 韓永源, 光武 8년 9월 17일. 奎. 17864.

한편 무안감리 한영원은 우즈기 키소우와 관련하여 무안항 일본 영사의 조회에 근거하여 1904년 8월 채내삼과 그의 첫째 아들 채동근, 우즈기·이경호를 대질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연 채내삼 부자의 표증(標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개항장의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무지와 사행심 등을 이용하여 고리대 및 사기·횡취(橫取)·약탈·강점 등의 수법으로 토지를 침탈하여 큰 문제가 되었다. 전라도의 경우 부랑배들이 외국인과 결탁하여 외채(外債)라고 속이고 가짜 표증을 만들어 돈을 받아내는 행위가 각 군에 횡행하자 무안감리 김성규가 이를 경계하는 훈령을 하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어 감리로 부임한 한영원의 경우 김성규와는 달리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⁶⁰ 9월 7일 일본 영사의 조회 후 다시 대질 재판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한영원은 채동근이 횡설수설하면서 심하게 반항하였고 반면 우즈기의 강청 압박도 날로 심했다고 보고하였다. 법무도 이를 받아들여 10월 3일 채동근의 소유 전답을 매각하여 우즈기의 부채를 되돌려 지급하라고 지령하였다. 그 결과 일본 영사와 법무 지령에 따라 흥덕군에 훈척하여 우즈기와 이경호가 채내삼 집에 가서 전답 문기와 서적 수집 권을 가져갔다.⁶¹ 우즈기 키소우는 오사카 평민 출신 상인으로 목포 거류자로 확인되며 1900년 4월 당시 군산항 각국 조계지 내에 640㎡, 공매 가치 155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⁶² 그는 1903년 12월에는 목포 부두 노동자 파업 사건 수습을 위한 일본인 거류민 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

60 민회수, 『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소명출판, 2024, 263·292~293쪽.

61 『務安報牒』, 務安監理 韓永源→外部大臣 李(夏榮), 光武 8년 10월 29일.

62 『沃溝港報牒』, 沃溝監理署理 監理署主事 金致鍊→議政府贊政 外務大臣, 光武 4년 4월 6일.

다.⁶³

이 기간 이경호를 무안향 일본영사관에서 잡아왔고 무안감리 한영원이 이를 조사하였다. 이경호의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1897년 10월쯤에 일본 상인 우즈기(宇津木; 宇津木兢 우즈기 키소우)에게 10,720냥을 빌려와서 북어(北魚)와 당목(唐木) 등을 무역하기 위하여 배에 싣고 흥덕사포에 정박하면서 도여각주인 채내삼에게 팔려고 맡겨두었고 백미 55석을 사두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채내삼이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금전과 쌀을 모두 빼앗았고 7년이 지나도록 부와 군에서 재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배상을 미루고 있었다. 이에 이경호는 법부에 정소(呈訴)하였고 그 결과 전라남도 관찰부에서 채내삼의 아들 동근을 순검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법부로 데려가려고 무안향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경호는 우즈기에게 붙잡혔고, 채동근은 경무서에 갇히게 되었다. 이경호는 채동근에게 47,102냥을 추심하는 것 외에는 일본인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속히 추심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무안향 감리는 이경호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채내삼과 채동근 부자 표증에 나와 있고 채동근이 물건을 훔쳐 판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그 금전은 이경호의 이름으로 우즈기에게 되돌려줄 것으로 경무서에서 두고, 채동근은 무안향 경무서에 잡아 가두어 우즈기의 빚을 처리하라고 하였다. 우즈기도 흥덕군에 와서 순검 1인을 청구하여 파견하여 함께 가게 하였으며 흥덕군으로 되돌아올 때는 전라남도 관찰부의 순검 1인을 청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화에 따라 순검을 파견하여 채

63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近代史資料集成』(八卷), 「韓國木浦居留地內ニ勞働スル韓人ニ對スル居留地警察權關係雜纂」(自明治三十六年十一月至明治三十七年四月), 「(14)手續書[木浦罷業事件 收拾을 위한 日本人居留民委員의 節次 申請書]」, 明治 36년 12월 2일.

내삼 집에 함께 갔는데 이를 갚을 수 없다고 저항하자 담보로 전답문권을 가져갔던 것이다.

이후 무안감리는 이교를 보내 채동근 부자 소유의 전답 추수를 조사하고 수확하여 우즈기에게 보내라고 홍덕군에 훈령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전답문기를 홍덕군 양안(量案)과 대조하여 분명히 한 후 민론(民論)에 따라 시가에 준해 모두 헐값으로라도 팔아 우즈기에게 갚게 한 후 그 사정을 보고할 뜻으로 법무 훈령과 일본 영사의 조회를 베풀어서 보내고 이에 따라 시행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우즈기의 차인(差人; 심부름꾼)이 먼저 도조(賭租)를 정하고 걷으려고 하자 채동근·채동호 형제가 작당하여 차인을 구타하고 쫓아내서 징수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우즈기는 채씨 집안에서 차인과 화해하고자 하였고 연말에 빚을 탕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905년 3월 9일 밤 채내삼과 채동근·채동호의 삼부자가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고함을 지르며 홍덕군 동현에 돌입하여 관아에 있던 사람들을 구타하고 인장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였다. 채씨 삼부자는 군수를 잡아 의관을 부수고 앞뒤로 끌며 이방청으로 쫓아버렸다. 채내삼은 “관이 있으나 일본인의 기세를 막아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사사로이 협잡을 하여 내가 오랫동안 본향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 또 작년 초 순검과 일본인이 와서 도조를 걷을 때 3살짜리 어린아이가 홍역에 걸렸다가 바람을 쏘여 죽게 되었는데, 일본인의 방자한 행동을 막지도 못하였다. 둘째 아들 동호가 도리어 답권(答券)을 주어 이미 관자와 섞여 들어가니 이렇게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일반이다”라고 소리치며 칼을 빼어들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때 관속들이 일제히 합세하여 대항하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치고 목포와 광주 순검, 홍덕군 관리

가 채내삼의 집에 돌입하여 그를 체포하였다.⁶⁴

이영호는 이를 ‘1904년 채내삼의 흉덕 저항’으로 규정하면서 채내삼이 흉덕 사포 도여각주인으로 있던 중 일본 상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몰락하고 목포항에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른 후 동리 사람들을 동원하여 관가를 습격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을 일본 상인의 제국주의 경제적 침략 과정에서 중간상인의 처지에 있던 채내삼이 채무 문제로 몰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⁶⁵ 필자도 이 견해에 공감하나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면 일본 상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현실, 토지 소유관계를 둘러싼 지역 사정과 이해관계까지 포함한 다양한 측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내삼의 경우 1898년 12월 제1차 영학당 운동 과정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화삼은 “심지어 각처에 뇌물을 바치는 일은 사포 채내삼의 사채(私債) 근 1만 냥으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 허다한 뇌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히 알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⁶⁶ 즉, 흉덕의 주요 포구인 사포를 근거지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채내삼은 1만 냥 정도의 사채를 운용할 정도로 농촌 고리대를 하는 재력가로서 영학당 관련자로 보기 어렵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화삼도 다섯 가지 민폐 중 하나로 거론한 지방 공무원 채용 시 뇌물 수수에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채내삼을 판단한 것이다.

채내삼은 일찍이 동학농민군이나 영학당, 조세 저항운동과 관련이 있

64 『報告書』第十三號(內部), 全羅南道 觀察使 署理 光州郡守 權重殷→議政府贊政 內部大臣, 光武 9년 3월 26일, 奎. 26178.

65 이영호, 「대한제국 시기 영학당 운동의 성격」,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2004, 369~370쪽.

66 『興德郡亂民取招事案』『重犯供招』, 光武 3년 6월 22일.

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이해관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홍덕군 당국과 갈등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군청 난입과 인장 탈취 사건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그는 1895년 1월 30일 홍덕군 이동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먼 상현(上玄)의 노병일이 채내삼이 ‘조가(租價)를 횡침(橫侵)한 일’로 호소문을 올린 일이 있었다. 이에 군수는 “사채(私債)는 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전에 단단히 타이른 바 있는데, 어찌 이같이 침탈하는가? 채민(蔡民; 채내삼)을 엄히 조사차 데리고 와서 대질할 것이다”⁶⁷라는 처결을 내렸다.

같은 해 2월 19일에는 상현 사는 조종은이 장계를 올려 “채내삼이 마름(畝音)을 칭하고 논 임자(畓主)의 표(標)가 없는 논을 빼앗아 경작하였습니다”라며 호소하였다. 이에 군수는 “남묘(南畝; 남쪽 밭, 즉 농사에 적합하고 풍요로운 밭을 비유하는 말)에서 이같이 가난한 백성의 경작권을 빼앗으면 어디에 기댈 것이며 또한 임자 있는 논이라는 믿을 만한 자취가 있음에도 어찌 이같이 남에게 미루는가? 가서 채내삼에게 알려주고 마음놓고 밭을 들여놓을 일이다”⁶⁸라고 처결하였다. 그러나 군수의 처분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2월 21일 조종은은 군수에게 “채내삼이 관의 처분을 준수하지 않고 시작(時作; 소작)을 빼앗았습니다”라는 장계를 다시 올렸다. 이에 군수는 “오로지 비기(肥己)를 일삼고 감히 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같이 패악한 습성은 결단코 예사롭게 조치할 수 없는 일이므로 마땅히 잡아들여 엄히 징계할 것이다”⁶⁹

67 『民狀置簿冊』, 乙未 정월 30일. 奎古. 5125-63.

68 『民狀置簿冊』, 乙未 2월 19일.

69 『民狀置簿冊』, 乙未 2월 21일.

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지 그로부터 20여 일 후인 3월 11일 조종은은 세 번째 장계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채내삼과 고씨 백성[高民]이 농사에 임해서 작권(作權)을 빼앗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군수는 전에 처분하였는데 어찌 다시 호소를 하나면서 만약 다시 고씨와 채씨가 완강히 저항하고 거절하면 마땅히 엄히 징벌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⁷⁰ 즉, 채내삼은 홍덕군 이동면 상현 지역에서 여러 차례 사채를 통한 주민 침탈은 물론 장부상 주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남의 논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주민들의 소작권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지방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인사였던 것이다.

채내삼은 우츠기와 이경호가 11개월 동안 자신을 목포에 가두어 두고 모든 재산을 탕진토록 하였기 때문에 ‘자질(子姪)과 고노(雇奴) 및 시작(時作) 등 수십 명을 모아 작변’하였으며 인신은 동호에게 맡겨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보아 그는 고용인을 둔 대상인이자 농토를 소유하고 소작인에게 경작권을 제공하던 지주의 범주에 속하는 계급으로 판단된다. ‘고노’ ‘시작’ 등은 채내삼에게 경제적으로 예측된 동민들로 이들이 인장을 탈취하여 채내삼에게 전달한 것이다. 채동근과 채동호는 연로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함께 일을 도모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음력 2월 11일 법부의 훈령에 따라 고창군수 이기석을 사관(査官)으로 하여 조사토록 하였다. 홍덕군 향장 진상규는 이동면 계동에 사는 채내삼 삼부자가 관가에 억울함을 보복한다고 청하고 부근 동민 수십 명을 인솔하고 관방과 관아 안채에 난입하여 창호를 부수고 소란을 피

70 『民狀置簿冊』, 乙未 3월 11일.

우면서 칼을 빼어 들고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아전·관노와 사령 및 읍민들에게 각별히 체포를 지시하자 모인 사람들이 도주하였고 작두(作頭)인 채내삼만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요로 군수가 인신을 탈취당한 일을 정운성 등 흥덕군 유림이 내부에 전보하기도 하였는데 향촌 양반 지배조직 개입의 일단을 알 수 있다.⁷¹ 또한 목포와 전주에서 순검과 진위대 병사가 진압을 위해 이 지역까지 출동하기도 하였다. 목포 순검이 흥덕에 파견된 이유는 이곳이 1897년 개항한 이후 경무관과 순검이 상주하고 있었고, 일본 상인 우즈기 키소우의 민원과 관련한 무안향 일본 영사의 조치가 있었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채내삼을 조사하니, “저는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부근 동민을 부추겨 스스로 작두가 되었습니다”라면서 인장은 잡히자마자 돌려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장자 동근과 차자 동호는 차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희 세 부자는 모두 본 군 이동면에 살면서 본 면의 색장(色掌) 소임을 하면서 면내의 공세(公稅)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에서 출장을 나갈 때 이미 세 명의 보증인을 세워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증인이 없이 사람을 골라 뽑아 빼돌린 것이 기백 양이 되어 민간에게 나누어 징수하였습니다. 세납으로 징수한 것 중에서 먼저 채워 수봉(充捧)하였기 때문에 민정(民情)이 매우 분하고 답답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자들이 올 2

71 “興德民擾:興德郡 鄉儒 等이 昨日 內部에 電報호되 本郡에 民擾가 起호야 郡守의 印章을 見失하얏스니 定査官 査得호라 하얏더라.”(『皇城新聞』, 光武 9년 3월 14일); “印則自在:興德郡儒生 等 鄭雲成이 內部에 電報호되 本郡民擾에 印章見失云은 亂民 蔡來三이 以私嫌으로 作黨호야 凌辱郡守호기로 卽地捉囚호고 印章은 勿失이라 하얏더라.”(『皇城新聞』, 光武 9년 3월 24일).

월 초 4일 밤에 부근 동민을 이끌고 내외 동헌에 난입하여 관원을 쫓아내고 작청(作廳)에서 중민들이 인장을 탈취하였습니다.”

“저희 세 부자는 올 2월 초 4일 밤에 기노(起鬧)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면의 색장 소임은 이전부터 보증을 골라 뽑아 각향의 공전을 징수하였는데 설령 빼돌린 일이 있더라도 면내의 일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보증을 뽑지 않아 공전을 빼돌린 것이 수백 냥에 이르니 이를 면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결세(結稅)로 거두어들이던 중 먼저 집계하니 민원이 낭자하였습니다.”⁷²

갑오개혁 이후 1894년 9월 지세 수취를 위해 ‘결호전봉납장정(結戶錢捧納章程)’을 마련하고 담당자로 향회의 향원을 선정하고 군수와 이서층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향회에 지세 수취의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그러나 1895년 9월 군수가 지세 수취권을 다시 장악하고 세무주사를 두어 수취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각군세무장정(各郡稅務章程)’이 마련되면서 지세 수취권은 이후 각 군에 다시 환원되었다.⁷³ 홍덕군의 경우 그간 색장(色掌)을 별도로 두어 공전 수납의 임무를 대리케 하여 면 단위로 납세하는 방식으로 일차적인 책임을 그에게 물었고, 세 명의 보증인을 두어 상납에 대한 연대책임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채내삼삼부자는 모두 홍덕군 이동면의 색장 직임을 맡아 면의 조세 징수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1904년부터 수세 방식을 달리하여 보증인 관행을 없애고 수령이 직접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관에서 수백 냥

72 『報告書』第十三號(內部), 光武 9년 3월 26일.

73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99~111쪽.

의 공전을 횡령하였고 군수가 그 부족분을 이동면에 다시 배정하여 분할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주민들의 납세 부담도 더욱 가중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향임이자 색장의 임무를 맡아 납세를 추궁받던 채씨 삼부자가 군청에 난입하자 이 기회를 틈타 과중한 결세 부담으로 고통에 빠져있던 주민들의 원한이 폭발하여 적극 동참함으로써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전라남도 관찰사 서리 광주군수 권중은은 내부대신에게 일본 상인 우즈기에게 진 빚은 처음부터 홍덕군수가 자단(自斷)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채내삼 부자의 체포는 법부 훈령과 일본 영사의 조회에 의거한 무안향 감리의 여러 차례 훈령에 따른 것이며 이들이 또다시 변란을 일으킬지 모르기에 담양군과 무장군에 옮겨 가두어 두고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건의하였다.⁷⁴ 권중은은 ‘기노 작두(起鬧作頭) 채내삼(蔡乃三)’ 등으로 규정하여 주모자인 세 부자만 처벌하고 동참한 홍덕군 주민들의 군청 난입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내부대신 임시서리 학부대신 이재극은 4월 10일 전라남도 관찰부에 조사토록 전보했고 고창군수 이기석을 조사관으로 정해 사건 전말을 보고했다. 홍덕군 난민 채내삼·채동근·채동호 부자를 읍에 따라 처벌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⁷⁵ 법부대신은 4월 13일 전라남도 재판소에 ‘홍덕군 민요’를 엄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재판 처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훈령하였다.⁷⁶ 요컨대 이 사건은 신흥 부르주아로 성장

74 『報告書』第十三號(內部), 光武 9년 3월 26일.

75 法部 刑事局, 『照牒』第十號, 內部大臣 臨時署理 學部大臣 李載克→法部大臣 李址鎔, 光武 9년 4월 10일. 奎. 17277-10.

76 法部 法務局, 『訓指起案』第四號, 法部大臣 陸軍副將 勳一等 李→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光武 9년 4월 13일. 奎. 17277-5; “飭辦擾魁: 昨日 法部에서 內部照會를 因하야 全南

과정에서 파산한 개인의 욕망과 복수,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질고라는 양면적 성격이 결합하여 민란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채내삼 부자는 러일전쟁 이후인 1905년 4월 29일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적용받은 사례였다. 전라남도 재판소는 7월 질품서 제 16호에서, “흥덕군에서 민요(民擾)를 일으킨 죄인 채내삼은 『형법대전』 제280조 ‘고소한다고 말하고 군중을 모아 관할 관아를 압박한 경우는 징역 15년이다’⁷⁷라는 을문과, 제5편 「율례(律例)」 아래 제12장 제2절 ‘관아의 도장 혹은 문서 및 각 문의 열쇠를 훔친 경우의 을문과, 『형법대전』 제129조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는 그 무거운 쪽을 따라서 처단하고,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죄에 따라 처단함’이라는 을문에 따라야 하지만, 잠시 도장을 빼앗은 것은 훔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니, 본 을문에서 참작하여 1등급을 감해서 징역 종신에 처하도록 하였다. 채동호는 그의 아버지가 주창하자 수종하였으니 마땅히 따르자의 을문에 따라야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을문에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므로, 『형법대전』 제280조 ‘고소한다고 말하고 군중을 모아 관할 관아를 압박한 경우는 징역 15년’이라는 을문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한편 채동근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애당초 다투어 간하였고, 추후 따라서 갔으나 악행을 도운 증거가 없으니, 정황을 생각하고 법을

觀察府에 訓令하되 興德郡 民擾 狀頭 蔡乃三 蔡東根 蔡東浩 等이 打破官舍하고 毆曳官長하야 裂破衣冠하고 拔劔擬刺하며 奪取印章호 罪를 依律處辦하라 하얏더라.”(『皇城新聞』, 光武 9년 4월 18일).

77 “告訴한다 稱하고 聚衆하야 本管官司를 挾制호 者는 懲役 十五年이며, 他官司에는 一等을 減하고, 因하야 人을 傷하거나 官物을 毀破호 者는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호 者는 絞에 處호리라. 但 官吏의 貪虐호를 因하야 起鬧호 者는 本條에 依하야 各히 一等을 減호리라.” 『刑法大全』 第4編 律例上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第1節 訴訟違犯律 第280條 「聚衆官司挾制」.

헤아리면 참고하여 용서할 점이 있으니 『형법대전』 제678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경우는 태 40이고, 사리가 중한 경우는 태 80에 처함’이라는 율문에 의하여 태 80에 처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여러 사람은 율문을 적용하여 처벌할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석방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질품한다”라고 법부에 보고하였다.

법부도 전라남도 재판소의 판정이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들을 각각 적용한 율문에 따라 처리하되, 채내삼은 징역 종신에 처하고 채동호는 징역 15년으로 모두 형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서 올리고, 채동근은 태형을 시행하고 석방하라. 삼부자 외에 다른 사람은 ‘죄를 헤아려 형벌을 정할 만한 증거와 근거가 없으므로’ 모두 훈계 방면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⁷⁸ 법부는 이 사건을 ‘흥덕군 민요’로 규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조직적인 지세 납부 저항운동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채씨 삼부자에게만 죄를 물으면서 파장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축소 종결하려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재판소 질품서에서 채내삼에 대한 율문을 헤아리는 글 중 ‘1등급을 감하여 태 100, 징역 종신’이라고 하였는데, 새로 반포된 『형법대전』에 원래 태형을 덧붙이는 규정이 없고 율령을 끌어와 적용하되 글자를 따서 쓰는 것만 하고 글자를 더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정해진 법에 게재되어 있거늘 율문의 문자를 헤아리는 데 얼마나 신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 매우 소홀했으니, 마땅히 경고해야 하겠지만 우선 보류할 것이고 이후에는 곱절로 더욱 주의하여 혹시라도

78 法部 司理局, 『起案』, 「興德郡에서 民擾를 일으킨 죄인 蔡乃三 등의 처리에 대해 지시하는 指令 제20호의 起案」, 法部大臣 李根澤→全羅南道裁判所 判事 朱錫冕, 光武 9년 7월 24일.

잘못을 저질러 질책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첨부하였다. 무릇 율령을 끝
어와 적용할 때 편·장·절을 모두 쓸 필요 없이 다만 조항만 쓰라는 일이
었다. 그해 9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위의 범부 사리국
기안을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 내용으로 판결하였다.⁷⁹ 1905년 황해도 곡
산군에서 일본인 철도 역부를 습격하여 살해한 사건에 참여한 최자
범·이경원 등도 채내삼이 적용받은 『형법대전』 제280조의 주범과 종범
에 관한 율로 처벌되었다.⁸⁰ 이후 채내삼은 “나이 70세 이상 석방, 채내
삼 ‘민요죄(民擾罪)’ 징역 종신 나이 75세”⁸¹로 1906년 3월에, 채동호는
“1907년 3월 ‘민요수종죄(民擾隨從罪)’ 감일등 10년”⁸²으로 감형된 이후 9
월에 각기 석방되었다.⁸³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
은 이전 법과는 달리 근대 일본 법률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것이지만,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민요죄’ ‘민요수종죄’ 등 근거 법률 없이 처벌되
는 경우도 흔재하였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동학농민혁명 이후 10여 년에 걸친 고창·홍덕·무장 지역 변
혁운동의 연속화 과정과 그 내용을 살폈다. 고창지역은 곡창지대로 조선

79 『司法稟報』, 「報告書 第二十三號」, 全羅南道 裁判所 判事 朱錫冕→法部大臣 陸軍 副將 勳一等 李根澤, 光武 9년 9월 2일.

80 『司法稟報』, 「稟書(第十二號)」, 光武 9년 9월 6일.

81 『官報』, 光武 10년 6월 27일.

82 『官報』, 光武 11년 3월 19일.

83 『官報』, 光武 11년 9월 18일.

후기 이래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관계가 가장 첨예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시기인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1895년 음 2월 9일의 1차 심문에서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 전사인 1894년 1월 고부농민항쟁 시에는 진황늑징세(陳荒勒徵稅)를 환추(還推)하고 관가에서 보(漕)를 쌓은 것을 헐어 부수었다고 주장하였다.⁸⁴ 이틀 후 2차 심문에서는 이 항쟁은 “전라 한 도의 탐학을 제거하고 내직으로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행위를 하는 권신을 모조리 쫓아내면 팔도가 자연 일체로 될 터”⁸⁵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3월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에서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한 폐정개혁안 중 이 지역과 관계가 있는 경제 현안은, “전운소(轉運所)를 혁파할 것, 국결(國結)을 늘리지 말 것, 보부상(裸負商)의 폐단을 금지할 것, 도내의 환전(還錢)은 전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니 다시 민간에서 징수하지 말 것,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浦口)에서 잠상(潛商)이 쌀을 사는 것을 금지할 것, 동포전(洞布錢)은 호(戶)마다 봄과 가을에 2냥으로 정할 것,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낼 것,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관작(官爵)을 팔며 국권을 농단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 수령이 된 자가 해당 경내에서 장사를 치르거나 전답을 사지 못하게 할 것, 전세(田稅)는 예전대로 할 것,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줄일 것, 포구어염세(浦口魚鹽稅)를 혁파할 것, 보세(漕稅)와 궁답(宮畓)은 시행하지 말 것”⁸⁶ 등이었다.

84 『全琿準供招』, 「東徒罪人 全琿準 初招 問目」, 개국 504년 2월 9일.

85 『全琿準供招』, 「2차 심문과 진술」, 개국 504년 2월 11일.

86 『刑事裁判原本』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37號 判決宣告書原本 全琿準」, 개국 504년 3월 29일.

근대 이행기 고창지역의 농민운동은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국망 직전에 이르기까지 단속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난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결과는 지방관의 탐학 외에도 궁방의 토지 소유, 정부의 토지세 징수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기본적인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동학농민군 잔여 세력인 '동비 여당'이 이 지역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에 제1, 2차 영학당 운동으로 부활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1, 2차 영학당 운동은 모두 만민공동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지역 출신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주장하였던 경제적 지향은 1898년 제1차 영학당 운동 시 가혹한 세금 징수와 관리 임용 시의 뇌물, 방곡을 방자한 군수의 매점매석을 지적하고 토지경작권의 투명성 확보를 제기한 것이다. 1899년 제2차 영학당 운동에서는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궁방인 명례궁의 토지 수탈에 대한 저항으로 다시 점화되었다. 고착화된 지방관과 궁방의 수탈은 저항운동의 원인이었지만 농민들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군대를 동원한 가혹한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파는 세기를 달리하여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앞선 여러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인 모순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명례궁에 대한 경제적 예측관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1905년 결세 저항운동으로 표출되었다. 결세(結稅)는 농토의 면적 단위로 거두는 토지세(Land Tax)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결세 외에 더 부과되는 결세에 대한 부담이 동민들이 관아 점거 투쟁에 참여한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 원래 소작인은 토지 소유주에게 도조(賭租)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 상례였고 규정상 결세 납부의 의무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에

게 전가되어 관에서 첩징(疊徵)하고 있었다. 결국 이는 채씨 일가와 같은 지역 유력층은 물론 농민들에게도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채내삼 부자는 조세 징수에 대한 책임으로, 지역민들은 지방관의 공전 횡령과 공동납세 및 과중한 결세 부담으로 인한 묵은 민원이 결합하여 군 단위 납부 저항 투쟁 차원으로 발전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러일전쟁 이후 준식민지 상황에서 지방행정력 약화라는 대한제국 정부의 위기 및 명례궁을 비롯한 궁방전의 수세권에 대한 저항 등 이 시기 일련의 항세 항조운동도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경남 함안군 지곡면 보산리 정취마을 허원식 종가 소장 문서(소장자 허태홍).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近代史資料集成』(八卷), 「韓國木浦居留地内ニ勞働スル韓人ニ對スル居留地警察權關係雜纂」(自明治三十六年十一月至明治三十七年四月).

金允植, 『續陰晴史』.

法部 檢事局, 『起案』.

法部 法務局, 『訓指起案』.

法部 司理局, 『起案』.

法部 刑事局, 『照牒』第十號.

日本陸軍參謀本部編, 「興德縣」, 『朝鮮地誌略』(卷八); 全羅道之部, 明治 21년 11월.

崔永年, 『東徒問辨』, 「古阜起擾辨」.

『各司謄錄』.

『啓草存案』.

『高宗實錄』.

『官報』.

『宮内府去來文牒』.

『독립신문』.

『務安報牒』.

『民狀置簿冊』.

『報告書』第十三號(內部), 全羅南道 觀察使 署理 光州郡守 權重殷→議政府贊政 內部大臣, 광무 9년 3월 26일.

『司法稟報』.

『兩湖右先鋒日記』.

『永川按覈啓草』.

『沃溝港報牒』.

『全羅南道高敞郡就捉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竝錄成冊』, 奎. 26136.

『全羅南道高敞郡被就亂黨口招同類姓名居住竝錄成冊』, 奎. 26137.

『節目』(明禮宮), 庚寅 二月 日.

『駐韓日本公使館記錄』.

『牒報』.

『刑法大全』.

『刑事裁判原本』『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15號 判決宣告書原本 洪樂寬」, 개국 504년 3월.

『皇城新聞』.

『興德郡亂民取招事案』『重犯供招』, 광무 3년 6월 22일.

단행본

민회수, 『근대 한국의 감리서 연구』, 소명출판, 2024.

배항섭·김양식·조재곤·이병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역사공간, 2011.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2004.

연구논문

姜吉遠, 「戊戌·己亥(1898~1899) 古阜等諸邑의 農民蜂起」, 『韓國史研究』 85, 1994.

金度亨, 「大韓帝國의 改革事業과 農民層動向」, 『韓國史研究』 41, 1983.

朴贊勝, 「活貧黨의 활동과 그 성격」, 『韓國學報』 35, 1984.

손태도, 「동학농민혁명과 광대집단의 활동 : 흥낙관·흥계관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3, 2017.

吳世昌, 「英學黨研究」, 『史學論叢』,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88.

왕현중,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1991.

정재철, 「동학농민전쟁 이후 홍덕현의 지역사정과 수습책」, 『史叢』 55, 2002.

鄭昌烈, 「韓末 變革運動의 政治·經濟의 性格」, 『韓國民族主義論』 I, 創作과 批評社, 1982.

『갑오일기(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신진희

경국대학교 강사

1. 머리말
 2. 『갑오일기』의 저자를 찾아서
 3.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4.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
 5. 맺음말
-

한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학회, 2017)이 발간되었다. 경상도 북부지역의 동학농민군과 김산·지례(이이화), 경상북도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사의 전개과정(채길순), ‘동학농민혁명기’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조규태), 1894년 경상 감사 조병호의 동학농민군 진압 기록과 김천(신영우), 김산 소모영의 설치와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이병규), 김천과 〈내수도문〉, 그리고 동학의 배려적 양성주의(안외순), 동학의 코드와 김천 지역 현대문학 자산(지현배), 김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문화 콘텐츠 방안(채길순), 인간 유한성 극복의 단초로서의 동학사상(김영철), 수운과 체용적 사유의 모험(안호영) 등 10개 주제로 김천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조망하였다.²

이 연구들 가운데 조규태의 연구는 『세장년록(世藏年錄)』과 『동요일기(東擾日記)』, 『별계(別啓)』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김산·지례·개령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 주목된다.³

『갑오일기(甲午日記)』는 2023년 『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호에 영인본이 실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았다. 내용에서 저자 주변 인물에 대한 단서들만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밝히는 것도 적지 않은 일 중 하나일 듯하다. 그 내용은 김산과 지례 동학농민군 상황을 알 수 있고, 지례에서 피난생활을 했던 이들의 상황도

국학연구원, 1991; 신영우, 「사례연구를 통해 본 영남지역의 동학농민전쟁 - 김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간과경험』 2,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0;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2 동학학회,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007)』, 모시는 사람들, 2017.

3 조규태,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학보』 41, 동학학회, 2016; 조규태, 「『동학농민혁명기』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007)』, 모시는 사람들, 2017.

파악할 수 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는 지례에서 거주하고 있던 인물로, 1894년 4월, 6월은 간소하게 기록하고 7월부터 동학농민군의 상황과 피난 인물 등을 서술하는 등 1895년 3월까지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썼다. 이후 단발령이 내려지고 노응규가 의병을 일으킨 이야기가 적혀 있고, 1896년 2월 김산에서 이기찬이 의병을 일으킨 사실을 적고 있다.

『갑오일기(甲午日記)』는 기존에 인용되었던 자료들과 달리 지례현의 동학농민군 상황을 이전의 자료들보다 훨씬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바깥 상황을 파악하던 저자의 상황으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늦게 적게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던 다른 자료를 교차검토 하면서 함께 보아야 한다.

『세장년록(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009)은 김산군 조마남면에 거주하던 화순최씨의 가승일기인데, 그 가운데 1894년 당시 김산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산지역 인물들이 동학농민군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입도를 강요당하는 이야기 등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성산여씨에게 일어났던 일은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다. 성산여씨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하나 더 있다. 바로 「갑오이후일기(甲午以後日記)」이다.

「갑오이후일기(甲午以後日記)」는 여중룡(呂中龍, 1856~1909)이 1894년과 1895년에 쓴 일기로 여영소 등 일가(一家)가 지례로 피신한 이후 여중룡이 김산과 지례를 왔다갔다 하면서 곡식을 대주거나 가산을 관리하는 등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2)에 『갑오병신일기(甲午丙申日記)』로 국역과 영인본이 실려 있다.

김산소모사로 활동한 조시영(曹始永, 1843~1912)이 남긴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2, 2015)은 1894년 11월 21일부터 1895년 1월 22일까지 약 2개월의 관변 측 기록도 있다. 상주소모영의 소모사였던 정의묵(鄭宜默)이 쓴 『(상주)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9, 2011)에서는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상황이 일부만 드러났지만,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은 조시영이 김산소모사로 활약하면서 교환했던 것이 적혀 있어 김산을 중심으로 한 김천지역 동학농민군 관련 관변의 대응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별계(別啓)』(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0, 2018)는 1894년 11월 4일부터 1895년 5월 21일까지 경상 감영에서 정부에 보낸 별계와 별보(別報)를 모은 164쪽의 필사본이다.

이외에도 김산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더 있다. 한말 의병대장이었던 이기찬(李起燦, 1853~1908)의 『지산유고(止山遺稿)』속 「제문」과 「가장(家狀)」에 관련 내용이 조금씩 적혀 있기도 하다.⁴ 『갑오일기(甲午日記)』 뒷 부분인 의병 부분과 『지산유고(止山遺稿)』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김산의진이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홍심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보지는 않는다.

또 참고해야 하는 자료는 『동요일기(東擾日記)』이다. 『동요일기(東擾日記)』(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3, 2008)는 1894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주지역에서 발생한 농민운동의 양상을 도한기(都漢基, 1836~1902)가 적은 일기이다. 8월 20일부터 지례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4 『국역 지산유고(止山遺稿)』(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자료총서 10),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22.

위의 자료를 활용하고 참고하여 쓰는 이 글은 먼저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추적하고, 다음으로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핀다. 여기서는 『갑오일기(甲午日記)』 등에서 밝혀지는 지례 출신 동학농민군 혹은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도 확인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망(眺望)한다. 마지막으로 2차 봉기 이후 일전(一戰)을 준비했던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김산·지례·개령 속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아닌, 지례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를 찾아서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언급되는 지명들은 방산(芳山), 임계(林溪), 임천(林泉), 안간(安間), 복호동(伏虎洞), 무릉(武陵), 마산(馬山) 등이다. 방산은 지례현 하북면(下北面) 방산리,⁵ 임계는 지례현 상북면(上北面) 임계리,⁶ 임천은 지례현 상북면 임천리,⁷ 안간은 지례현 하서면(下西面) 안간리,⁸ 복호는 지례현 상북면 복호리,⁹ 무릉은 지례현 상북면 무릉

5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방산리는 하북면 15개 마을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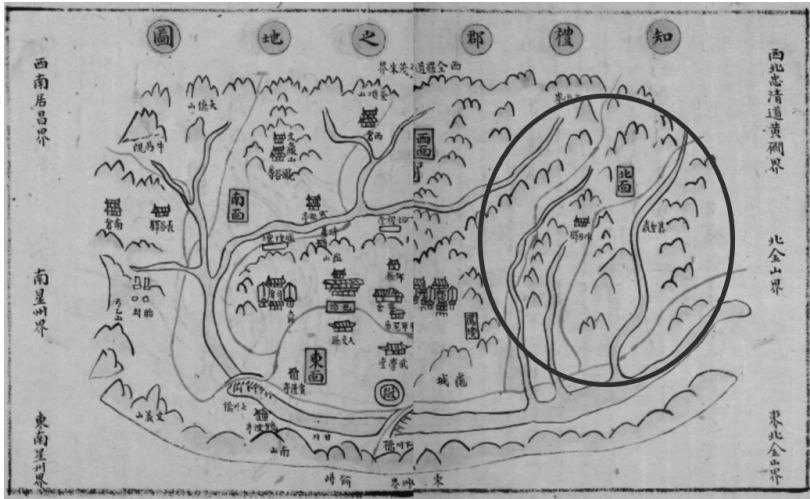
6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임계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

7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임천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

8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안간리는 하서면 21개 마을 중 하나이다.

9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복호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리,¹⁰ 마산은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¹¹ 등으로 확인된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가 살았던 곳이 바로 지례현이었던 것이다. 또 상북면, 하북면에 집중된 마을 이름으로 유추해 볼 때 김산과 접경한 북면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知禮郡, 『知禮郡邑誌』, 1899년(光武3)

이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1899년 지례군에서 제작한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의 책머리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려 있는 ‘지례군지도(知禮郡之地圖)’이다.¹² 지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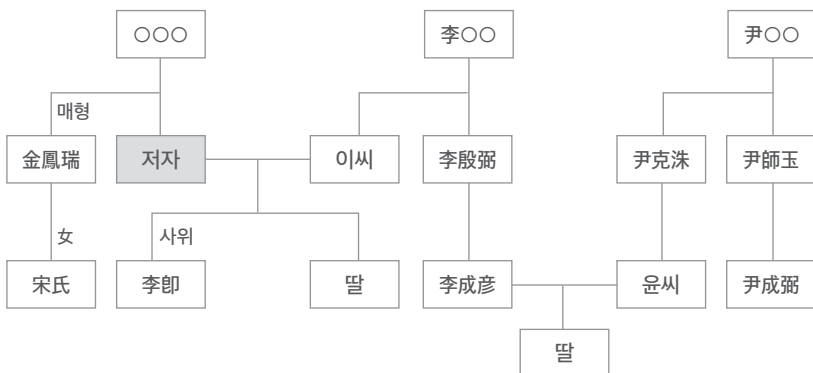
10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무릉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

11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7쪽. 마산리는 상북면 12개 마을 중 하나이다.

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도에 표시된 부분을 북쪽으로 둔다면 오늘날 지도처럼 이해할 수 있다. 표시된 곳이 김산과 경계가 접한 곳이다. 이곳이 바로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가 거주했던 곳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일기 속에 기록하지 않았으나,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었다. 7월 14일 상지(上枝)에 사는 처남(妻舅) 이은필(李殷弼)이 며느리와 손녀, 가마꾼과 노비 등을 데리고 왔다.¹³ 처조카의 이름은 이성언(李成彦)이다.¹⁴ 이은필은 윤사옥(尹師玉)과 친한데, 윤사옥의 동생 윤극수(尹克洙)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사람이다.¹⁵ 또 평성(坪城)에 사는 매형 김봉서(金鳳瑞)가 딸의 혼사를 공성(公城)의 송씨(宋氏) 집안과 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 있다.¹⁶ 이를 가계도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생각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많았다.

1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7월 14일자.

1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17일자.

1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7월 16일자.

1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7일자.

먼저 처남인 이은필은 상지(上枝)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고, 동학농민군을 피해 아들 이성언(李成彦)과 며느리 윤씨, 손녀딸 등을 대동하고 지례로 피신한 사람이다. 상지(上枝)는 칠곡군 상지면(上枝面)을 지칭한다.¹⁷ 상지면에는 신동(新洞)이 있는데 광주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경주시립도서관 족보자료관과 인제대학교 디지털족보도서관에서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를 확인할 수 있었다.

<p>女趙鏞昊 咸安人 父相奎</p> <p>女金聖模 義城人 父大燁</p>	<p>子相杰 字殷弼號伊溪 一八五〇年哲宗庚戌四月五日生乙丑八月五日卒壽七十六遺稿二卷藏于家墓枝川面松亭池洞巽坐</p> <p>配義城金氏父夢魯 己酉二月十一日生 癸丑二月一日卒墓坐</p>
<p>女徐錫禧 達城人</p> <p>女都佰休 星州人 父相薰</p>	<p>子大榮 字聲彦一八六九年高宗己巳生卒墓配漆原尹氏父志學配碧珍李氏</p> <p>子淳榮 字希老一八八四年高宗甲申正月十四日生卒 配昌寧成氏父佑永 己丑正月三日生</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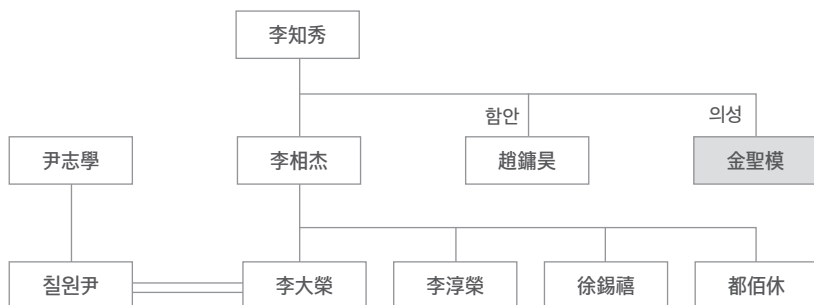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768쪽.

1800년대에 태어나 윤씨(尹氏)와 혼인한 이름을 모두 확인하였다. 윤씨의 아버지 이름이 윤극수(尹克洙)인지 확인하였으나 번번이 무관한 인물들이 나왔다. 광주이씨 20세로 자(字)가 성언(聲彦)인李大榮, 1869~?)이 칠원윤씨(漆原尹氏) 윤지학(尹志學)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적힌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역시 일기 속 윤극수(尹克洙)라는 이름과는

17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595쪽.

다른 윤지학(尹志學)으로 적혀 있었다. 아마 극수(克洙)는 그의 자(字)일 가능성이 큰 듯하다.

이대영의 아버지는 광주이씨 19세로 자(字)가 은필(殷弼)이고 호(號)가 이계(伊溪)인 이상걸(李相杰, 1850~1925)이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기록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게 된 것이다. 이상걸에게는 아들이 둘, 딸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대영(李大榮)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순영(李淳榮)이었다. 이대영은 1869년생으로 1894년 당시 25세였고, 윤씨부인과 혼인하여 딸이 있었다. 11월에는 아들도 낳은 것으로 확인된다.¹⁸ 둘째 아들인 이순영은 1884년생으로 1894년 당시 10세였다. 딸 중 첫째 딸이 달성서씨 서석희(徐錫禧)와 혼인하고, 둘째 딸이 성주도씨 도백휴(都佰休)와 혼인하였다.¹⁹ 이를 가계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768쪽 참조

이은필 아니 이상걸의 매제(妹弟)는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함안조씨 조용호(趙鏞昊)이고, 조상규(趙相奎)의 아들이다. 다른 한 사람은 의성

1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9일자.

19 廣州李氏漆谷派世譜編纂委員會,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1986, 768쪽.

김씨 김성모(金聖模)로, 김대엽(金大燮)의 아들이다. 조용호와 김성모 중 어느 사람이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인지 찾아야 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는 이은필을 “형(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상걸의 손아래 누이와 혼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저자는 아들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딸과 관련된 단서들이 있었다. 고정(古亭)에 거주하고 있는 사위 이군(李君)을 명기하고 있다.²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즉(李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위의 이름 혹은 자(字)나 호(號)가 아닐까 추정된다. 7월 18일 사돈이 와서 딸의 얼굴을 보고 갔다고 하면서 이즉(李卽) 내외를 부탁하고 갔다고 적혀 있는 점으로 보아 이즉(李卽)이 고정의 사위 이군(李君)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또 저자에게는 평성(坪城)에 거주하는 김봉서(金鳳瑞)라는 매형이 있었다.²¹ 다시 함안조씨 족보와 의성김씨 족보에서 김봉서라는 매형이 있고, 이씨를 사위로 둔 인물을 찾아야 했다. 단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북호동에 살고 있는 종제(從弟), 종제(從弟) 명문(鳴聞), 재종제(再從弟) 인술(仁述)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함안조씨는 규(奎)-용(鏞) 자로 향렬자가 이어지고, 의성김씨는 대동보에서 락(洛)-모(模) 자로 향렬자가 이어진다. 따라서 김대엽(金大燮)의 족보명은 다를 가능성이 크지만, 김성모(金聖模)의 이름이 확인된다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족보를 뒤지면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족보를 뒤졌는데, 관련된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을 찾아서 함안조씨와 의성김씨 중 어느 인물

2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7월 13일자.

2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6일자, 10월 17일자.

인지 파악할 수 있는 주민을 만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지례현 상북면 복호동은 현재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의 종제(從弟)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가서 주민을 만나 보니, 우선 함안조씨는 이 일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의성김씨는 작내리에 많이 살고 있다고 했다. 즉, 일대에 함안조씨가 세거하지 않고 의성김씨가 세거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를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조사를 간 작내리에서 우연히 그곳 의성김씨 종손을 만나,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義城金氏觀瀾齋公派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란재(觀瀾齋)는 김여권(金汝權, 1557~1640)을 일컫는다. 관란재 김여권은 임진왜란 때 지례향교에 불이 나자, 뛰어들어 대성전에 모셔져 있던 오성(五聖)의 위패(位牌)와 동방 제현(諸賢)의 위판을 가지고 나온 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한다.²² 『갑오일기(甲午日記)』에는 10월 15일 관란 선조의 묘사가 있는 날이라고 적혀 있다. 즉, 『갑오일기(甲午日記)』의 저자가 김성모임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義城金氏觀瀾齋公派譜)』에서는 엽(燁) - 모(模)자로 항렬자가 이어졌다. 하지만 김대엽(金大燁)·김성모(金聖模) 부자의 이름은 물론 광주이씨와 혼인한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딸과 사위만 언급된 부분으로 보아, 뒤에 만들어진 족보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듯하다. 의성김씨 종손도 이전 족보를 찾아 보았으나 김대엽-김성모 부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아쉽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는 과제로 남겨야 할 듯하다.

22 뉴스퀘스트(<https://www.newsquest.co.kr>), 2021년 6월 17일자(2025.09.02. 검색).

3.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1) 지례 동학농민군

지례현 상북면(上北面)의 12개 마을 중 복호리(伏虎里)과 와룡리(臥龍里)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김천군(金泉郡) 석현면(石峴面) 용호리(龍虎里)가 되었다.²³ 현재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를 말한다. 이 가운데 복호리는 1890년 11월, 해월 최시형이 「내칙(內則)」·「내수도문(內修道文)」을 짓고 발표한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 1990년 대한천도교 여성회에서 「내칙(內則)」·「내수도문(內修道文)」 관련 기념비를 세웠고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천도교 복호동수도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1890년부터 동학이 전파되어 있었던 곳이고, 부녀자들의 동학 입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역이었다. 1894년 9월 2일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지례현 상북면 복호리와 와룡리 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동학에 입도하였다는 소식을 접한다.²⁴ 아마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쉽게 입도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지례 동학농민군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 지도자를 찾아보자. 가장 많이 알려진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3일자에 김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는 죽전(竹田)의 남정훈(南廷薰), 진목(眞木, 참나무골)의 편보언(片輔彦)·편백현(片白現) 등이었으며, 죽정(竹汀)의 강주연(康柱然),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 [감호정(鑑湖亭) 고자(庫子)]), 강평(江坪)의 도사(都事) 강영(姜永=姜基善), 봉계(鳳溪)의 조순재(曹舜在), 공자동(孔子洞)의 선달(先達) 장기원(張箕遠), 신하(新下)의 배군헌(裴君憲), 장암(壯岩)

23 越知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東京:兵兵館印刷所, 1917, 530쪽.

2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일자.

의 권학서(權學書) 등이 접주로 활동하였다고 기록하였다.²⁵ 『별계(別啓)』 11월 11일자에는 김성심(金性心)도 김천의 접주라는 기록이 있다.²⁶ 김천은 김산군 김천면을 지칭한다.

김성심(金性心)은 김천의 접주라고 했으니 제외하고,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바로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이다. 그는 감호정(鑑湖亭)고자(庫子)라고 한다. 고자(庫子)는 물품 출납을 담당했던 사람(하급 관리)을 일컬으며, 감호정(鑑湖亭)은 1690년 현감 조인상(趙麟祥, 1642~1697)이 지례현 하현면(下縣面) 상부리(上部里)에 건립하였다가 1755년 홍수로 유실된 것을 1760년 현감 이창원(李昌遠)이 재건하였다고 한다.²⁷ 1899년 제작된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를 보면 감호정(鑑湖亭)이 “현 동쪽 1리에 있다[在縣東一里]”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김정문은 김산군(金山郡) 과내면(果內面) 기동(耆洞) 출신이었으나,²⁸ 감호정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접주들보다 더 지례현 동학농민군과 밀접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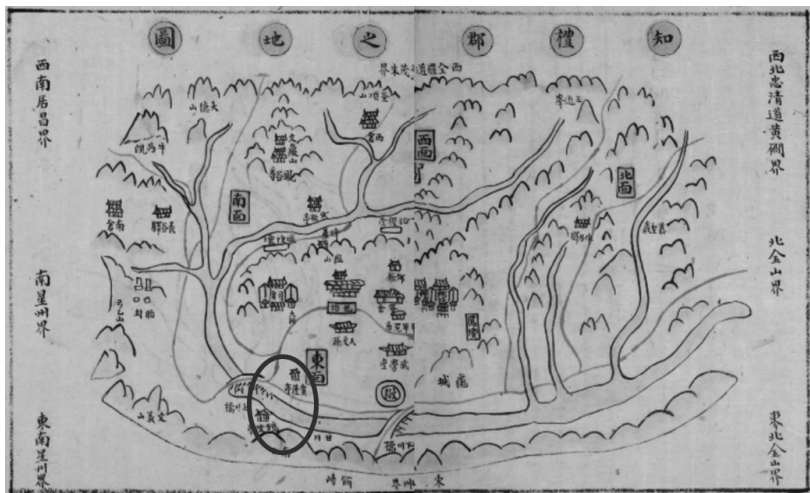
다음의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 동그라미 속에 두 개의 정자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호정(鑑湖亭)으로 추정된다. 확대하여 살펴보니 글자 확인이 어려웠다. 『지례군읍지(知禮郡邑誌)』 누정(樓亭) 편을 살펴보면, 동쪽에 감호정(鑑湖亭), 서쪽에 한송정(寒松亭), 북쪽에 방초정(芳草亭),

25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3일자.

26 「甲午十一月十一日封 啓」, 『別啓』.

27 「김천의 누정(樓亭)과 누정문학(樓亭文學) ⑤」, 『김천신문』 2024년 12월 12일자, 지명은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5쪽으로 보완하였다.

28 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2쪽. 과내면에 상기동, 중기동, 하기동이 있다.



知禮郡, 『知禮郡邑誌』, 光武3年(1899)

남쪽에 용취정(擁翠亭)이 위치한다는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²⁹

지례에서 활동하던 동학농민군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1895년 1월 지례현감 이재하(李宰夏)가 지례현 남면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 4명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신채봉(申彩鳳)이 그들이다.³⁰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 등은 1894년 8월에 동학농민군 무리를 이끌고 마을에 들어와서 지례관아에 일부 들어가기도 하였고, 촌리(村里)에서 재물을 확보하였고 또 성주(星州)·금산(錦山)·황간(黃澗)·영동(永同)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할 때 참여하였다. 그들은 지례현감 이재하의 심문을 받고 1895년 1월 5일에 모두 총살되었다. 나머지 한 명인 신채봉(申彩鳳)은 강제로 동학농민군에 들어갔다고 판단되

2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30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

어 지례현감이 풀어주었다고 한다.³¹

김정문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4명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이름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번호	이름	참여 내용	참여 지역	생몰연대
1	김정문 (金定文)	김정문은 접주로서 1894년 8, 9월 경상도 김산·지례(감호정 관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경상도 선산을 공격함	경상도 김산·지례·선산	미상
2	강제술 (姜弟述)	김정문 접의 일원으로, “접사(接師)”로 적혀 있다. 주로 김산지역에서 활동하였다.(여중룡, 「갑오병신일기」) 김정문이 지례와 관련이 있고 선산 공격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강제술도 같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상도 김산	미상
3	김재덕 (金在德)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하였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 / 충청도 금산·황간·영동	미상
4	김성봉 (金成奉)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하였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 / 충청도 금산·황간·영동	미상
5	이홍이 (李洪伊)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하였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 / 충청도 금산·황간·영동	미상
6	신채봉 (申彩鳳)	지례현 남면(南面)의 백성들이 붙잡은 동학농민군으로 지례현감 이재하가 위협에 의해 입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풀어주었다.(별계)	경상도 지례·성주 / 충청도 금산·황간·영동	미상
7	김 접주 (金接主)	상산김씨. 선산의 수접자(首接者)로서 선산군 무을면 송삼동에서 거주했다. 선산에서 김산으로 와서 휘하 동학농민군을 정비하여 성주 점령에 나섰던 인물이다.(갑오일기)	경상도 선산·김산·성주	미상

31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

번호	이름	참여 내용	참여 지역	생몰연대
8	정 접주 (鄭接主)	김 접주(金接主) 휘하의 인물로 지례의 수접자(首接者)로 알려진 인물이다. 동학농민군의 행패가 심할 때 특별한 지시를 내려 휘하를 안정시켰다.(갑오일기)	경상도 선산·지례·성주	미상
9	장흥성 (張興成)	1894년 9월 12일, 지례에서 총과 말 3필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다.(갑오일기)	경상도 지례	미상
10	김만호 (金萬戶)	선의포(善義包) 접주이다. 1894년 9월 28일 지례에서 활동하였다.(갑오일기)	경상도 선산·지례	미상
11	나보은 (羅報恩)	지례 상북면 마산리 주민으로 마을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했을 때 함께 입도했다. 10월 말 동학농민군 통문이 돌아 다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11월 초 체포되어 곤장을 맞고 방면되었다.(갑오일기)	경상도 지례	미상
12	최형오 (崔亨五) 아들	지례현 상북면 임평리에 거주하던 최형오의 아들로, 동학농민군 접주로 알려진 인물이다.(갑오일기).	경상도 지례	미상

지례 동학농민군의 상황이 적혀 있는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확인 가능한 동학농민군은 선산의 수접자(首接者)였다는 김 접주(金接主), 지례의 수접자(首接者)인 정 접주(鄭接主)였다. 지금까지 선산과 지례의 접주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일기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선산 수접자 김 접주는 상산김씨(商山金氏)로, 선산군 무을면 송삼동(현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1894년 9월 지례로 들어와서 지례현 하현면 부평리에 사는 과부 문씨의 효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포상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음식물을 보냈다고 한다.³²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는 선산 인물 가운데 김봉동(金鳳東, 1862~1947)이 있다. 그는 보은취회와 선산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던 인

3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6일자.

물인데, 일선김씨이다. 따라서 상산김씨라고 하는 선산 김 접주와는 무관하다.

지례의 수접자인 정 접주(鄭接主)는 황덕(黃德) 출신자로, 선산 김 접주의 휘하이고, 동학농민군이 지례에서 “작폐”했을 때 여러 차례 특별한 지시를 내려 접(接) 휘하의 동학농민군을 안정시켰던 인물이기도 하다.³³

『세장년록(世藏年錄)』에 근거하여 김산 부근에서 살필 수 있었던 접은 충청포(忠淸包), 상공포(尙公包), 선산포(善山包), 영동포(永同包) 등이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 기존에 알려졌던 포 외에 선의포(善義包)가 등장한다. 1894년 9월 26일 선의포는 신기(新基)에 주둔하고 있었다. 최시형의 기포령(09.18)이 전해지자 이동을 위해 물자를 모으던 시기였다.³⁴ 그 접주는 김만호(金萬戶)였다.³⁵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포는 김산(金山) 궁장포(弓莊包)이다.³⁶ 궁장(弓莊)은 김산군 과외면 궁장동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³⁷ 그곳을 근거지로 삼는 포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1894년 9월 12일자 『갑오일기』에 장흥성(張興成)이라는 인물이 적혀 있다. 동학농민군이 성주를 갔다가 역촌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흥성을 보내 충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시켜서 온 점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던 인물 같지는 않다. 하지만 충을 받지 못한 장흥성은 다른 동학농민군 1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결국 충을 획득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월촌에 들러 말 세 필까지 끌고 갔다고

3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6일자.

3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6일자.

3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8일자.

3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일자.

37 조선총독부,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652쪽.

한다. 동학농민군 후방 지원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듯하다.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에 거주하던 정여배(鄭汝培)도 있다. 그는 1894년 마산리 동민들과 함께 동학에 입도한 인물이다. 동학농민군 활동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저녁마다 동학 주문을 외우던 마산리 주민들 중 한 사람이다. 정여배는 동민들과 함께 동학에 입도한 것은 맞지만, 동학농민군으로서 성주·지례관아 등으로 가서 활동을 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아, 표에는 기입하지 않았다.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 주민으로 동학에 입도하고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이력이 명확한 인물은 나보은(羅報恩)이다. 그는 10월 말 동학농민군 사이에 통문이 돌아 동참했고, 11월 초 체포되어 곤장을 맞고 방면되었다.³⁸ 다만 이후 확인되는 흔적이 없다.

2)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들이 모였던 곳은 복호동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의 종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복호동이라 다른 곳의 상황보다 빠르게 인지했던 것 같다. 복호동은 1894년 당시 지례현 상북면 복호리이다. 1890년 11월, 해월 최시형이 「내칙(內則)」·「내수도문(內修道文)」을 짓고 발표한 곳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 8월 6일자에는 복호동에 동학농민군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 말을 타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척사창의(斥邪倡義)’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준비를 마친 이들은 공자동으로 들어갔다. 공자동은 장기원(張箕遠)이 접주로 있던 곳이다.³⁹ 장기원(張箕遠)

3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4일자.

39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3일자.

의 출신지인 공자동(孔子洞)은 김산군 대항면(代項面) 소속 24개 마을 중 하나다.⁴⁰ 공자동(孔子洞)은 대항면(代項面) 대성동(大聖洞)이 되었다.⁴¹

이 일기로만 보면 지례현 상북면 복호동 동학농민군이 김산군 대항면 공자동 접주인 장기원과 만난 것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6일자를 보면, 지례현감(知禮縣監) 이재하(李宰夏)가 동학농민군을 “비류(匪類)”라 하여 금지하고자 몇 사람을 결박하고 형틀에 채워 가두자 동학농민군들이 사방에서 모여 지례동헌을 쳐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다.⁴² 즉 지례 복호동 동학농민군과 김산 공자동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지례관아를 점거한 것이다. 동학농민군은 책실(冊室) 담당 진사(進士)를 구타했고 지례현감 이재하도 구타하여 이마에 상처를 입혔으며, 내아까지 범하였다고 한다.⁴³

지례현감 이재하의 이마 부상 관련해서는 『세장년록(世藏年錄)』 8월 6일자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둘러싸고 때려 거의 머리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같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장년록(世藏年錄)』보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 뒤늦게 기재된 점으로 보아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적으면서 “내아를 범했다”는 부풀려진 이야기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김산군에서는 편보언(片輔彦)이 도집강(都執綱)이라 칭하고 김천 시장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있었던 때였다.⁴⁴ 8월 6일 진행된 동학농

40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54쪽.

41 越知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동경:兵林館印刷所, 1917, 531쪽.

42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6일자.

4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3일자.

44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8월 6일자.

민군의 지례관아 점거는 주민의 동학 입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하면 지례관아가 동학농민군에 점거된 후 동학에 입도하는 이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마을 전체가 동학에 입도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 주민들이었다. 마산동민들은 저녁 식사 후 일제히 동학 주문을 외우는데, 그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고 한다.⁴⁵ “상하의 명분이 없어지고 기강이 사라지는”⁴⁶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를 실천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0일에서 22일 사이, 도집강(都執綱) 편보언(片輔彦)은 김천시장에 있던 도소를 지례로 옮겼다.⁴⁷ 8월 6일 지례동헌이 동학농민군에게 점거되기 전에도 지례현감 이재하는 동학농민군을 잡아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였다. 지례동헌이 동학농민군에게 점거되고 본인도 부상을 입으면서도 계속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였다. 그래서 도집강 편보언이 도소를 지례로 옮기고 지례관아를 점령하고자 한 것이다.

8월 22일 저녁, 황간·김산·지례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지례관아를 점령하였다. 23일자 일기에 “전날 저녁”이라고 적은 점에서 보아 22일 저녁에 동학농민군이 지례관아를 점령한 것이다. 지례로 도소를 옮긴 후 황간·김산·지례 동학농민군과 함께 지례관아를 점령하였다. 지례관아(知禮縣衙)는 지례현 하현면 교동에 있었던 지례현의 관아이다. 현재 지례면행정복지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지례관아의 관예(官隸)들은 모두 도망가고, 좌수(座首) 및 이방, 호방, 수형리(首刑吏)가 관청을 지키고

4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2일자.

4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6일자.

4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3일자.

있었고, 좌수와 호장은 모두 결박되어 곤욕을 당했다고 한다.⁴⁸ 처음 읍 내에 들어온 동학농민군은 200명이었으나 나중에는 사방에서 몰려들어 1,000명이나 되었다. 김산 동학농민군 도집강 편보언이 장기원접과 김정 문접의 동학농민군을 동원한 것으로 생각되고, 뒤에 선산수 접주 김 접주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선산·황간 등 동학농민군도 가세한 것이다.

지례관아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다음 날인 23일에 세 부대로 나뉘어 성주(星州), 김천(金泉), 직지사(直持寺)로 향했다. 8월 25일 성주관아 점령과 관련된 동학농민군들 중 일부가 지례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천과 직지사로 향했던 동학농민군은 김산 동학농민군들 중 일부가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천은 김산군 김천면이고, 직지사는 김산군 대항면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원접, 남정훈접 등의 근거지가 있는 대항면에 속해 있는 사찰이다. 따라서 김산 동학농민군 중 일부가 성주로 향하지 않고 자신들의 근거지로 되돌아간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지례관아를 점령할 때, 미리 도주했던 지례현의 관예(官隸)들도 동학에 입도하였다.⁴⁹ 이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온 동학농민군들이 지례현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⁵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어느 쪽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곳곳의 동학농민군들이 들어와 있던 곳이 지례현이었다.

8월 22일 지례관아를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23일부터 일부는 자신들

4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3일자.

4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5일자.

5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5일자.

의 근거지로 돌아가고 일부는 성주를 향하였다. 이들이 성주관아를 점령한 것은 25일이었다. 이날 저녁 관속과 읍내 사는 나무꾼과 머슴들이 동학농민군 18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다.⁵¹ 이 18명 중에서 성주읍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 지례 방면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 김산 방면에서 들어온 동학농민군이 있었다.⁵² 이 사건에서 지례현에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들이 들어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주읍에서 동학농민군 23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지례에 전해진 것은 9월 1일이었다. 하지만 지례현민들의 동학 입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8월 6일 지례관아 점거 후 마을 전체가 동학에 입도했던 지례현 상북면 마산리에 이어 22일 지례관아 점령 후 상북면 복호동과 와룡동도 모두 동학에 입도하였다.⁵³ 이들도 관예(官隸)들이 동학에 입도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들이 “작폐(作弊)”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⁴

성주읍에서 동학농민군이 18~23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주와 선산 동학농민군은 김천 동학농민군과 연합하여 다시 성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지역에서 “작폐”를 행했다고 한다.⁵⁵ 지례현 하현면 고념리에 있던 동학농민군도 지례현의 무기고를 다시 탈취하여 성주로 향했다.⁵⁶ 동학농민군이 성주읍내를 둘러싸고 돌입하였고, 방화로 동헌(東軒), 객사(客舍), 향교(鄉校), 관황묘(關皇廟)만 남았다는 소식이 9

51 『동요일기(東擾日記)』 1894년 8월 25일자.

52 『동요일기(東擾日記)』 1894년 8월 26일자.

5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일자.

5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일자.

5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3일자.

5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4일자.

월 8일 전해졌다.⁵⁷ 성주읍을 공략했던 동학농민군은 이후 뿔뿔이 흩어져 각 접의 근거지로 돌아왔다.

3) 김산 동학농민군과 지례 동학농민군의 관련성

동학 입도는 연비연원 관계에 기초하는 인적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접이 다를 수 있고 타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들어왔을 경우 인적·물적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갑오일기(甲午日記)』에서 몇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지례현 관예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와 상북면 복호동·와룡동민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가 바로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이 지례현민을 “작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⁵⁸ 무주 동학농민군 30여 명이 “작폐”를 저지르고 방산점에 묵고 있는데, 근방에서 약탈을 할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이와 관련이 있다.⁵⁹

또 다른 사례는 의견이 다른 경우이다. 황덕의 정 접주가 성주의 장 접주가 관할하는 부분을 간여하면서 대립한 일이다.⁶⁰ 황덕(黃德)의 정 접주(鄭主)는 지례의 수접자 정 접주이고, 성주의 장 접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성주에서 동학농민군 좌익장을 맡았던 장여진(張汝振)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이 사건으로 근거지에 머물던 동학농민군이 지례읍내에 모이게 되었는데, 모두 8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중 200명은 성주

5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8일자.

5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8월 25일자; 9월 2일자.

5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9일자. 23일에는 무주 동학농민군 30명이 지례에서 쫓아낸 일을 적고 있다.

6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8일자.

로 가서 지례의 수접자인 정 접주를 데려오고, 나머지 600명은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을 막아내도록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⁶¹ 19일에 이들은 말을 타고 성주로 향했다.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의 “작폐”에 대해서는 경계하던 지례현민들은 공자동에 근거한 동학농민군 등 김산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대우를 하였다. 공자동 동학농민군에게는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하였다. 9월 14일 두 명의 공자동 동학농민군이 묵고 밥을 먹었으며, 21일 공자동 동학농민군들이 돼지를 잡아먹고 읍내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흠어졌다 모였다는 반복했다.

이를 통해서 도집강(都執綱) 편보언(片輔彦) 휘하의 죽정(竹汀)의 강주연(康柱然), 기동(耆洞)의 김정문(金定文), 강평(江坪)의 도사(都事) 강영(姜永=姜基善), 봉계(鳳溪)의 조순재(曹舜在), 공자동(孔子洞)의 선달(先達) 장기원(張箕遠), 신하(新下)의 배군헌(裴君憲), 장암(壯岩)의 권학서(權學書) 등은 지례 동학농민군과 밀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례의 수접자 정 접주와 그의 연원인 선산의 수접자 김 접주도 편보언과 밀접했을 가능성이 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지례지역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준비

1) 2차 봉기 준비

상황이 바뀌었다. 6월부터 대구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 100여 인 중 일

6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18일자.

부가 대구 병사 200명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잡으러 출발했다는 소식은 이미 9월 8일에 전달되었다. 27일에는 지례현과 가까운 성주에 일본군이 읍리(邑吏)들과 함께 약목(인동군 약목면)과 부상(개령군 남면 부상동)을 거쳐 김천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 무렵인 9월 18일 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렸다. 지례 동학농민군들도 26일부터 일제히 2차 봉기(무장봉기)한다는 소식을 접하기 시작하였다. 지례와 가까운 충청도 영동 동학농민군의 무장기포(2차 봉기)가 26일이었다.

선의포(善義包)에서는 다른 접이 말을 끌고 갈까 봐 미리 말을 가져가려고 했다.⁶² 상주 화령에서 기포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는가 하면, “작폐”에 당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모습과 빨리 “집곡”하여 물자를 보충하고자 하는 동학농민군의 모습이 각지에서 벌어졌다.

공자동 동학농민군 100여 명이 곡식을 가지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선의포(善義包)도 유사(有司)를 파견해 부잣집의 도조를 징집하러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선의포(善義包)의 일부 동학농민군은 사람을 볼모로 돈 15냥을 받아내기도 했다.⁶³ 동학도가 아닌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폐해가 생기기 시작하자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물론, 죽인들을 피신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⁶⁴

동학농민군의 물자 모집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춘천 동학농민군은 기포하고 부자들의 도조를 징집했고, 영동포(永同包)는 이 용직 판서네의 돈을 빼앗고 소를 잡아먹었다고 한다.⁶⁵

6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6일자.

6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7일자.

6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9월 29일자.

6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일자.

2) 선산 읍성 공략

10월 1일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일본군이 선산읍에 들어와 “왜변(倭變)”을 일으킨 소식을 전하고 있다.⁶⁶ 선산(善山) 수접주(首接主) 김접주(金接主)가 선산에 있었고, 김산(金山) 궁장포(弓莊包) 동학농민군과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이 선산부에 있었다. 일본인 몇 명이 사방을 둘러싸고 총을 쏘아 대접주와 수접주(首接主)가 모두 사망하고 동학농민군도 많이 죽었다.⁶⁷ 선산의 대접주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수접주였던 김접주가 이때 사망한 것으로 짐작된다.

최시형의 기포령 이후 김산에서 가장 먼저 기포한 인물은 김정문이었다. 그 일환으로 선산읍성 점령에 선두로 나섰던 것이다. 9월 25일 즈음 큰 어려움 없이 읍성을 점거하였다. 하지만 선산 향리의 연락을 받은 해평 일본군이 선산으로 들어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총에 맞아 죽은 자가 몇백 명이고, 성을 넘다가 떨어져 죽은 자가 태반이었는데, 김정문집 중 죽은 자는 15명이라고 한다.⁶⁸ 『나암수록(羅巖隨錄)』 9월 28일자에도 관련 내용을 “일본인 10~30명 내외가 와서 동학농민군을 총을 쏘아 죽이고 해산시켰다.”고 적고 있다.⁶⁹

선산 수접자 김접주와 김산 궁장포, 김정문 집이 선산읍성을 공략했다. 지례 동학농민군과 김산 동학농민군, 특히 도집강 편보언과의 관련성, 그리고 편보언의 휘하였던 김정문 집의 참가, 선산 수접자 김접주가 선산 읍성 공략 전부터 지례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지례 동학농민군

6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일자.

6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일자.

68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9월 25일자. “金定文先頭起布...”

69 『나암수록(羅巖隨錄)』 「甲午九月」.

역시 여기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3) 대구 남영병과 외국군대의 동학농민군 체포

일본군이 경상도관찰사의 요청으로 동학농민군을 체포한다는 소식이 지례현에도 전해졌다.⁷⁰ 이에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동학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원수같은 왜놈에게 체포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한탄스럽다”고 쓰고 있다. 일기에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인이 김천에 들어와 동학농민군들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김산군 공자동, 벌덕리를 거쳐 지례현 와룡, 복호동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지례현에서 주민들이 모두 동학에 입도했던 상북면 복호리와 와룡리는 모두 산에 오르거나 달아나 숨을 수밖에 없었다.⁷¹

지례 동학농민군과 밀접했던 집 중 하나였던 공자동의 접주 장기원(張箕遠)도 뒷산으로 도망했다.⁷²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장기원을 “선달 장좌문(張佐文)”이라고 썼는데, 아마 장기원의 자호(字號)가 아닐까 싶다.⁷³ 대구 남영병이 공자동에 들어가자 모든 마을 사람이 도피하고 장기원의 온 가족도 피신하였다. 이에 병사들이 집에 불을 질러 이웃집 7채에 불이 이어졌다.⁷⁴ 강영(姜永=姜基善)도 하루 전에 총살되었다.⁷⁵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강영(姜永)을 기동(耆洞)의 도사(都事) 강영

7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4일자.

7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6일자.

7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6일자.

7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4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10월 7일자. “七日兵丁入孔子洞一村逃避張接主箕遠舉室逃躲因火其家連燒其隣七家此非魚殃耶”;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5 『세장년록(世藏年錄)』 1894년 10월 6일자.

원(姜永遠)이라고 적고 있다.⁷⁶

10월 8일 청군 200여 명이 공자동과 벌덕리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고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가 살고 있는 마을 앞을 지나간 일이 적혀 있다.⁷⁷ 10월 9일, 대구영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성주로 가면서 20명의 병사를 남겨두었다. 남은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체포하기 위함이었다.⁷⁸ 이후에도 외국군대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11일 일본인 수십여 명이 김천 시장에 들어와 감천을 건너 개령군으로 간 이야기도 적혀 있다.⁷⁹

이후 지례현에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학농민군의 통문이 돌았다. 보은에서 넘어온 통문에는 10월 15일에 장안에 모여 상주와 선산을 설욕한다는 내용이었고, 임평·임계의 통문에는 13일 저녁 마산리 뒤에서 모여서 장안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오가작통으로 동학농민군의 통문이 밝혀져 임평·임계의 접주를 체포했다.⁸⁰ 그러나 통문에 적힌 대로 남아있던 동학농민군들이 마산리 뒤에서 기포했고, 여기에 호응한 다른 마을의 동학농민군이 움직이면서 여러 동네에서 불이 났다.⁸¹ 동학농민군의 통문이 도는 이야기, 동학농민군 체포 소식과 함께 지례읍 군교들이 출동해서 복적였다는 기록도 함께 적혀 있다. 동학농민군이 관군, 외국군대에 맞서 계속 싸우거나 대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동학농민군의 통문은 다른 지역에도 돌았던 모양이다. 보은·장안의

7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8일자.

7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9일자.

7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1일자.

8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3일자.

8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4일자.

동학농민군이 기포하여 청산·영동 일대에 가득하다는 소식을 통문을 통해 접한 이들이 있었다. 실제로 마산리에 거주하고 있던 나보은(羅報恩)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그쪽으로 향했다.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가 나보은의 변심을 “가증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다.⁸² 나보은의 체포 소식은 11월 4일 전해졌다.⁸³ 이 사례에서는 동학농민군 사이에서 통문이 돌아 각지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던 점과 실제 동원 능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21일 지례현 상북면 임평리 최형오(崔亨五)의 가산을 몰수했다. 최형오의 아들이 접주였기 때문이었다.⁸⁴ 이외에도 사통(私通)을 돌려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기도 하였고, 인동(현 구미) 사림의 “동학을 금하고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자”는 통문(通文)이 돌기도 하였다.⁸⁵

이후에도 동학농민군이 금산에 모였다는 등, 무주에 모였다는 등 소식이 지례로 전해졌다.⁸⁶ 무주에서 동학농민군 2명을 잡아 지례로 보냈는데, 도통수에게 포수꾼을 차출해 그들을 총살토록 하기도 했다.⁸⁷ 27일 공자동 동학농민군 7명을 체포한 소식과 2명 총살, 5명 곤장형도 적혀 있다.⁸⁸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낙점된 사실도 적혀 있다.⁸⁹

8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15일자.

8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4일자.

84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1일자.

85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0월 21일·24일자.

86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2일·9일·14일자.

87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16일자.

88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27·28·29일자.

89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11일자.

일본군 소식도 계속 적혀 있다. 일본인 200여 명이 김산에서 지례로 들어왔다가 전라도로 간 이야기,⁹⁰ 일본인 27명이 의복과 탄약을 훔쳐진 200명이나 되는 짐꾼들을 데리고 전라도로 가는 이야기,⁹¹ 일본인 몇 명이 김산에 있다가 갑자기 지례를 거쳐 전라도로 가는 이야기,⁹² 일본인 9명이 짐꾼 몇 명을 데리고 지례에서 묵은 뒤 무주로 향한 이야기⁹³ 등이다.

5. 맺음말

본문에서는 『갑오일기(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의 내용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는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이다. 『광주이씨칠곡파세보』에서 이은필·이성언 부자를 찾아냈고 사위였던 함안조씨 조용호(趙鏞昊)와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가 있었다. 함안조씨족보와 의성김씨 족보에서 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갑오일기(甲午日記)』 저자의 종제가 살았던 지례현 상북면 복호동(현재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을 찾아갔다. 그 일대에 함안조씨는 거주하지 않고 의성김씨가 살

90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24일자.

91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1월 30일자.

92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2월 1일자.

93 『갑오일기(甲午日記)』 1894년 12월 6일자.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자를 의성김씨 김성모(金聖模)로 특정할 수 있었다.

둘째, 지례 수접자 정 접주는 선산 수접자 김 접주의 휘하였다. 또 김 접주 또한 김산 동학농민군 편보언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지례 동학농민군이 김산 동학농민군과 밀접한 것은 이전부터 추정되어 왔었고 사료 발굴이 곤란했었는데, 『갑오일기(甲午日記)』를 통해 보완되었다. 무엇보다 선산 수접자 김 접주의 휘하가 지례 수접자 정 접주였다는 사실은 김산뿐 아니라 선산과도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지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례 수접자 정 접주, 선산 수접자 김 접주는 물론 강제술(姜弟述), 김재덕(金在德), 김성봉(金成奉), 이홍이(李洪伊), 신채봉(申彩鳳), 장흥성(張興成), 선의포(善義包) 접주 김만호(金萬戶), 나보은(羅報恩) 등이 바로 그들이다. 또 새롭게 밝혀진 접도 있다. 선의포와 김산의 궁장포(弓莊包)이다. 김친의 접주인 김성심(金性心)이라는 인물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넷째, 지례 동학농민군은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8월에 관아를 점령했다. 처음에는 지례현감 이재하가 동학농민군을 잡아 징벌한 일로 시위의 성격이었다가 나중에는 점령하여 무기 등을 탈취하였다. 지례현 내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는데에는 장기원포와 연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지례 동학농민군은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지례현민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다섯째, 2차 봉기 당시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를 위해 준비했던 상황에 대해 경상도에서는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갑오일기(甲午日記)』는 이 시기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 기포 준비과정에서 지례현민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를 일부 들여다볼 수 있었다. 2차봉기 이후 지

레 동학농민군이 참여한 것은 김정문접이 선두에 나섰던 선산읍성 공략이다.

『갑오일기(甲午日記)』의 뒷부분은 의병 관련 내용이다. 동학농민군들이 이후 도피하여 신분을 숨기고 살거나 의병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례연구가 필요한 듯하다.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1899년 서정만(徐定萬)과 정해룡(鄭海龍)을 따라 속리산에 들어갔던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도 남아 있다. 여기서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다루지 않았다. 이 역시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차 사료

- 『갑오일기(甲午日記)』(『동학농민혁명 연구』 창간호, 2023)
- 『세장년록(世藏年錄)』(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009)
- 『나암수록(羅巖隨錄)』(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009)
- 『동요일기(東擾日記)』(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3, 2008)
- 『別啓』(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0, 2018)
- 「갑오이후일기(甲午以後日記)」, 『갑오병신일기(甲午丙申日記)』(『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12)
-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2, 2015)
- 『(상주)소모사실(召募事實)』(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9, 2011)
- 『지산유고(止山遺稿)』(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2022)

단행본

-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 越知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동경:兵林館印刷所, 1917.
-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義城金氏觀瀾齋公派譜)』
- 『광주이씨칠곡파세보(廣州李氏漆谷派世譜)』, 廣州李氏漆谷派世譜編纂委員會, 1986.
- 동학학회, 『경상도 김천 동학농민혁명(동학총서 007)』, 모시는 사람들, 2017.

연구논문

- 조규태, 「김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학보』 41, 동학학회, 2016
- 신영우, 「1894년 영남 김산(金山)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1
- 신영우, 「사례연구를 통해 본 영남지역의 동학농민전쟁 - 김산지역을 중심으로 -」, 『인간과경협』 2,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0
-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DB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https://www.e-donghak.or.kr/archive/>)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인제대학교 족보도서관(<https://genealogy.inje.ac.kr/>)

경주시립도서관 족보자료관(<http://jokbo.gyeongju.go.kr/>)

신문

『김천신문』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내용 검토와 사료적 가치 분석

최진욱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

- 머리말
 - 『이풍암공신행록』의 구성과 내용
 -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
 - 맺음말
-

1. 머리말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은 이병춘(李炳春)이라는 인물이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기 자신의 체험, 신앙, 역사적 실천 등을 내면적 서사와 더불어 기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이병춘의 개인적 성장 과정, 동학 입도(入道)의 경위와 종교적 수행, 동학농민혁명에서 겪은 수난, 갑오 이후 도피 생활 중 해월 최시형과의 만남, 최시형이 처형된 후 의암 손병희와의 만남, 갑진개화운동 과정에서 실행한 역할, 동학이 천도교로 전환되던 당시의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병춘은 1864년에 전라북도 임실군 상동면(上東面) 왕방리(旺方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字)는 명운(明運)이고 본(本)은 전주(全州)이며, 이경화(李敬華)의 손자이고 이우홍(李宇洪)의 넷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천안전씨(天安全氏)이다.¹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살다가 1933년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생애 후반기에는 서울 소격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다.² 1888년 그의 나이 25세 때 동학에 입도하여 강화(降話)를 체험하였고,³ 1891년 8월 최시형이 태인에 내려왔을 때 처음 배알(拜謁)하고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천인상합(天人相合)의 시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

1 『李豐菴公實行錄』, “李炳春의字는明運이요本는全州人이니諱敬華之孫이요諱宇洪之第四子也라씨는天安全氏니天性이端莊貞一하고慈仁恭儉호야有懿德이라寓居于任實郡上東面旺方里할시夢에五鳳山이聳出호야自落于裳中而華蟲이飛抱於懷中이런니遂感而生焉호니布德五年甲子二月二日申時也라.”

2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019, 246쪽.

3 『李豐菴公實行錄』, “戊子年二月十日은卽先考之忌辰也라……是日에直往任實玉田面鳥項里호야問其道之裡許호디初則諱之어늘以實情으로請之호디以弓乙歌知止歌二篇으로示之어늘潛心玩味호니乃無極之道也라更請立志信教之道호디不得已호야許之어늘錢文六十六兩三錢를出호야使人으로送于葛覃市호야買祭需而歸호니卽二月十二日也라는夜에沐浴齋戒하고致誠入教于年이二十一歲也라內有降話之道호고外有接靈之氣也라.”

았다.⁴ 이후 최시형, 손병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단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병춘은 동학의 최상층 지도자는 아니지만 교단의 내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비중을 가진 인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 참혹한 도피 생활을 거쳐 갑진개화운동, 천도교로의 전환, 3·1 운동의 계획과 참여, 임시정부 지원에 이르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간 인물은 많지 않다.⁵ 이병춘의 생애가 우리 근대사의 격랑을 따라 함께 움직였던 만큼 그가 남긴 『이풍암공신행록』은 근대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풍암공신행록』은 이병춘이 50세 무렵에 구술한 내용을 김재홍(金在弘)이라는 그의 문하생이 찬술(撰述)한 것이다. 표지에 ‘포덕(布德) 52년(1911) 정월’이라 쓰고 기록이 끝나는 지점에 ‘포덕 56년 을묘년(乙卯年, 1915)’이라고 적은 것을 볼 때, 1911년에 작업을 시작하여 1915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⁶ 이 자료는 이병춘의 손자이며 현재 천도교 전주교구장을 맡고 있는 이길호 씨가 2024년에 동학농민혁명재단에 제공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⁷ 2025년 현재 번역과 교감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번역본 도서가 출판될 예정이다.

4 『李豐菴公實行錄』, “辛卯八月十日에海月先生主계서以巡接次로行次于泰仁郡洞谷이어서늘拜謁하고問道之眞理호디敎以守心正氣와天人相合之際어시늘銘佩而歸호다.”

5 이병춘이 3·1운동에 참가하는 구체적인 양상이나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을경, 2019,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을 참고.

6 『李豐菴公實行錄』, “布德五十六年乙卯十月日에門下侍生金在弘謹拜撰.” 이 자료를 찬술한 ‘김재홍’이 어떤 인물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문하시생(門下侍生)’이 천도교에서도 쓰이는 용어인지, 찬술을 완성하는 데에 4년이 소요된 이유가 등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7 그 영인본이 이병규의 해제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연구』 제3호에 실려 있다.

지금까지 이병춘 관련 연구는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을경이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주로 3·1운동의 활동 내역에 집중하고 독립운동 관련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이병춘의 전 생애를 시야에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특히 3·1운동 이전 시기 활동에 대해 추정적으로 서술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⁸ 이병춘이라는 인물을 부차적으로 다룬 여타의 논문에서도 자료 부족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고충이 엿보인다.⁹ 이제 『이풍암공신행록』이 세상에 나오므로써, 이병춘 개인사의 정밀한 복원과 함께 한국 근대사를 보다 심도 있게 조망하는 작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자료의 구성과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이 자료가 갖는 사료적 가치를 간단히 짚어보려 한다.

2. 『이풍암공신행록』의 구성과 내용

이 장에서는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서지 사항을 보면 총 120면, 1책의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된 필사본이다. 각 면마다 10행의 계선(界線)이 그어져 있고 각 행마다 22~24자가 써여 있으며 주(註)는 쌍행(雙行)이다. 표제(標題)는 『이풍암공신행록』

8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019 참조.

9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2014; 조규태, 「동학농민운동 이후 남원 출신 동학인과 천도교인의 활동」, 『동학학보』 33, 2014.

인데, 앞줄에 ‘포덕 52년 신해 정월일(布德五十二年辛亥正月日)’이라고 적혀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표제와 동일하며, 권수제 앞쪽에 이병춘이 교단으로부터 받았던 각종 직첩(職帖)의 명칭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28,000여 자이며 한자만 놓고 볼 때 19,000여 자에 달한다. 본문 뒤에 부록으로 약 1,250여 자 분량의 ‘신정사례(新定四禮)’라는 의례 규정을 덧붙였다.

『이풍암공신행록』의 본문은 단락 구분 없이 날짜가 바뀔 때마다 줄을 바뀌가며 서술하였으며, 연도가 바뀔 경우 상단 난외에 간지를 표기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소제목을 붙이고,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1) 동학농민혁명 이전의 생애

어머니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들려주던 말에 따르면, 이병춘의 집안은 공주 유성시 동악동(東岳洞)에서 그의 조부 때까지 대대로 살았다.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던 조부가 문질(門疾)로 별세한 후 하루 만에 연이어 아들 두 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이병춘의 조모는 나머지 자식들을 데리고 홍산군(鴻山郡), 순창군(淳昌郡) 등을 전전하였다. 조모가 세상을 떠난 후 이병춘의 부모는 임실군(任實郡) 상동면(上東面) 효자촌(孝子村) 앞의 새 터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이병춘 형제를 낳았다. 그 후 장수군(長水郡) 서면(西面) 동고지(東古地)로 가서 살던 중 부친과 백부, 숙부가 연이어 별세하였고 형들마저 요절하였다.¹⁰ 그리하여 이병춘은 겨우

10 『李豐菴公實行錄』, “其後一日에母親이召而語之曰汝之祖父가世居于公州楡城市內○院洞後東岳洞[或云栢亭子村]而有子五人이라가不幸以門疾로祖父主下世後에一日之內에連喪二子故로祖母慶州金氏가不日發行호야盡棄家產호고率三子而居于鴻山郡楸山里런니其後

다섯 살 때부터 곤궁하고 고통스러운 여건을 헤쳐 나가야 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 처했던 유년 시절부터 20대 중반 입도(入道)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이병춘은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이 시기 그가 실천한 효행을 보면 마치 역사 속에 전설을 남겼던 모든 효자들이 이병춘이라는 한 사람으로 환생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모친이 중병에 걸렸는데 의원으로부터 “장어가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어린 이병춘이 한겨울의 얼음 위를 헤매다가 하늘을 우리러 울부짖으며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얼음 구멍에서 뛰어나왔다. 그 물고기를 가져다 모친의 병을 치료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행을 왕상(王祥)의 고사에 견주며 칭찬하였다.¹¹ 열네 살 때는 중형(仲兄)의 요절에 충격을 받은 모친이 위독해지자, 마을 뒤쪽의 영험한 샘물가에 청수를 떠놓고 백 번 절하며 모친의 회복을 빌었다. 수십 일 만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약 없이도 나을 것”이라 일렀는데,¹² 죽을 고비를 넘기며 구해온 들깨로 미음을 만들어 드리자 모친이 소생하였다. 손가락의 피를 내어 위독한 모친의 입에 흘려 넣음으로써 위급함을 벗어나게 한 일도 있었다.¹³ 이 외에도 맹종(孟宗)

에又移于淳昌郡阿東面等地[失其村名]라가祖母金氏棄世後에又移于任實郡上東面孝子村前新基^호此地는古人이云可活萬人之地也라故로遂定居焉^호야生汝之兄弟矣런니又其後移于長水郡西面東古地倉村이라가家門이不幸^호야汝之父親이棄世後에伯父季父繼而終歲^호고又移本郡天川面博室里^호야定新基成造而奠居이라가汝之仲兄이早夭而又逢大荒之年^호야生涯는自然蕩盡^호니不可不還于東高地舊居之處^호니此所謂浮萍身世也라^호시고恨嘆不已^호시더라.”

11 『李豐菴公實行錄』, “呼天大哭^호디有一長魚가自氷孔出來어늘……炙而進之^호니自後로病勢가漸漸有效而村中長老之人이皆曰汝之孝心은眞王祥之儔也라.”

12 『李豐菴公實行錄』, “與弟로同往泉傍^호야奉水祝天할시非夢間에有一偉鶴髮老人이來謂曰汝之親患이 勿藥自效矣리니勿憂焉^호라.”

13 『李豐菴公實行錄』, “布德二十八年丁亥正月一日夜에母親宿患이更發^호호수百般救藥治之호

의 죽순, 육적(陸績)의 회귤(懷橘) 등에 비견되는 일화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 지극한 효성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에 동임(洞任)들이 동네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이병춘의 효행을 본받도록 교시하는 한편 진수성찬으로 포상하였다.¹⁴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져나가자 군수가 그를 불러 정성껏 모친을 봉양하는 그 효행을 표창하였다. 군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으로 크게 될 그릇”이라 하며 진수성찬과 부채를 상으로 내리고 고을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삼게 하였다.¹⁵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성장 기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을 보여준다.

동학 입도 전의 생애를 기록한 이 부분은 위와 같은 효행의 실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루할 정도로 매우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이병춘이 그만큼 효(孝)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동학교단에서 오랫동안 중요 임무를 맡았던 인물의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유교와 동학의 이념이 단절이나 비약 없이 연속상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¹⁶

디一無效差런니至初六日夜호야遽至隕命故로驚惶中에以刀로裂左手無名指호야注血于母親口中호디無效어늘又以椎로擊破右手無名指호야注血于口中호니數食頃에回甦호스完全如前日晏然之時런니.”

14 『李豐菴公實行錄』, “面內長老가齊會호고請之어늘遂往拜跪호디父老가進果實與珍羞호야大卓而授之曰此雖薄略이니彰汝孝誠也니受而食之호라.”

15 『李豐菴公實行錄』, “七月七日에本郡守[失其姓名]가行次于本里陸座首家호야使人請來어늘即往拜見호디本倅曰汝은事親至誠이라호니吾聞而欽羨호야欲彰汝之孝호야以教百姓이라호고以手로撫首而贊之不已런니又以珍羞茶果로賞之호고又出袖中扇子一柄호야賜之어늘.”

16 유교와 동학의 이념을 단절과 비약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19세기 민중들은 치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전유하여 지배층을 공격함으로써 지배 질서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보

이병춘이 동학에 입도한 시기는 1888년, 그의 나이 25세 때이다. 이 무렵 인척으로부터 동학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병춘은 임실군 옥전면(玉田面) 조항리(鳥項里)로 가서 입교하였다.¹⁷ 이후 길지(吉地)나 명당(明堂)을 찾아다니던 습성을 버리고 수련과 포덕(布德)에 힘쓰며 병을 고쳐 수천 명을 포교하였다.¹⁸ 또한 자기의 논보다 남의 논에 먼저 물을 대주거나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손수 제작한 신발을 제공하는 등 음덕을 쌓기도 하고,¹⁹ 3년간 불화식(不火食)·불와침(不臥枕)·불언어(不言語)의 실천을 통해 구도(求道)하였다.²⁰

1891년 태인에 내려온 해월 최시형(海月崔時亨)을 처음으로 배알하였는데, 이때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천인상합(天人相合)의 가르침을 받았다.²¹ 1892년에는 집안에 재소(齋所)를 설치하고 49일·100일 기도를 이어가며 마음을 다잡았고, 팔공산·오봉산·선각산·성수산 등지에서 장기간 기도하며 광제창생(廣濟蒼生)과 포덕천하(布德天下)를 다짐했다. 그

는 견해가 있다. 배향섭,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2017; 배향섭, 「동학에서 보이는 '전통'과 새로운 사유」, 『민족문화논총』 70, 2018, 8쪽.

17 『李豐菴公實行錄』, “戊子年二月十日은……是日에直往任實玉田面鳥項里하야問其道之裡許하디初則諱之어늘以實情으로請之하디以弓乙歌知止歌二篇으로示之어늘潛心玩味하니乃無極之道也라更請立志信教之道하디不得已하야許之어늘錢文六十六兩三錢[十三圓二十六錢也]를出하야使人으로送于葛覃市하야買祭需而歸하니即二月十二日也라는夜에沐浴齋戒하고致誠入教于年이二十一歲也라內有降話之道하고外有接靈之氣也라.”

18 『李豐菴公實行錄』, “歸家後에不意於尋吉地與明堂之事하고專以修煉性으로爲實工이라且以布德主意로遍行列邑할시以仙符로治病則百無不中하니三四朔內에布教가至於二十餘邑하고人口가至數千餘人이라.”

19 『李豐菴公實行錄』, “晝則折草하야 暗施于窮不能勤農者之畝하며 旱則灌溉于他人之畝而不灌于自己之畝하며 夜則綱屨하야 給其行路跣足者하니.”

20 『李豐菴公實行錄』, “入于後園別堂하야晝夜祝天告師할시三年를不火食하며三年을不臥枕하며三年을不言語하고煉修求道라가.”

21 『李豐菴公實行錄』, “辛卯八月十日에海月先生主게서以巡接次로行次于泰仁郡洞谷이어시늘拜謁하고問道之眞理하디敎以守心正氣와天人相合之際어시늘銘珮而歸하디.”

해 12월에 대정(大正)으로 임명되었다.²²

1893년 2월 10일 대신사(大神師)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전국의 동 학교도들이 일제히 상경하여 상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보은집회와 원평집회가 열리자 국왕은 백성 보호를 약속하며 해산을 명했다. 귀갓길에 최시형은 이병춘을 불러 말하기를 ‘다음해, 즉 1894년에 커다란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²³ 이후 이병춘은 석문동과 집안 별당에서 49일·칠칠일 치성을 올리며 도통(道通)을 결심했다. 기도 끝에 비몽사몽간에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였는데, 어떤 노인에게서 “선악의 보응과 청렴”의 교훈을, 대신사에게서 봉황새와 ‘인(仁)’자를 받으며 평생의 부신으로 삼았다.²⁴ 이 체험은 그의 포덕과 이후 행적의 정신적 근거가 되었다.

2) 혁명에의 참여와 도피

이 시기의 기록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발생했던 학살·토벌 현장, 그리고 기적적 생환 후 교단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1894년 고부에서 전봉준 등이 봉기했을 때, 이병춘은 삼남 도인들의 명부를 정리하라는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임의록(立義錄)’ 2부를 작성하

22 『李豐菴公實行錄』, “又其後에祈禱于近處名山淨潔之處홀시長水郡八公山上峯에三七日を過호고其後에本郡五峯山上峯할시清水器에氷二枚가聳出六七寸호니全忠實이來見之稱贊不已호더라又其後에登鎮安郡先覺山土窟할시羅栢春李永夏로同行호야三七日祚禱을行호고任實郡聖壽山에與金良三으로七七日を致誠호야以廣濟蒼生布德天下之意로刻於枕頭호고始終이如一이런니其年十二月에又承大正之任帖호니即先生主親命之教也러라.”

23 『李豐菴公實行錄』, “歸家之時에海月先生主께서親下辟咎之詔曰明年에必有紛亂之兆矣리니汝須深刻호야愼之可也이라.”

24 『李豐菴公實行錄』, “翌日夜에大神師께서抱二鳳而來호야授之日放于場中호라호시거늘如其詔放之호디須臾間에數數萬鳳雜가盈于場中이라大神師親執余手而書仁字曰解此字之義호야以爲平生之符호라.”

여 1부는 도소에, 1부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²⁵ 이때 ‘접사(接司)’ 임명장을 받았다.

4월 초 최성명, 강일회와 함께 보은 최시형의 집으로 가던 중 진산에서 토벌군에게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2번의 피살 위기를 겪었다. 당시 금산군의 보부상들이 동학도 4명을 살해하자 이에 분노한 동학도들이 보부상들의 집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금산, 용담의 군졸 수만 명이 농민군과 접전을 벌이기 위해 진산을 쪽으로 행군하던 중 이병준 일행을 길에서 마주쳤던 것이다.²⁶

토벌군에게 함께 붙잡힌 일행은 모두 처형되었으나, 이병준은 두 번에 걸친 사형 집행 과정에서 갑자기 화승이 꺼져버리거나 몽둥이가 부러지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 등 기이한 사건이 연속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기이한 현상에 두려움을 느낀 토벌군들은 이병준의 부상 정도로 보아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숲속에 버려두었다. 길을 수도 없었던 이병준은 어린애처럼 기어서 고향 쪽으로 향했고, 길가의 노인들과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생환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임실 본가로 귀환했으나, 보부상들에게 구타를 당해 누워 있던 동생 이병룡이 형제 상봉 직후에 사망하였다. 동생의 죽음에 이병준은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으나, 결국 심신을 가다듬고 창도(昌道)의 앞날을 보리라 다짐하였다.

25 『李豊菴公實行錄』, “三南道人之名簿을修整호야名曰立義錄이라호니從其昨년에海月先生主分付內에徐包法包之說故로更修之二卷호야一卷은上于法所호고一卷은踏法師主圖章호야還置于吾家之意也라.”

26 『李豊菴公實行錄』, “店主人이……答曰數日前에錦山郡負商이殺無罪道人四名故로昨日에本邑道人數千名이會集호야燒負商人之家호고來于珍山邑호야留焉호니錦山龍潭兩邑軍卒數萬人이接戰次로設軍器호고逐來호니.”

7월에 ‘접주’, 10월에 ‘차접주(次接主)’ 임명장을 받았다. 10월 13일에 최시형이 순접(巡接)차 남행했을 때, 선생을 열흘 동안 남원에서 모시다가 처소를 임실로 옮겼다.²⁷ 이때 손병희가 내려와서 최시형과 만났고, 11월 28일에 이들은 수만 명을 거느리고 무주(茂朱) 등지로 향하였다.²⁸

최시형이 떠난 후 다음해(1895) 1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이병춘은 산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혹독한 도피 생활을 이어나갔다. 민포(民包)가 이병춘의 집에 들이닥쳐서, “이병춘을 잡으면 최시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의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봉산(五鳳山)으로, 하동면 구곡리 뒷산으로, 효자촌 안산 등으로 옮겨다니며 솔잎과 나무 껍질 등으로 연명하였다. 민포는 1,0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병춘이 숨어있는 산을 에워싸고 불을 지르며 수색망을 좁혀오기를 반복했으나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

석달 만에 귀가하였으나, “지목(指目)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전충실(全忠實)의 충고를 받아들여 3월 9일에 다시 도피하였다. 이때 김윤식의 안내로 진안군 학천봉(學天峯)으로 들어가 단을 설치하고 청수를 떠놓고 치성을 올리는 일과를 삼칠일 동안 지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호(大虎)가 나타나 이병춘을 밤새도록 지켜준다든지,²⁹ 백발의 노인들이 나타나 앞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들 명부(名簿)를 작성해 주는 등의 신비

27 『李滢菴公實行錄』, “十月十三日에海月先生主계서巡接次로南下하심을聞고至南原郡內眞田坊五山里權陽壽家하야侍海月先生而留一夜고翌日에侍先生고至草場里權氏齋室하야留連十日홀시……二十三日에奉先生主分付하야定私處于任實郡玉田面鳥項里梁明善家고.”

28 『李滢菴公實行錄』, “即日의梁明善家에서義菴先生이倍海月先生하시고行駕至九阜하야率京城道人數萬고即向茂朱等地하야去하시다.”

29 『李滢菴公實行錄』, “第七日夜에又奉清水고坐如泥塑人이런니松肪이漸微어늘更欲挑火라가願視하니有一大虎하야蹲坐於左側이라.”

로운 체험을 겪기도 하였다.³⁰

3) 해월 최시형을 찾아서

최시형의 소식을 몰라 애태우던 이병춘은 학천봉 치성 후 맹세하기를, “해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길을 떠났다(1895년 5월 3일). 그러나 지목(指目)이 매우 심한 탓에 최시형이 처소를 자주 옮겼으므로, 그를 찾는 것은 극히 지난한 작업이었다. 수소문하며 강원도 인제군(麟蹄郡)까지 갔다가 다시 충주, 보은을 거쳐 상주에 이르렀다.

상주 청계사(淸溪寺)라는 절에서 유숙하던 중 꿈속에 나타난 최시형이 “가까운 곳에 있을 터이니 며칠 후에 만나자”라고 말하였다.³¹ 드디어 8월 8일에 이팔홍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최시형을 만났는데,³² “어젯밤 꿈에 너를 보았기에 지금 한참 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네가 왔구나”라고 하며 기뻐하였다.³³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다”는 말씀을 비롯하여 이루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또한 “머잖아 수만 호(戶)에 포덕(布德)할 것이니 자주 만나는 게

30 『李豐菴公實行錄』, “第二七日夜에跪坐於淸水壇下런니忽然白首二老人이來호야……以細字로滿幅書之호야呼而授之曰此는 名簿也니汝當急急教訓하라.”

31 『李豐菴公實行錄』, “至尙州淸溪寺호야留宿一夜런니非夢間에海月先生이來어늘喜而問候호니旋即發行이어시늘拜問曰向於何處所잇가答曰方向近處호니數日後에相逢호조호시고遂行호시니.”

32 『李豐菴公實行錄』, “次次訪之호야察其形便이런니適有後面俠傍에男子之音聲호야聞於外어늘不問主人호고直入開門호니海月先生이在坐라見而喜之호야進而拜謁호니此家は李八鴻家요時은八月三日이러라.”

33 『李豐菴公實行錄』, “又曰吾昨夜夢中에見汝故로方今說夢而待汝런니汝適來호니喜何可量호야호시고.”

좋겠다.” 하는 말씀에 따라, 이후 매월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이에 대해 찬술자는, “갑오년의 난리를 거친 뒤 호남의 도인(道人)들이 길을 잃고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할 즈음에 오직 이병준만이 성력(誠力)으로 선생님을 찾아 연원(淵源)의 길을 열었으니 우리 도(道)의 확장 이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³⁴라고 평가하였다.

10월 19일 이후에는 은치(隱峙)에 있는 최인선(崔仁善)의 집에서, 경기도 음죽(陰竹) 수통리(水通里)에 있는 손병희의 집에서, 몇 달 후에는 법소(法所)에서 최시형을 만나보았다. 법소에서 배알할 때, “전라도의 일은 모두 너에게 맡길 터이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피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나중에 또 배알할 때는 “의암(義菴), 송암(松菴), 구암(龜菴)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천하의 어떤 사람들도 이들을 꺾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장(主張)이 되어야 할 것이다.”³⁵는 말도 하였다.

이 만남 후로 지목이 심해져서 최시형은 매년 두세 차례씩 옮겨다녔다. 1898년 4월 4일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³⁶ 행사를 위해 원주 원소동(元素洞)에서 최시형을 만났으나, “이제부터 내가 천하를 유람하러 한다. 이번 기념(記念)은 혼자서 거행할 생각이니 너희들은 각자 모모(某某) 근처에 가서 예식(禮式)을 거행하고 돌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이것이 최시

34 『李豐菴公實行錄』, “甲午年經亂之後湖南道人이失路하여莫知所向之際에獨李炳春이以誠力으로訪師하여開淵源之路하여吾道之擴張이自此而始矣라.”

35 『李豐菴公實行錄』, “又曰義菴松菴龜菴三人이合心則天下之人이屈之不得이요撓之不得이리니汝等三人中에又有一主張이라야乃可也라.”

36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 : 동학이나 천도교 신자들에게 '4월 5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포덕 1년, 즉 1860년 4월 5일에 교조 최제우가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無極大道)인 천도(天道)를 받은 날이라 하여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로 정하고 기념한다.

형을 마지막으로 봉면하여 받은 분부였다.

며칠 후 옥천에 도착했을 때 최시형의 피체 소식을 들었고, 충남 노성군(魯城郡) 초포(草浦)에 이르러서 최시형이 6월 2일에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전해주던 김여중(金汝仲)이 “그 영감의 소식은 고사하고 동학 하는 사람들을 필경 모조리 죽일 것이니 즉시 도망가시오.³⁷⁾”라고 말하던 태도나, 동행 중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약간의 희망도 없으므로 돌아가는 게 좋겠소.³⁸⁾”라며 떠나던 모습에서 당시 동학도들의 갈등과 절망을 짐작할 만하다.

4)의암 손병희를 찾아서

동학을 비판하며 떠나간 사람들과 작별하고서 이병춘은 이제 의암 손병희(義菴孫秉熙)를 찾으러 나선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맹세하기를, “의암 선생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집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였다. 초포촌을 출발하여 노성을 대천(大川)을 건너고, 경천(敬天) 지역을 거쳐 금강을 건넌 뒤, 금의읍(金義邑)에 이르러 안성(安城)을 향해 가다가 다시 영남(嶺南) 지방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방방곡곡을 걷고 또 걷다가 두 갈래 길이 보이면, 마음속으로 “원컨대 의암 선생을 만나게 해주소서.” 하고서 심신(心神)이 향하는 길로 나아갔다.

몇 달 만에 강원도 춘천군(春川郡)에 이르렀다가 다시 지평(砥平) 대왕리(大旺里)로 향하였다. 궁벽진 산골짜기에 두세 가구가 촌락을 이루고

37 『李澧菴公實行錄』, “汝仲曰關令監之安否는故舍호고東學之人은畢竟盡殺호리니勿問而即逃去호다.”

38 『李澧菴公實行錄』, “翌日에許善이謂李日吾日今則更無餘望이니不如回程이니若空然歸去면如此指目を難以避身호리니若干所持之錢으로爲行商之樣이無妨호니.”

있길래 집집마다 사람마다 모두 뒤져보고 물어보리라 다짐하였다. 그렇게 무작정 들어간 집에서 정암(靜菴)과 의암을 만나게 되었다. 의암이 기뻐하며 “어떻게 도(道)의 이치를 알아서 나를 찾느라 수고하였느냐?”고 물었다.³⁹⁾

이병춘이 대답하기를, “대신사(大神師)께서는 자신을 천황씨(天皇氏)에 비유하셨습니다. 만약 대신사가 천황씨라면 해월 신사께서 지황씨(地皇氏)인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 두 신사님들은 하늘과 땅이요, …… 의암 선생님이 인황씨(人皇氏)라고 생각합니다.”⁴⁰⁾ 하고 일어나 절하고 꿇어앉았다. 이 말을 들은 의암은 ‘천지인(天地人)’을 언급한 문자를 꺼내어 이병춘에게 주면서 윤표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최시형의 사망 후 지목이 크게 일어날 것이니 절대 집에 있지 말고 3개월 동안 피해 있으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다시 만날 날을 1898년 11월 26일로 정하고서, 고향 쪽으로 내려온 이병춘은 각처의 두목들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순창 선암사(仙菴寺)로 도피해 있었는데, 그때 절에 있던 사람들 중 50~60명이 모두 입도하였다. 약속된 날짜에 다시 지평으로 갔으나, 정암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없었다. 어디로 향할지 막막하던 중에 누군가 전해준 노정기(路程記)대로 가다가 수원 동자포(童子浦)를 건너 대강진(大江津)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바람과 폭풍우를 무릅쓰고 가려는데, 갑자기 일어난 대풍(大風)이 이병춘을 휘감아다가 안전한 곳으로 내려다 놓았다. 그 직후 엄청난 규

39 『李豐菴公實行錄』, “先生曰海月神師賓天之後에何以知道之理而訪我를如此其勞苦耶아.”

40 『李豐菴公實行錄』, “答曰大神師는以天皇氏로自比하시니若大神師之爲天皇氏하시면海月神師之爲地皇氏는自然之理也라……兩神師爲天地요……小子之意는以義菴先生으로爲人皇氏也라.”

모의 해일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강변의 집들은 모두 휩쓸려 사라졌다. 며칠 만에 도착한 당진 묘동도(妙洞島)에 의암은 송암과 함께 있었다.

당진 묘동도에 머무는 동안 의암이 말하기를, “해월 신사께서 빈천(賓天)하신 후 가장 먼저 나를 찾은 사람은 이병춘이다. 그 다음으로 춘암(春菴) 박인호(朴寅浩)가 사람을 시켜 나를 찾았다. 이 사람들은 ‘신인(信人)’이라고 할 만하다. 나는 이제 외국에 나가 유람할 것이고 조선의 일은 모두 박인호, 이병춘 두 사람에게 맡기니, 너희 두 사람이 상의하여 일을 보도록 하라.”⁴¹ 하였다. 1898년 12월 21일에 의암과 함께 길을 떠나 덕산(德山)을 지나 공주 내정리(內亭里) 조보경의 집에 있던 박인호를 찾았으나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하였다. 그곳에서 의암과 헤어졌는데, 이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자주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1899년 6월 2일에 해월 신사의 소상(小祥)에 참여하고, 12월 12일 대사(大師) 어머님의 상사(喪事) 때 손병희와 함께 염습(殮襲)하여 장사를 지냈다. 1900년 6월 20일 무렵 손병희의 집에서 구암, 송암, 인암 등이 모여 손병희를 주장으로 추대하고 도중규칙(道中規則)을 정하였다.⁴² 1900년 7월에 풍기군(豐基郡) 의암 댁에서 설법예식(說法禮式)을 행했는데, 가장 먼저 예식을 거행한 사람은 김연국이었고, 그 다음 차례는 박

41 『李豐菴公實行錄』, “先生이曰海月神師賓天之後砥平郡吾之潛踪隱居時戊戌七月日에訪我者는最先에李炳春이以躬訪來호고其次는朴寅浩春菴이亦使人訪之호니可謂信人也로다然이노吾當遊覽於外國호리니朝鮮之事는全付於朴寅浩李炳春호노니汝等兩人相議看事하라.”

42 『李豐菴公實行錄』, “庚子年六月念間에又往先生宅호니……龜菴松菴이皆曰吾兩人이今日同盟호니此後에豈有違約之理乎아若違約이면不免天罰호리니勿憂焉호소서호고遂定道中規則하다.”

인호 등, 또 그 다음 차례는 이병춘 등이었다.⁴³

1901년에 의암이 일본에서 서신을 보내 말씀하시기를, “전라도 교인(敎人)들은 모두 인암(仁菴) 홍병기(洪秉箕)를 따르라.” 하시기에 분부를 받들어 행하였다.⁴⁴

5) 갑진개화운동과 그 이후

1904년 5월에 의암이 자신의 동생을 보내 개명발달(開明發達)을 강조하며 단발(斷髮)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서신을 통해, 8월 말에 진보회(進步會)로 이름을 바꾸고 단발을 단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병춘은 충청도와 전라도 교인들을 익산 황등리에 모이도록 하여 갑진개화운동을 지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산군수 박학래, 전라도 관찰사 이승우 등 관변 측에서 진보회를 탄압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서울에서는 진보회 수천 명과 정부 측 군인들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1905년 10월, 일본으로 오라는 손병희의 지시에 따라 이병춘, 구창근 등 5명이 도일하여 약 1개월 동안 일본의 명승처를 유람하였다. 손병희는 12월 그믐에 귀국하였는데, 부산항에 수만 명의 환영 인파가 모여들었다. 또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정거장 곳곳마다 환영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한다. 이병춘은 이에 대해 “우리러 사모하는 정성이 이때처럼 융성한 때가 없었다.”⁴⁵라고 표현하고 있다.

43 『李滢菴公實行錄』, “庚子七月에又往嶺南豐基郡義菴先生宅하야行說法禮式할시最先에使龜菴으로行之하고其次是朴寅浩李鍾勳洪秉箕요又其次是金汝仲嚴柱信李炳春李萬植吳永昌洪箕祚朴德七이行之之後에禮端을燒之런니.”

44 『李滢菴公實行錄』, “辛丑年에先生이在外國하시스送書信曰全羅道敎人은皆相從於仁菴洪秉箕하라하섯거늘奉分付而行之하다.”

45 『李滢菴公實行錄』, “自釜山으로至京城하處處停車場에歡迎敎人이巔于道路하其仰慕之

1906년 1월에 손병희가 서울 다동(茶洞)에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이병춘이 생민동(生民洞)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곁에서 모시게 되었다. 그 후 의암은 ‘교(敎)’와 ‘회(會)’를 분리하여 “천도교(天道敎)”라 하고 중앙총부(中央總部)를 다동에 설립하였다. 이때 이병춘은 공선원(共宣員)과 겸도집(兼都執)의 임명장을 받았다.

1908년 4월 손병희가 순접하기 위해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등과 윤선(輪船)을 타고 와서 군산항에 도착했을 때, 이병춘이 교인 수천여 명을 데리고 군산항으로 가서 전주교구(全州敎區)로 배행하여 왔다. 당시 환영 나온 교인들의 거마(車馬)가 도로에 가득 차서 80~90리에 걸쳤다고 한다.

1914년 4월 2일 오후 5시 25분에 손병희가 천명(天命)을 받들어 반포하고 그것을 베껴서 치성인(致誠人) 72인에게 주었다.⁴⁶

6) 부록 : 새로 정한 4가지 예식(禮式)

이 내용은 마지막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제목에 ‘신정사례(新定四禮)’라 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관혼상제(冠婚喪祭) 관련 의례 규정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기록된 내용에는 혼례식의 거행 순서와 결혼서천문(結婚誓天文) 양식, 상례의 각종 규정과 절차, 제례에 관한 규정

誠이無如此時之盛也리라.”

46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에 의하면, 1914년 4월 2일 손병희(孫秉熙)가 이른바 72인의 두목들을 직접 불러 한 자리에 앉혀놓고서 소위 공동전수심법식(共同傳授心法式)을 거행하였다. 그때 전해준 법문(法文)은 “汝必天爲天者 豈無靈性哉 靈必靈爲靈者 天在何方 汝在何方 求則此也 思則此也 常存不二乎”이다. 손병희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기를, “양 신사(神師)의 심법은 단전밀부(單傳密符, 한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는 것)로 내려왔으나 나는 이제 3백만 교도에게 공동심법을 전수하노니 그대들은 각자 돌아가 또 각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하였다.

등만 있고 관례(冠禮)에 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3가지 의례식 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소요 물품이나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혼례식의 경우 탁자에 올려놓는 청수(淸水),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예물 외에는 어떠한 물품도 제시하지 않았다. 상례에서 상복 입는 기간을 부모상은 105일, 나머지는 49일로 하였으며, 수의(壽衣)는 생전의 의복과 동일하게 하였고, 상여의 화려함 정도는 형편에 따라 조절하도록 하였다. 제례는 당일 오전 7시에 제사를 지내고 1시간 만에 탁자를 치우도록 하였다. 혼례식과 마찬가지로 예탁(禮卓) 위에 여타 음식물은 없고 청수만 올려놓도록 하였다.

3.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

현재 동학 관련 사료는 매우 방대한 분량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혁명 이후 도피 과정의 참상, 갑진개화운동, 천도교로의 전환 등을 모두 겪은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 전체를 기록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성격의 자료로서 오지영의 『동학사』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활용해 온 만큼 내용상의 오류, 과장, 부정확성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가 뒤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절실하던 차에 이번에 공개된 『이풍암공신행록』은 사계의 연구에 요긴하게 쓰일 자료가 될 것이다.

1) 다른 사료에 없는 내용

1893년 충청도에서 보은집회가 열리던 시기에 전라도에서는 원평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보은집회는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원평집회는 이 시기 동학 운동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듯하다. 즉 원평집회는 최제우의 신원을 목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된 보은집회를 척왜양의 기치를 전면으로 내세운 정치적 집회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⁴⁷ 이 같은 관점에서 원평집회에 참여하여 농민군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이후의 운동을 주도해 나간 중심에 전봉준이 위치해 있었다는 내용이 많은 개설서에 자연스럽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전봉준이 원평집회에 참여했음을 직접 증명하는 사료는 그동안 확인된 바가 없다. 당시 전라도의 관찰사나 군수 등 지방관의 보고에 “전라도 동학도 수천 명이 원평에 집결했다”는 언급은 있으나 전봉준의 이름이 보이지는 않는다. 동학교단 측의 기록을 비롯한 여타 자료에도 전봉준의 참여 여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개설서는 ‘동학교단이 주도한 보은집회와 대칭적으로 전라도에서는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했다’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전봉준이 다음 해 고부민란에서 지도자로 떠오른 사실을 소급 적용하여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⁴⁸

47 이현희,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운동 동학농민혁명의 배경분석」, 『동학학보』 8, 2004, 42~44쪽.

48 원평집회 참가자로 확인되는 김봉집(金鳳集)이라는 이름을 전봉준의 가명으로 보고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趙景達,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의 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 1982, 126쪽; 鄭昌烈, 「古阜民亂의 研究」(上), 『韓國史研究』 48·49, 1985, 123쪽 참조.

전봉준의 원평집회 참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사료상의 결락을 메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풍암공신행록』은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

“4월에 다시 충청도 보은군 장내(帳內)에 회집하여 처음으로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였다. 그때 고부군의 전봉준도 전라도 금구군 원평(院坪)에 회집하였는데 내용자가 거의 수만 명에 이르렀고 법령(法令)이 엄정(嚴正)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단체를 이루었다.”⁴⁹

사실 이 사료가 없다 하더라도 ‘전봉준이 원평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서술은 전후 맥락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종합 추정의 결론이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한편 이 사료는 지금까지 김재홍의 『영상일기(嶺上日記)』, 최영년의 『동도문변(東徒問辯)』 등을 토대로 추정했던 원평집회의 회집 인원수를 확인해 주기도 한다.

둘째, 갑오년 후반기 최시형의 동선과 관련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시간적, 공간적 사실들을 세밀하게 복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9월 18일에 휘하 지도자들에게 기포령을 하달했던 최시형이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0월 중순경 전라도로 내려온 최시형은 임실에 은신해 있다가, 우금치 전투 패배 후 임실까지 내려온 손병희와 함께 11월 말에 다시 북상하였다. 이에 대

49 『李澧菴公實行錄』, “四月에更會于忠淸道報恩郡帳內하야始設倡義所하니其時에古阜郡全率準은亦會于全羅道金溝郡院坪이라來應者殆近數萬人이요法令이嚴正하고一心成團矣런니.”

해 기존 연구에서는 최시형이 남쪽으로 내려와 임실군 갈담의 어느 동학 교도의 집에 머물렀다는 정도로 서술하거나,⁵⁰ “10월 13일경 최시형이 임실군의 이병춘 집에서 9일 동안 유숙했다”고 하였다.⁵¹ 이러한 연구들은 아래의 사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13일에 신사가 호남으로 가실 때 임실군 이병춘(李炳春) 집에서 9일을 유숙하시다가 다시 같은 군 오■리(烏■里) 조석휴(趙錫休) 집에 도착하여 계속 머무르시더니 하루는 신사가 말하기를 “내가 다른 기미를 보았나니 도인을 돌려서 갈담시에 와서 보라.” 하시다. 이때에 손병희가 과연 당도하거늘 맞이하여 돌아가 신사가 있는 곳에 찾아뵙게 되니 때는 11월 19일이라.⁵²

위 사료는 ‘최시형이 10월 13일에 호남지역으로 내려왔다’는 것 외에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매우 소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항리(鳥項里)”라는 지명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는 등 사료로서의 한계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풍암공신행록』에는 최시형의 남순(南巡) 일자와 장소 그리고 동행인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0월 13일에 해월 선생님께서 순접(巡接)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원군 내진전방(內眞田坊) 오산리(五山里) 권양수(權陽壽)의 집으로 가서 해월 선생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유숙하였다. 다음날 선생님을 모시고 초장리(草場里)에 있는 권씨네 재실(齋室)로 가서 열흘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때 경기도 도인 김연국(金演局), 강차주(姜次主), 조동한(趙東漢), 김우

50 朴孟洙, 『崔時亨研究：主要活動과 思想을 中心으로』, 한중연 박사논문, 1996, 244쪽.

51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019, 249쪽.

52 『천도교서』, 第二編 海月神師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보(金宇甫), 김우현(金宇賢) 등 8명이 선생님의 가마를 배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임실군 상동서면(上東西面) 조치리(朝峙里)에 8명의 숙소를 정했는데 선생님의 처소와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소와 돼지를 잡아 올리고, 또 ‘차접주(次接主)’ 임명장을 받았다.⁵³

이 기록에 따르면, 최시형은 1894년 10월 13일 김연국, 강차주, 조동한, 김우보, 김우현 등 8명의 호위를 받으며 남원으로 내려왔다. 이병준은 이 소식을 듣고서 ‘남원군 내진전방(內眞田坊) 오산리(五山里)’로 달려가 열흘 동안 최시형을 배종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오산리’라는 마을은 당시에는 남원군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결과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로 변경되었다. 그 오산리에 속해 있는 ‘오메마을’은 임진왜란 직후 권인이라는 인물이 입향한 이래 그 자손들이 뿌리를 내려 안동권씨 집성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 ‘오산리 오메마을’을 방문하면 최시형이 내려왔을 때 숙식을 제공했던 ‘권양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최시형이 열흘 동안 머물렀다는 ‘권씨네 재실’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료들이 연구자들의 작업을 거쳐 풍부한 역사 서술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남원에서 열흘을 보낸 뒤 최시형은 임실 쪽으로 사처(私處)를 옮겼다. 아래 사료에는 최시형이 남원에서 임실로 이동하는 날짜와 경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53 『李滄菴公實行錄』, “十月十三日해월先生主계서巡接次로南下하심을聞고至南原郡內眞田坊五山里權陽壽家하야侍海月先生而留一夜하고翌日에侍先生하고至草場里權氏齋室하야留連十日후시京畿道人에金演局과姜次主와 趙東漢과金宇甫와金宇賢等八人이陪師駕而來라故로定宿所于任實郡上東西面朝峙里하니與師主處所로一嶺之間也라屠牛殺猪하야以奉之하고又承次接主任帖焉하다.”

23일에 선생님의 분부를 받들어 사치를 임실군 옥전면(玉田面) 조항리(鳥項里) 양명선(梁明善)의 집에 정하고 배행(陪行)하였다. …… 권씨네 제각(祭閣)에서 출발하여 오수(槲樹) 상남악리(上南岳里)에 이르러 점심을 올린 후 다시 길을 떠나 임실군 이인면(里仁面) 독점리(篤漸里) 양경보(楊敬甫)네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였다. 다음날 조항리(鳥項里)에 이르렀는데 산이 깊고 마을이 외진 곳이라 은둔해 있기 좋은 지역이었다. 그 마을의 조석휴(趙錫休)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도(道)를 믿는 사람인지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식사를 마련하여 대접하였다.⁵⁴

10월 23일에 이병춘은 최시형을 모시고 권씨네 제각에서 출발하여 오수에서 점심을 먹고 현재의 임실읍 부근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임실군 옥전면(玉田面) 조항리(鳥項里)’에 이르러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머물렀다. ‘조항리’라는 마을은 현재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에 속해 있으며, 우리말로 ‘새목치’라고 불린다.

『천도교임실교사』에 따르면 1873년 3월에 최시형이 새목치 아래 새목터마을에서 장수 도인(長水道人) 김신종(金信鍾)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최제우가 1861년 11월에 남원 은적암에서 포교한 것을 제외하면 전라도에서 동학이 가장 먼저 포교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⁵⁵ 그러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한창 진행

54 『李滄菴公實行錄』, “二十三日에奉先生主分付하야定私處于任實郡玉田面鳥項里梁明善家하고陪行할시 …… 權氏祭閣에發行하야至槲樹上南岳里하야午飯을進하신後에又行至任實郡里仁面篤漸里楊敬甫家하소一夜을留宿하시고翌日에至鳥項里하시니山深洞僻하야可以嘉遯之地也요該里趙錫休는亦信道純實之人也라朝夕支供을以誠進奉矣런니.”

55 이러한 주장은 ‘천도교임실교사’ 이외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서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오지영의 『동학사』를 근거로 하여 전라북도 일대에 동학 교단 차원의 본격적 포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1884년 10월로 보기도 한다(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2014 참조).

되던 시기에 최시형이 와서 머무른 것이 아닌지 심층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이곳에서 최시형과 손병희가 다시 만나서 복상하는 장면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11월 18일에 선생님께서 이병춘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면동이 트기 전에 갈담(葛潭) 시장에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탐지하도록 해라. 조금 전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무수히 보였다.”라고 하였다. 그 분부를 받들어 마을 사람 중 임영택(林永澤), 엄성삼(嚴成三)을 갈담 시장에 보냈는데, 그 당시 날씨가 큰 눈이 내려서 유삼(油衫)을 입고 갔다. 시장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두 사람을 보고 무수히 올려대자 두 사람은 놀라 겁을 먹고 사실대로 고하였다. 말을 타고 있던 대장 하나가 옆에 있다가 재차 그 진위를 묻더니 분부하여 말하기를, “군인들을 모두 구고면(九臯面) 등지로 보내어 그곳에서 유숙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탐지하러 갔던 두 사람과 더불어 동행하여 조항리에 이르렀다. 그 사람은 바로 의암 손병희 선생이었다. 해월 선생이 그를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 그날 양명선(梁明善)네 집에서 의암 선생이 해월 선생을 배종하고서 가마로 구고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경성(京城)의 도인 수만 명을 거느리고 곧바로 무주(茂朱) 등지로 향하였다.⁵⁶

56 『李豐菴公實行錄』, “十一月十八日朝에先生主命李炳春曰曉頭에送人于葛潭市場하야探知消息하러俄者에暫睡런니黑服人이無數見之라하시거늘奉分付하야送村中人林永澤嚴成三하야往葛潭市하니時에天이大雨雪이라着油衫而去런니數萬名軍人이見兩人하고頗頑無數하디兩人이惶怖하야以直言告之하니傍有乘馬大將一員이更問其眞僞하고遂分付曰軍人은皆送之于九臯面等地하야留宿焉하라하고與探知者兩人으로同行하야至鳥項里하니乃義菴孫先生也라海月先生이見而喜之하시고即日의梁明善家에서義菴先生이倍海月先生하시고行駕至九臯하야率京城道人數萬하고即向茂朱等地하야去하시다.”

11월 18일에 이병춘은 바깥 소식을 탐지하기 위해 갈담시장에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심부름꾼들은 시장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을 만나 오히려 그들에게 심문을 당한 뒤 그 대장에게 이끌려 조항리로 돌아왔다. 심부름꾼들을 앞세우고 온 그 대장은 바로 우금치전투 패배 후 임실군 갈담까지 내려온 손병희였다. 심부름꾼들과 함께 조항리로 들어온 손병희는 최시형을 배종하고서 구고면 등지에 주둔시켜 놓았던 수만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무주를 거쳐 북상하였다.⁵⁷ 이병춘의 기록에 11월 '28일에 최시형을 배송'했다고 하였다. 이날은 원평전투가 치러진 날로부터 사흘 뒤이며, 전봉준이 마지막으로 싸웠던 태인전투 다음 날이었다.

위 사료에 따르면, 최시형은 남원 오산리에 내려온 10월 13일부터 손병희와 함께 북상한 11월 28일까지 약 달포 동안 남원, 임실 지역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의 거주지, 관련 인물, 동선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된 『이품암공신행록』을 토대로 정확한 고증을 거쳐 관련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움직였던 노정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답사 코스를 만들어 일반인들의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이병춘 개인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병춘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그가 3·1운동을 계획하고 참여하여 징역 3년을 언도받았고 출옥 후에도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송금하다가 발각되어 다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는 사실이다. 3·1운

57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당시 최시형을 만난 손병희는 겨우 1,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상하던 중 곳곳에서 관병과 민포 등을 만나 여러 차례 위협을 겪다가 결국 충청도 황간, 영동 등지에서 군을 해산하였다고 한다.(오지영 저, 김태웅 역해, 『동학사』, 아카넷, 2024, 404쪽).

동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방증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서술이 적지 않다.⁵⁸

이에 비해 『이풍암공신행록』에는 이병춘의 성장 과정부터 동학농민혁명, 갑진개화운동, 천도교 초기의 활동 등 3·1운동 이전의 행적과 활동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대단히 많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일차적으로 이병춘의 생애 전반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사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병춘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큰 흐름을 비껴가지 않았던 인물 이기에 그의 생애사는 곧 한국 근대사를 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이른바 3암의 갈등 과정에 이병춘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이병춘 개인사를 복원하는 문제뿐 아니라 최시형 사후 동학교단의 주도권의 향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섬세하게 접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료들이 보인다.

구암의 집에 가서 유숙할 때 꿈을 꾸었는데,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고 땅을 유지하던 줄이 끊어졌으며 바닷물이 비등하였고 폭풍이 몰아치더니 큰 홍수가 일어나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집어삼켜 인민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모두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즈음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작란(作亂)을 일으키니 몇 식경 만에 천지가 환하게 밝아지고 비바람이 멈추었는데,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다에서 떠올라 육지로 올라왔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서 보았더니 거북이의 등에 해와 달이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거북이 배 가운데에 5대양 6대주가 완연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홀연히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날은 대신사(大神師)께서 수도(受道)하신 날이다. 오전 4시에 예식을 거행하고 꿈속의 일들을 얘기했더니

58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2019 참조.

사람들이 모두 묵묵히 듣고 있었다. 오직 구암(龜菴)만이 말하기를, “이것은 뭔가 커다란 기미(機微)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였다.⁵⁹

『이풍암공신행록』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정말로 당사자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직설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꿈을 빗자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꿈에 관한 서술의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꾸며낸 이야기이든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위의 꿈 이야기는 최시형의 조난 직전 무렵 이병춘이 구암 김연국을 지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시형 사후에는 이병춘의 입장에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 아래 사료는 이병춘이 최시형 사후 손병희와 상봉했던 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월 신사께서 빈천(賓天)하신 후에 어떻게 도(道)의 이치를 알아서 이같이 수고하고 애를 쓰며 나를 찾았느냐?” 하셨다. 이병춘이 대답하기를, “대신사(大神師)께서는 자신을 천황씨(天皇氏)에 비유하셨습니다. 만약 대신사가 천황씨라면 해월 신사께서 지황씨(地皇氏)인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천지는 만물을 화생(化生)하여 우로(雨露) 속에서 길러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의 주인이 되어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

59 『李豐菴公實行錄』, “至龜菴家하야宿焉할시得一夢하니天柱崩地維折하고海水沸騰하거며風而暴之런니大水懷襄하야人民이不知所向하야皆至於垂死之際에又有一大虎가作亂이런니數食頃에天地明朗하고風雨止息而有一大龜하야自海浮出而登于陸岸이어늘與衆人으로往視之하니龜之背上에日月하야洞徹明朗하고腹中有五洋六州하야完然書之러라忽然覺之하니此日은大神師受道日也라上午四時에行禮式하고說夢中之事하니人皆默默하디獨龜菴이曰此是大機也라하더라.”

므로 두 신사님들은 하늘과 땅이요, 우리 도(道)의 주인은 선생님이 아니라 먼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의암 선생님이 인황씨(人皇氏)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일어나 절하고 꿇어앉았다. 의암 선생께서 바로 그 ‘천지인(天地人)’을 언급한 문자를 꺼내어 이병춘에게 주시면서 말하기를, “요즘 내가 기록한 글이다.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꼭 나눠줘서 유포시킬 뜻이 있었는데, 지금 이병춘이 먼저 와서 말하니 이는 한울님이 지시하신 것이다.” 하셨다.⁶⁰

‘어떻게 도(道)의 이치를 알아서’ 찾아왔느냐는 물음은, 최시형의 도통을 계승할 인물로 김연국, 손천민 등도 있는데 하필 손병희 자신을 찾아왔느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병춘은 ‘천지인(天地人)’의 논리를 내세워 대답하고 있다. 생전에 스스로를 천황씨에 비유했던 최제우가 하늘이라면 그를 계승한 최시형은 지황씨가 되는 것이요, 다음 계승자는 인황씨라는 것이다.⁶¹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병춘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손병희가 인황씨’라 생각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손병희는 자신이 그러한 천지인(天地人)과 관련하여 기록한 것이 있다며 이병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60 『李豐菴公實行錄』, “先生曰海月神師賓天之後에何以知道之理而訪我를如此其勞苦耶아호 시거늘答曰大神師는以天皇氏로自比호시니若大神師之爲天皇氏호시면海月神師之爲地皇氏는自然之理也라天地는化生萬物호야雨露中長養而使人으로爲萬物之主호야任意用之케호느니兩神師爲天地요吾道之主은非先生而誰也오小子之意는以義菴先生으로爲人皇氏也라호고遂起而拜跪호디先生이遂出其天地人所言之文子호야授之曰近日吾所記之書也라若有言此等之人이면必以殷布爲意던니今李炳春이先來言之호니此則天主之所指示也라.”

61 최제우가 스스로를 천황씨(天皇氏)에 비유했다는 것은, 『도원기서(道源記書)』에 보이는 “先生方爲下箸時願左右曰世上謂我天皇氏云云”을 근거로 하는 말인 듯하다.(윤석산 역 주, 『초기 동학의 역사 道源記書』, 신서원, 2000, 83쪽)

위 사료들을 통해 이병춘이 1898년 진후 도통 전수 과정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손병희가 주도권을 장악한 시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로 나아갈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여타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이풍암공실록』에는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 지면이 허락하는 선에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연락이 끊겼던 최시형을 상봉하는 상황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상세한 정보들이 있다.

갑오년의 풍상을 겪은 후 동학교도들은 참살을 당하거나 지목을 피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혹독한 조건을 견뎌내야 했다. 최시형 역시 지목을 피해 여러 곳을 전전하며 동학교도들과의 연락이 끊어져 있었다. 이때 이병춘이 성력(誠力)으로 최시형을 만남으로써 전라도 지역의 교도들이 동학교단과 연결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아래에 제시하는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를 분석하였다.

이때 湖南道人 李炳春이 先生의 去處를 물나 日久月深으로 걱정이 되어 엿지 하면 先生을 한번 만나볼고 하는 마음이 懇切하였섯다. 하루는 李炳春이 길을 써나 先生을 차지러 나섯다. 그러나 압길이 茫然하야 다만 발길 가는 대로 지팡이 가르치는 대로 쫓차 나갈 뿐이엇섯다. 어느날은 慶尙道 尙州 淸溪寺라는 곳에 이르러 잠을 자드니 그날 밤 꿈에 先生을 만나 先生 게신 곳을 무려 아렀다. 꿈을 깨어 生覺한 즉 가장 異常한지라. 그잇튼날 그 附近 山幕을 차저

가다가 마침 조그마한 움집을 만나 門을 열고 主人을 차지니 이곳 先生 계신 곳이라. 李炳春은 것버 先生께 보인대. 先生曰 그대 엇지 이곳에 이르나뇨. 내 어제밤 꿈에 그대를 보았드니 今日에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은 참 神奇한 일 이로다 하더라. 이날로부터 南方道人の 師門相從하는 길이 열니었다.⁶²

이병춘이 최시형의 안위를 걱정하다가 무작정 찾으러 나섰는데, 꿈속에서 만난 선생이 거처를 알려주어 상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사료는 오지영이 사후에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이풍암공실행록』에는 꿈 이야기를 비롯하여 두 사람이 상봉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날짜와 장소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상주(尙州) 청계사(淸溪寺)에 이르러 하룻밤을 유숙하였다. 그날 밤 비몽사몽간에 해월 선생님이 오셨길래 안부를 여쭙었는데 바로 다시 떠나셨다.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가까운 곳으로 가니 며칠 후에 만나자.” 하시고 드디어 떠나셨다. …… 꿈에서 깨어난 후 근처 산중에 두어 집만 있는 촌락이라도 하나하나 찾아가 볼 것이라고 맹세했기에 곧바로 7마장쯤 들어갔더니 네다섯 집이 산을 의지하여 모여 있었다. 사람을 불러 하룻밤을 청했으나, 그 사람이 이병춘의 행색이 이상한 것을 보더니 손님을 재울 방이 없다고 하였다. 차례차례 다른 집을 방문하여 그 형편들을 살피던 중에 마침 어느 집 뒤쪽 골방에서 남자들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들어가 문을 열었더니 해월 선생님이 앉아 계셨다. 선생님을 보자 기뻐하며 달려가 배알하였다. 그 집은 이팔홍(李八鴻)이라는 사

62 오지영, 『동학사(초고본)』 4, 〈海月先生被捉〉 (동학농민혁명재단 사료아카이브).

람의 집이었고, 때는 8월 8일이었다. 해월 선생도 그날 왔다고 하셨다. 악수를 한 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고하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산속을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너를 보았다. 그래서 방금 꿈 이야기를 하고 너를 기다렸더니 마침 네가 왔으니 이 기쁨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하셨다.⁶³

기존 연구에서 이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보면 ‘1895년 후반에 이병춘이 최시형을 만났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거나,⁶⁴ ‘만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896년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⁶⁵ 하지만 이제는 『이풍암공신행록』으로 보완함으로써 미흡했던 사실의 복원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병춘이 최시형을 만난 시기는 정확하게 1895년 8월 8일이며, 장소는 상주 청계사 부근의 이팔홍이라는 인물의 집이었음을 이 자료가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손병희와 김연국의 갈등, 제3대 교주의 도통 전수에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최시형은 생전에 구암, 의암, 송암 등 3인에게 합

63 『李豐菴公實行錄』, “至尙州淸溪寺하야留宿一夜런니非夢間에海月先生이來어늘喜而問候하니旋卽發行이어서늘拜問曰向於何處所잇가答曰方向近處하니數日後에相逢하즈하시고遂行하시니 …… 自夢覺之後로近處山中에雖二三家村落이라도箇箇往尋次로誓心하고直向入七馬場하니有四五人家가依山而在어늘 訪人請一宿하디其人이見其行色之異하고曰無客室이라하거늘次次訪之하야察其形便이런니適有後面俠傍에男子之音聲하야聞於外어늘不問主人하고直入開門하니海月先生이在坐라見而喜之하야進而拜謁하니此家是李八鴻家요時은八月三日이러라先生도今日에來하얏다하시며先生이握手而言曰汝之無故는吾已知之언이와如此山谷에何以尋來耶야又曰吾昨夜夢中에見汝故로方今說夢而待汝런니汝適來하니喜何可量乎야.”

64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2014, 141쪽.

65 조규태, 「동학농민운동 이후 남원 출신 동학인과 천도교인의 활동」, 『동학학보』 33, 2014, 105~107쪽.

심동력(合心同力)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제자들은 끝내 분열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풍암공신행록』은 기존의 사료들을 보완해 줄 다수의 사실들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소개하여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1899년 6월 2일 해월의 소상(小祥)에 김연국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 해 12월에 대사(大師) 모친의 상사(喪事)에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손병희는 이병춘을 데리고 염습을 하여 장례를 치렀다. 1900년 6월 20일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손병희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김연국을 비난하였다. 이때 김연국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손병희는, “구암, 의암, 송암 등 3인이 합심하되 한 사람이 주장을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해월의 교시를 상기시키며 주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연국과 손천민이, “의암이 해월 선생의 전발(傳鉢)을 받았으니 의암으로 하여금 주장을 삼으면 다른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도중규칙(道中規則)을 정하였다는 것이다.⁶⁶

1900년 7월에는 풍기군(豐基郡) 손병희의 집에서 설법예식(說法禮式)을 행하였다. 이때 손병희는 김연국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예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그 다음 차례는 박인호, 이종훈, 홍병기였고, 또 그 다음 차례는 김여중, 엄주신, 이병춘, 이만식, 오영창, 홍기조, 박덕칠 등이었다

66 『李豐菴公實行錄』, “庚子年六月念間에又往先生宅하니龜菴松菴仁菴諸丈이皆來어늘先生이對龜菴言曰俗談에云三年不弔則皆阻面이라하니在他頭目이라도尙不然이어든況龜菴乎아海月神師仙化後에三年을不弔하니於心에安乎아於禮에當乎아因大責之호니龜菴이默默無言이라又曰丁酉十二月에海月神師召我等三人而詔之曰汝等이合心看事호되其中에有一主張이라야乃可也라호셨시니……今日會席에擴定其主張이如何호신디龜菴松菴이乃言曰義菴이受海月先生之傳鉢호니使義菴으로爲主張焉즉無二辭호리라……吾兩人이今日同盟호니此後에豈有違約之理乎아若違約이면不免天罰호리니勿憂焉호소서호고遂定道中規則하다.”

고 한다.⁶⁷

오지영의 『동학사』나 『천도교창건사』의 기록은 의암이 1897년경 구암·의암·송암 삼두체제의 주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구암 측의 교서인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釋史)』와 송암에 대해 우호적으로 서술한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에는 1900년 3월 6일(음)에 손병희가 설법식을 행하고 스스로 대도주(大道主)에 올라 대두령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다고 쓰여 있다.⁶⁸ 이러한 자료들에 더하여 『이품암공신행록』을 세밀히 분석한다면 최시형 사후 이른바 3암이 갈등하게 된 원인, 시기, 결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른바 갑진개화운동이 호남, 호서 지역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최시형 사후 동학의 주도권을 장악한 손병희는 1904년 문명개화를 지향하며 구체적 실천 항목으로 흑의 착용과 단발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한 연구는, ‘12월 4일경에 이병춘이 구창근 등과 함께 익산 황등시장에서 개회하였다’는 정도로 간략히 서술하였다.⁶⁹ 그러나 『이품암공신행록』에는 갑진개화운동이 시작된 배경, 과정, 시기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 체류 중인 손병희가 1904년 5월 자신의 동생을 보내어 향후 문

67 『李禮菴公實行錄』, “庚子七月에又往嶺南豐基郡義菴先生宅하야行說法禮式할시最先에使龜菴으로行之호고其次是朴寅浩李鍾勳洪秉箕요又其次是金汝仲嚴柱信李炳春李萬植吳永昌洪箕祚朴德七이行之後에禮端을燒之런니.”

68 조규태, 『『동학사』의 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교단의 동향과 분화에 대한 서술』, 『동학학보』37, 2015 참조.

69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2014, 143~144쪽.

명개화로의 노선을 정했음을 알렸고, 이에 따라 이병춘, 박인호 등 교단의 주요 인물들은 서울에서 회합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⁷⁰ 손병희는 다시 서신을 통해 '8월 그믐에 교인(敎人)들이 일제히 모여 진보회(進步會)로 이름을 바꾸고 한결같은 모양으로 단발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충청도와 전라도의 교인들은 이병춘이 지휘하여 주관하라'고 지시했다.⁷¹ 이에 이병춘은 즉각 익산의 황등리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서, 장남선(張南善)을 임시회장으로 선정하고 개회 취지(開會趣旨)를 설명한 뒤 회원들이 각자 자의(自意)에 따라 단발하게 하였다. 이들은 9월 5일에 은진군 강경포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단발한 회원이 15,000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⁷²

갑진개화운동은 동학의 주류가 문명개화 노선으로의 방향 전환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직접적인 정치 투쟁을 통해 동학의 합법화와 함께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 민회 운동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⁷³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70년대부터 전국적 전개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각 지역에서의 전개 양상을 고찰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⁷⁴ 『이풍암공신행록』의 경우 호남, 호서 지역뿐 아니라

70 『李豐菴公實行錄』, “布德四十五年甲辰五月에先生이親送其弟氏而秘密通奇曰今日之運은不如開明發達이니開明이莫善乎斷髮이라호시거늘又往京城호야與朴寅浩李鍾勳洪秉箕廉昌植吳永昌金知煉等十餘人으로相議曰今以開明主旨로目的을定則必以削髮로爲主意호리니不如同往從容處호야相約이可也라.”

71 『李豐菴公實行錄』, “上書于先生主前이런니回答에云호되今年八月晦日에十三部敎人이一齊會集호야以進步會로爲名호고一樣斷髮之敎가有호고又曰全羅道忠淸道之敎人는使李炳春으로指揮主之라호섯거늘.”

72 『李豐菴公實行錄』, “數日를留于黃登里라가九月五日에發程호야至江景浦호니斷髮會員이至一萬五千餘人이라.”

73 김정인,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동학학보』 7, 2004 참조.

74 성지운, 「충청남도 논산 지역 동학의 사상적 계승과 연속성에 관한 연구 -동학농민혁

더불어 전국적 차원의 갑진개화운동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갑진개화운동에 대해 관변 측에서 자행했던 탄압의 실상과 그에 대한 진보회 측의 해결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갑진개화운동은 단기간에 수많은 도인들의 호응을 얻어냈고, 강경포 경찰서장처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관리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다.⁷⁵ 그러나 여산군수 박학래, 전라도 관찰사 이승우 등이 병정들을 동원하여 도인들을 구타, 체포하는 등 적지 않은 탄압이 자행되었다.⁷⁶ 전자는 이 병준 등이 내부대신에게 항의하여 해결하였고, 후자는 인암 홍병기, 이 용구 등과 함께 일본 헌병의 힘을 빌려 해결하였다. 1904년 11월에는 새 대결문 앞에서 진보회 수천 명과 정부측 군인들이 격렬하게 충돌하여 회원 중에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⁷⁷ 이 문제는 영국인 목사의 도움을 받는 한편 교단 대표들을 파견하여 정부 측과 협상함으로써

명과 갑진개화혁신운동-』, 『역사와 교육』 40, 2025, 69~72쪽.

75 『李豊菴公實行錄』, “李炳春金鳳得李祥宇三人이訪警察署하야說明其事實하디署長이無數致賀하더라.”

76 『李豊菴公實行錄』, “九月七日到至論山浦하야演說後에定處所而宿焉이런니翌日에礪山郡守朴鶴來가率砲軍四五十名하고至會所하야左衝右突하니砲聲이震動天地라突入各館하야一邊奪取財物하고一邊捕縛道人……十月에江景浦會員數萬人이入于全州府하야視務런니府中吏屬輩鄭昌權이符同其時郡守權直相과觀察使李勝宇와參領白啓信하야作亂而謀害會員할시以杖以石으로無數亂打하고兵丁이與巡查로以兵器威脅.”

77 『李豊菴公實行錄』, “其年十一月에上京視務런니政府之人이募軍於漢江等地居民有力者數千人하야在京內進步會員를一時盡滅之意로爲計어늘會員等이皆驚動하야晝夜로呼哭於鐘路上日政府之人이欲殺我等而 二千萬人口를亦盡殺焉이라하니一日에政府之人이使軍人으로討滅京城事務所로爲言故로會員이一齊來集者數千人이라直向新大關門外하니四方軍兵이一時蜂起하야登于民屋上하야以尾石으로投而擊之하니會員之死者傷者가不可勝數라.”

해결하였고, 이후 진보회가 차차 융성해졌다고 한다.⁷⁸

갑진개화운동에 대해 처음에는 관망하고 있던 정부는 동학이 재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결국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대해 동학 측에서도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당시 관변 측의 탄압과 동학도들의 저항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이풍암공신행록』은 갑진개화운동의 양상을 보다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 자료가 될 것이다.

3) 인물사적 서사를 제공하는 내용

『이풍암공신행록』에는 이병춘의 성장 과정, 동학 입도 후의 신비 체험, 농민혁명 시기의 고난, 혁명 실패 후 도피 생활, 갑진개화운동 과정에 맞서야 했던 관의 탄압 등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다채로운 일화들이 매우 많이 서술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2차 봉기 후 남원, 임실에 머물던 최시형이 떠나고 나서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산속에서 솔잎과 나무껍질로 연명했던 이병춘은 지목이 잠시 가라앉자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8일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 중 혹시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이병춘을 보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맹수를 보는 듯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 이웃에 사는 전충실(全忠實) 씨가 와서 말하기를, “지목이 아직까지도 말끔하게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으니, 행상(行商)의 모습으로 바닷가 포구

78 『李豐菴公實行錄』, “英國牧師가來而救之故로幸而得免其死-其間困狀을何可盡言耶아其後에會員等이又送總代數十人于政府하야質問之하니不得已하야政府之人이許之日盡從進歩會員之所請이라하던니其後에皆爲實施故로會員이皆安心하야進歩會가次次隆盛焉이리라.”

(浦口) 등을 유람하다 돌아오는 게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돈 10냥을 주길래 받았다. 아내와 약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아무런 까닭 없이 떠나면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이병춘이 또 동학 때문에 떠났구나’라고 생각할 것이오. 그러나 우리 부부가 크게 싸운 뒤 떠나면 의심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오?” 하였다. 아내가, “웁습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거짓으로 화가 난 듯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때리고 깨지지 않을 만한 살림 도구를 내던지기도 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그러자 이웃의 부인네들이 와서 싸움을 말렸다. 이병춘은 행장을 꾸리면서 말하기를, “내 동생은 보부상들의 난리에 죽었고 집안 살림은 민포 놈들에게 다 빼앗겼으니 부부가 서로 화합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나가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였다. 그날 즉시 출발하니, 바로 을미년(乙未年, 1895) 3월 9일이다.⁷⁹⁾

동학과 관련된 당대인들의 심리와 갈등, 그리고 그것을 헤쳐 나가는 양상 등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동안 구조 중심의 역사 서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행위자 부재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 속 일화들은 그 자체로 일반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이므로, 각

79 『李豐菴公實行錄』, “二十八日始歸家_하니一村之人_이或有來見者_라도畏之_를返如猛獸也_라……隣居全忠實氏가來言曰指目尙今快未全消_하니不如以商賈次로往于海濱浦口_하야遊覽而歸가無妨_{이라}고以錢十兩으로授之어늘受之_고與妻相約曰吾欲入山_이若無故而去則村人_이必也又爲東學去矣_라하리니不如夫妻相關後出走則無疑_하리니何如오妻曰諾다_하거늘遂大聲佯怒_하야與處相拍_하며或擲以不破之器_하야如狂人之樣_하니比隣婦人_이來_하야固止之어늘遂理行裝_고爲言曰吾弟는已死於負商之亂_고家産는盡奪於民包之輩_하니夫婦相和合而安心_이當然_이거늘今乃不安吾心_하니不如出走_라고即日發行_하니乙未年三月初九日也_라.”

급 학교의 교육자료나 박물관 등의 전시자료로서 가치가 적지 않아 보인다.

4. 맺음말

여느 종교인과 마찬가지로 이병춘의 생애는 동학에 입도하기 전과 입도한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도하기 전 그는 효(孝)란 무엇인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태어난 듯한 삶을 살았고, 입도 후에는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찬 삶을 살았다. 동학에 입도한 후 한울님, 천사(天師)님이 나 해월, 의암 등을 향해 표출된 종교적 열정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효심의 유비(類比)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과정의 효행과 입도 후의 종교적 열정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원칙은 '성력(誠力)'이라 할 수 있다.

이병춘의 성장 과정은 역사 속의 어느 효자에게도 뒤지지 않는 효(孝)의 실천 과정이었다. 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어서 형제들을 잃은 뒤 가세가 몰락한 악조건에서 그는 한결같이 어머니를 중심에 두고 살아왔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얼어붙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구해오는가 하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 마을에서 들깨를 얻어 오기도 하고, 손가락의 피를 흘려 죽어가는 어머니를 소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성력의 토대가 되었다.

1891년 이병춘은 최시형으로부터 수심정기(守心正氣), 천인상합(天人相合)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후 마음을 수련(修練)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여러 차례 산에 올라 치성(致誠)을 올리면서 광제창생(廣濟蒼生) 및

포덕천하(布德天下)의 의지를 베갯머리에 새겨두고 시종일관하였다. 그러한 성력(誠力)을 끝까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이병준은 살아남았다. 또한 도피 생활 중 이던 최시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최시형 사후에 가장 먼저 손병희를 찾아낸 것도 창도(昌道)의 날을 확신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갑진개화운동 과정에서 관변 측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항할 때도 그의 성력(誠力)은 찾아들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이병준은 성력으로 일관하며 동학운동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이풍암공신행록』은 1880년대 동학의 확산, 1890년대 동학농민혁명과 도피 생활, 동학의 재건, 1900년대 갑진개화운동 및 천도교로 전환 등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병준이 동학교단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실천했던 활동상을 담고 있으므로, 당시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군 주력과 최시형의 동학교단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사료적 가치를 ‘다른 사료에 없는 내용, 여타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인물사적 서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봉준의 원평집회 참여’ 관련 사료의 예시에서 보듯이, 이러한 사료들을 이용하여 그동안 추정적 서술에 그쳤던 사실(史實)들을 확정적으로 복원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갑진개화운동’ 관련 사료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타 사료와 교차 검증을 통해 근대사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이병준이 경험한 종교상의 신비 체험이나 당시의 상황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해주는 일화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각급 학교의 교육자료나 박물관 등의 전시자료

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풍암공신행록』에 담긴 생생한 내용들을 보다 많이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다 보니, 제1장에서 핵심만 요령 있게 정리해 내지 못한 채 장황한 나열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제2장에서는 과묵한 필자의 관견으로 인해 『이풍암공신행록』의 사료적 가치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감이 적지 않다. 향후 내공 깊은 동학 및 천도교 연구자들이 유용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건져 올리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자료

- 『동학사(초고본)』 (동학농민혁명재단 사료아카이브).
- 『이풍암공신행록(李豐菴公實行錄)』 (『동학농민혁명연구』 제3호 所收 필사본).
- 『천도교서』 (동학농민혁명재단 사료아카이브).

단행본

- 오지영, 『동학사-새 세상을 꿈꾼 민중을 기록하다』, 김태웅 역해, 아카넷, 2024.
- 윤석산 역주, 『초기 동학의 역사 道源記書』, 신서원, 2000.
- 이이화,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 이이화,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1~3, 교유서가, 2020.
- 전주시사편찬위원회 편, 『全州市史』, 1986.

논문

- 고병철, 「천도교 의례의 변용과 특성: 시일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4,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김정인,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동학학보』 7, 동학학회, 2004.
- 朴孟洙, 「崔時亨研究: 主要活動과 思想을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 배향섭,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역사학회, 2017.
- 배향섭, 「동학에서 보이는 ‘전통’과 새로운 사유-유학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0, 민족문화연구소, 2018.
-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역사와교육학회, 2014.
- 성주현, 「동학·천도교와 손병희의 이상과 현실」, 『시민인문학』 37,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 성지운, 「충청남도 논산 지역 동학의 사상적 계승과 연속성에 관한 연구-동학농민혁명과 갑진개화혁신운동-」, 『역사와 교육』 40, 역사와교육학회, 2025.

- 이현희, 「19세기 한국사회와 교조신원운동-동학농민혁명의 배경분석-」, 『동학학보』 8, 동학학회, 2004.
- 임태홍, 「동학교단에서 종교체험의 의미-신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4, 한국철학사연구회, 2020.
-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생애와 독립운동」, 『동학학보』 53, 동학학회, 2019.
- 鄭昌烈, 「古阜民亂의 研究」(上), 『韓國史研究』 48·49, 한국사연구회, 1985.
- 조규태, 「동학농민운동 이후 남원 출신 동학인과 천도교인의 활동」, 『동학학보』 33, 동학학회, 2014.
- 조규태, 「『동학사』의 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교단의 동향과 분화에 대한 서술」, 『동학학보』 37, 동학학회, 2015.
- 趙景達, 「東學農民運動과 甲午農民戰爭의 歷史的 性格」,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 1982.
-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 연구』 1~5, 역사비평사, 1991~2003.

종합 토론

좌 장: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토론자: 윤상원 전북대학교 교수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진현 경북대학교 박사수료

이병규 전북사회회장

좌장 김양식

오늘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기록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다른 학술대회 때보다 새로운 사실이 많이 규명이 되어 보다 생산적인 학술대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창의 『취의록』과 『거의록』은 이미 많이 알려진 세계기록유산이지만 주제 발표 『갑오일기』는 2023년에 발굴된 자료이고, 『이품암공실행록』은 2024년도에 발굴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최초로 학술대회에 내용이 보고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행은 무조건 6시까지의 마감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원 전북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2주제 토론을 맡은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님이십니다. 3주제의 토론을 맡은 송진현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4주제 토론을 맡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이신데, 오늘은 전북사학회장 자격으로 토론을 맡은 이병규 회장님이십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윤상원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5분입니다.

토론자 윤상원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북대 사학과 윤상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문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만 줄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발표문의 핵심은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보군이 정당화의 논리로 의리론을 끌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탄지를 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표문의 제목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딱히 어울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어진 제목이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그런 것이겠지만요. 발표를 토대로 논문을 쓸 때에는 제목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취의록과 거의록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로서 의리론’인지요? 그 외에 끌어낼 수 있는 다른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필자가 그 주제를 끌어내서 발표문을 쓴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자들은 다 아는 얘기라서 안 쓰신 거 같습니다만, 『취의록』과 『거의록』에 대한 자료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보군 측의 기록이란 내용만 있을 뿐,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료 비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료들은 분명 반동학 세력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죠. 또한 우금치전투 이후 전세가 역전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의’했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유생으로 구성된 병사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민보군이라도 유생들만으로 부대가 조직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만, 만일 “유생으로만 구성”됐다면 굳이 민보군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노와 소작농민들이 부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문외한으로서 ‘사료 비판’을 거론한 이유는 「취의통문」 때문입니다. 「취의통문」은 본문에 1894년 9월 9일에 작성됐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아직 동학농민군이 막강한 위세를 떨치던 시기입니다. 2차 봉기 전인지 후인지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후라고 하더라도 과연 유생들이 이렇게 강경한 어조의 ‘통문’을 쓸 수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동학농민군에게 발각되더라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취의통문」에 “지금 갑자기 관의 명령에 근거해 먼저 세상의 향로, 향대부와 이웃 읍의 여러 군자들에게 이서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발표자는 2장에서 현감 윤석진이 11월 15일에 올라온 김영철 등의 의병의 청원을 만류했고, 11월 25일에야 강영중 등에게 밀령을 전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앞에 「취의통문」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창의 그 유생들이 그렇게 강단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개개의 유생들이 충의로써 서로 목숨을 맡기니”라는 글은 우금치전투가 끝난 뒤에 쓴 거의사실에 실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의를 생각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군자의 무리”라면, 왜 동학농민군이 고창을 넘어 전주까지 점령하는 동안에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 유생들은 자신들의 말처럼 그렇게 ‘의(義)’로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태반이 백면서생인지라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했던 윤석진의 말이 그 유생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동학농민군이 기세가 높을 때는 숨죽이고 있었고, 우금치전투가 끝나자 부리나케 달려 나와 민보군을 결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취의통문」이 9월 9일에 작성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취의록』과 『거의록』 전체에 대한 ‘사료 비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9월 9일날 작성된 것이 맞다면, 저는 그 유생들이 정말로 ‘의(義)’로운 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유생들이 정당화 논리로 내세운 ‘의리론’ 내용을 재밋게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론에서는 수궁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는 민보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이러한 사회경제적 사상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었고, 사상적으로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조선 사회에 대한 구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상적인 배경’을 동등하게 위치지우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상적인 배경’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상적인 배경’이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대 유생들을 너무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지사 조금 더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같이 살펴보는 작업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양비론이나 양시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보군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민보군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발표자는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행동들”은 “이러한 정당화 과정에서 나온 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단지 ‘의(義)’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역사회에 주입”시키려고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코 잊지 않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심하게 나갔습니다. 혹자는 ‘혁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수적 피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론 모든 ‘혁명’은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무고한 희생’은 ‘혁명’의 과정에서보다 ‘반혁명’의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였습니다. ‘피’를 먹고 자라는 괴물은 ‘혁명’이 아니라 ‘반혁명’입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유생과 그들이 조직한 민보군이 ‘반혁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했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김양식

감사합니다. 세 가지 주제의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 주제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취의록』과 『거의록』에 대한 어떤 사료 비판의 문제, 세 번째는 보수층의 의리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곡을 찌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발표자 정경민

일단 먼저 이렇게 좋은 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실 역사 논문을 쓸 때 연구사 정리와 사료 소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이 지역 신문에까지도 소개가 될 정도였고, 또 뉴스에도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온 너무 유명한 자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거의록』과 『취의록』 속에서 살펴본 주제인 민보군의 정당화 시도

로서의 의리론. 사실 아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서 학술대회 홍보물을 보셨을 겁니다. 『취의록』과 『거의록』이 마침 있었죠. 이들의 이름 자체가 거의, 취의입니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에서 행동이라든지 이런 사실 관계들을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더 나아가 그들의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고요. 이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천착을 했고 기록물이 만들어진 의도 그 다음에 계기, 그 기록물을 작성한 주체들이 내세우자 했던 것들, 기반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세우고자 했던 것들이 『취의록』과 『거의록』, 이름 그대로 의(義)를 중심으로 했던 자신의 정당화 논리를 지역사회에다가 어떻게든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 그들의 의식 세계가 의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들, 그것이 바로 당시 상황에서 당대인들의 그런 의식 구조를 더 볼 수 있는 기반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더 정리를 해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록』 같은 경우는 거의사실, 거의통문, 명단, 전령, 밀령 등등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료들이 『거의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구성하고 있는 개별 사료들을 보면 다 다른 자료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는 1894년 9월 9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정말 9월 9일 작성되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빙하기 어렵다 보니 비판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뒤에 부분과 연결됩니다만 홍덕현감 윤석진이 만날 때를 9월 초순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성되는 부분이 9월 9일 정도에는 작성이 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어느 정도는 추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면 앞에 전주화약이 맺어지기 직전 단계에서 6월 4일과 6월 6일날 전주 성 밖에서 조선군 경군과 동학농민군이 전투를 크게 두 차례 벌이는데, 두 번 다 동학농민군이 패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화약이 체결되었고요. 다시 경복궁이 점령당하면서 재봉기를 했죠, 동학농민군이. 그러면서 전주를 점령하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보수유립층, 지역의 그런 보수층들이 동학농민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 나타난 강영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공격 대상이 되는 그 계층에 속한 인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일단 초반부터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초반에 작성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보군은 유생들로만 구성이 됐는가, 과연. 사실 수성군의 참여 명단은 다 해서 597명 정도가 이제 『취의록』에 적힌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전투 행위에 나서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집단도 아니고 조선 정부도 이들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멋대로 죽일 걸 오히려 걱정하는 우려하는 조선 정부의 통제책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참여하는 거는 같이 쫓아다니면서 지역사회의 이 사람, 이 사람 잡아내는 색출 작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큰 전투력, 군 내에서도 여러 역할이 있는데 전투병과 담당을 하지 않아도 수색 정도에서 정찰 부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의 명령을 받아서 이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식 명령 이런 밀령들을 토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흥덕현감과 논의하는 자리에

서 흥덕현감은 어쨌든 지방관이긴 하지만, 조선 정부의 임명한 정식 관리이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명을 받았다고 해석을 해서 민보군 측 세력이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때 우금치전투 이전까지는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워낙 예봉이 날카롭기 때문에 민보군, (동학농민군의) 반대 세력 쪽에서는 당연히 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봉이 꺾이고 주력 세력이 쇠퇴하게 되면서 가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의(義)롭냐? 솔직히 저는 발표논문을 작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롭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의(義)를 이용한 것이지, 의(義)를 선전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지역사회에 저는 이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식하려고 하고 이거를 갖다가 심어 주려고 했다는 정도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 세력으로 당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힘이 센 기득권 측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선전전을 하고 통문을 돌려가면서 발각될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무릅써 가면서 이걸 돌린다는 거는 오히려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공감에 있는 지역사회를 설득하고자 했던 내지는 공감을 끌어내고자 했던 경쟁을 이 사람들이 결국 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민보군이 예를 들어 일어났을 때, 모였을 때 동네 주민들이 와서 돌을 던지거나 오히려 잡아가면 자기들이 낭패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예방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설득 작업 내지는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들을 시도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선 좀 저도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글을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론과 양

비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미 반동학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 내에 반혁명이라는 성격은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했던 것인데. 이들이 반혁명 세력인 것은 당연한 것이, 오늘날까지 민주주의의 그런 발전이라는 장기사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들은 반동 세력이었고, 이른바 정에 반하는 세력이죠. 근데 우리 정반합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서, 어쨌든 부딪치고 하면서 서로 거친 형태든 의도된 형태든 조정을 거쳐서 하나의 또 다른 정이 나오고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반이 나와서 이렇게 변해 가는 게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한번 서술하고자 했다는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김양식

감사합니다. 『취의록』과 『거의록』은 고창 동학농민혁명사를 분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록물이죠. 『취의록』과 『거의록』을 통해 갑오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고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마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두 자료를 통해서 9월 이후 고창지역 사정을 밝히는 데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수 지배층의 의리론을 분석하는 데 주요한 기록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동학농민군도 의리를 내세워서 봉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생층이 내세운 의리론과 동학농민군이 내세운 의리론은 분명히 균형 있

게 분석이 됐을 때, 당시의 전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유생층이 내세웠던 의(義)와 동학농민군이 내세웠던 의(義)는 분명히 질적인 해석상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의록』과 『거의록』 분석은 아마 고창군 차원에서도 심층적으로 두고두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의록』에 580명의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지역 내에서. 그렇지만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분석이 앞으로 요구되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조재곤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배항섭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5분 이내 짧게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배항섭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배항섭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 발표문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1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0여 년 정도 이후까지 고창 일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변혁운동의 흐름들을 잘 정리해 주신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민주운동을 그냥 동학농민혁명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까지 연결시켜서 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궁금하거나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 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내용이 꽤 됩니다만, 다 읽지는 않고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농민군들이 합의법 구상, 이런 걸 전봉

준이 체포된 다음에 그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준용 세력이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발각이 되는데 그 세력 중에 임진수가 상하원을 만들고자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자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지영의 『동학사』가 가진 자료 비판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홍낙관이 1894년 1월에 고부 백산 봉기에 다수의 천민 부대를 이끌고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산대회는 3월 말경에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1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지영의 『동학사』의 내용에는 심각한 사료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비판을 하지 않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박사논문을 준비할 때는 『동학사』의 내용에 대해 별로 비판 없이 활용했습니다만, 사료 비판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무장포고문」을 마치 백산에서 발표한 것처럼 서술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엄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론문에 다섯 번째로 제시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일어났던 영학당 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 이것은 『대전회통』의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했는데, 1905년의 결세저항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자 조재곤

한 세 가지 정도를, 질문은 다섯 가지고 이제 그 축약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합의법 관련된 공초 문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더 한번 구체화시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용이란 사람은 대원군의 종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큰형의 큰 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과 고종 사이가 벌어지니까는 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폐위시키고 큰손자를 왕으로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 마침 농민군 활동이 일어나니까 농민군의 세력을 동원하려고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여기 나온 임진수의 기록에서 합의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대원군이 밀사가 여러 명인데 자료를 보면 정인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학농민군 출신으로서 대원군의 밀사로 되는 사람으로 알려져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종로에 만인소청을 설치하고, 만인소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한두 사람의 꿈인 것이 아니라 수십만이 함께 하는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준용을 보위한다라고 해서, 이때 우두머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용구, 나중에 친일파가 되죠. 북접의 이용구를 만인소청의 우두머리로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이병휘 공초에서 나오는데, 이런 걸 놓고보면 그 합의한 문제를 수십만 인이 이제 함께하는 것이라든 이런 이제 이보다 구체적인 거는 없고 그래도 저도 좀 추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산봉기 1월... 제가 이제 착각해서 쓴 것입니다. 저도 오지영이 『동학사』에 예전에 한번 쓴 걸 가지고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좀 더 꼼꼼히 보면 배향섭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백산봉기는 실체가 말이 많지만 적어도 한 3월 26일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1월 고부 백

산봉기와는 좀 개연성이 잘 안되는 1월달을 3월 바꾸든지 좀 이 내용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형법대전』과 『대전회통』의 실제 적용 사례의 차
이 용례,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형법대전』은 일본법이고 일본법을 거의 그대로 한국에 적용시킨 것이
고, 『대전회통』은 중국법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대전회통』은 『대명률』을
적용시킨 것인데 『대전회통』은 거의 『대명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차이는 뭐냐면 그래도 『대명률』과 또 『대전회통』 차이가 있는 것이
동학농민군들은 『대전회통』으로 처형합니다. 전봉준이나 손화중이나 이
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전회통』 추단조인데, 그것도 『대명률』에서 과생
된 거지만. 근데 동학교도들 이룰테면 최시형이라든지 그 이전에 최재우
같은 경우는 『대명률』 금지사무사술조라고 해서 향불을 파우고 이런 표
현을 쓰는데 이런 처형을 해서 동학교도와 동학농민군의 처벌 사유가
분명히 있고, 또 갑오개혁 이후에는 같은 『대명률』과 『대전회통』을 적용
하더라도 장형이 태형으로 바뀌고 유배형이 금고형으로 바뀝니다. 옛날
에 유배형 보냈던 것을 감방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참형을 교수형으로
바꾸는 이게 갑오개혁의 차이고요.

『형법대전』의 경우는 190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05년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결세 저항운동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
다, 이 지역에서는. 그 이후에는 『대명률』이라든지 『대전회통』의 그 법률
적용이 없어지고 다 『형법대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민란을 일
으켰다는 ‘민요죄’라든지 민요에 가담했다고 하는 ‘민요 수종죄’라고 하
는데 그거는 아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법률의 좀 난맥성이
랄까, 이런 것들이 적어도 1910년까지는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

는 농민군의 활동이 중요하지만 근대법이 적용되는 중세법과 근대법의 충돌 같은 거, 이런 것도 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좌장 김양식

저 간단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까요? 영학당 운동을 일으킨 게 이화삼이잖아요. 이화삼이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에 1898년에 참석을 했고, 그 해 12월에 고창에 내려와서 영학당 운동을 일으켰는데, 1898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해월 최시형이 체포돼 가지고 4월에 체포돼서 6월에 서울에서 처형이 되잖아요. 시국이 아주 급변하면서 요동치던 해가 1898년이었습니다. 이화삼이 서울과 고창을 오가면서 나라 정세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동학의 깃발을 내리고 영학당으로 봉기한 이유가 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조재곤

영학당으로 봉기한 것은 가탁을 한 거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하면 제국주의를 통해서 뒷배를 봐줄 것이라는, 실상은 영국이랑 아무 관련 없지만 그런 것이고. 1898년이 제1차 영학당 운동과 관련되는 거는 저는 최시형의 체포보다는 오히려 아까 공초에 나오는 만민공동회랑 관련이 크다. 왜냐면 만민공동회의 활동이 가장 치열한 것이 바로 영학당 일어난 기간이고 이제 만민공동회의 독립협회가 혁파되고 고종이 대한 제국 시기 가장 최대의 정권의 위기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와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 1899년 1월부터 그야말로 계엄 전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료에 보면, 두 명 세 명 모이면 잡아서 처벌하고, 고종이 대한제국이 됐지만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때는 고종이 별로 기를 펴지 못했다. 왜냐면 이 시기는 이런 공화제 논의까지도 있었고, 고종이 아주 크게 동요하고 뭔가 위기를 느꼈던 기간이고. 그래서 이 기간은 민란 당시의 시대사적 조건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학당 시기랑 동학농민혁명 시기랑은 하나의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생각들이 기간은 한 3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좌장 김양식

하여튼 1898년에서 1900년 사이에 동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 「갑오일기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토론입니다. 지례는 김천 산골지역인데, 발표자께서 김천 산골짜기를 샅샅이 누비면서 일일이 족보를 찾아내고 그래서 실증적으로 의미 있는 발표를 한 거 같습니다.

송진현 선생님 토론해 주시죠.

토론자 송진현

네, 소개받은 송진현입니다. 저도 발표문을 읽는 방식으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충청도 전라도의 경계에 위치한 경상도

지례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갑오일기』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김산의 동학농민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지례 사례를 확인한 것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지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례를 통해 지례만의 동학농민군을 조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지례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명확하게 발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래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함으로써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성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료에 나타나는 해당 인물의 이름을 해당 지역에 세거한 이들의 족보를 확인하고 부족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자를 특정하셨습니다. 특히 추정 인물의 집안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특정하고 그 지역에 세거해 온 집단을 밝힘으로써 저자를 추적한 과정은 본 연구의 의미를 더욱 부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갑오일기의 저자 김성모의 정보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의성김씨관란재공파보』에는 그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없다고 한 점에서 의한 부분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발표 중에 조금 언급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추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직접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사료를 통해 볼 수 없었던 경험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 김정문의 성분입니다.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양상을 확인하는데 눈에 띄는 것이 김정문의 직책입니다. 그는 감호정의 고자로 하급 관리입니다. 그의 동학 입도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의 일이 창고에 있는 물품을 출납하던 것에서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지례군 읍지에 따르면, 감호정은 현 동

쪽 1리에 있고, 김정문은 김산군 과내면 기동 출신입니다. 김산군 과내면 기동은 현재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로 판단되고, 그곳은 김산군 남서쪽에 위치하는 지례와 연결되는 길목에 있습니다. 경상도 동학농민군의 북접 농민군이 북접 소속이었음을 감안할 때 1894년 당시 지례 동학농민군은 접주 김정문의 김산 지역 활동 연장선 또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문이 언제 감호정 고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1890년 최시형이 내척, 내수문을 짓고 발표한 곳이 김정문의 출신지와 가까웠던 지례현 상북면 복호리였다는 점은 충분히 그 당시에 김정문이 동학에 투신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감호정 고자를 지냈다는 점은 동학농민군이 결성되어 가는 시기에 지례의 사정을 잘 알고 물품 내지 곡식을 관리하던 그를 접주로 선발하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례에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이 미리 들어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접주 김정문의 역할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최시형의 재기포령과 관련한 것입니다. 1894년 8월에 동학농민군은 지례 관아와 성주 관아를 점령합니다. 더불어 소백산맥 인근의 동학농민군은 예천 안동 상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관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관주도로 동학농민군을 잡아들이거나 처단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질서적인 활동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례의 경우에는 관예들과 주민들도 동학에 입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동학 농민들의 작폐를 막기 위한, 특히 무주에서 온 동학농민군의 작폐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최시형 주도의 북

접이 지향했던 활동은 비교적 소극적 형태의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접 소속의 동학농민군은 이미 전라도 일대의 전투 경험이 있었고, 전주성을 점령해 전라도에서 자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은 북접의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시형은 시의에 맞지 않다면 직접 기포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었는데, 점차 북접 내에서도 농민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공격 계획이 들려오자 9월 18일 기포령을 내립니다. 즉 재기포 이전까지 북접의 활동은 농민군 활동의 소극적 확산인 반면에, 남접의 경우 북접과 달린 매우 적극적 활동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례 지역의 사례가 남접과 북접의 차이 내지 같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표자 신진희

좌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곧바로 답변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성모 관련인데, 이건 아까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아마 딸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양자를 들이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찾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족보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간되었던 파보를 종손께서 좀 찾아봐 주셨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집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김정문의 성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선산 공격할 때도 앞장선 점으로 보아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간

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지례가 김정문의 역할도 있지만 발표에서 얘기했던 장기원의 역할이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거 같아요. 김정문의 출신지가 기동인데, 기동은 『소모사실』을 쓴 조시영의 출신지기도 합니다. 즉 이곳은 동학농민군과 그걸 진압했던 세력이 같이 공존했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김정문 집이나 장기원 집 등 어느 하나로 규정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 영향력이 있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시형의 기포령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남접과 북접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남접과 북접으로 구분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지례의 사례가 접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지례만의 특수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위치로는 지례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다 지나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갑오일기』를 쓴 저자는 소식을 조금 늦게 들어요. 기록도 늦은 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의 동학농민군들을 다 보고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례의 동학농민군은 우리 지역의 접이니까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접은 우리 지역에서 “작폐”라고 표현을 하면서 뭔가를 뺏어가거나, 제공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남접과 북접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김양식

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은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특수성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간 범위를 좀 넓게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례와 김천 그리고 백두대간을 넘어서 영동, 황간, 청산, 상주 여기가 기맥이 서로 통하면서 동학의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공간을 넓게 잡고 접근을 안 하다 보면, 좀 더 일반적인 지역 특성을 찾아내기 힘들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취의통문』에 응답해서 수성군에 참여한 층들을 보면은 멀리 고부나 장성에 있는 유생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흥덕, 고창, 고부, 장성이 그 인맥이 통하는지 학맥이 통하는지 공간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그런 맥락을 잡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풍암공신행록』에 대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발표를 들었는데, 저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오늘 발표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병규 전북사학회장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자 이병규

『이풍암공신행록』은 2024년에 이병춘 선생의 손자인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천도교 전주교구장님께서 저희 재단에 기증해 가지고 재단에 알려지게 되었고, 저희 재단에서는 2024년 11월에 『동학농민혁명연구』에 원문하고 해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이길호 교구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이 자료는 발표자 선생님이 번역 작업을 하고 계시고, 번역이 완료되면 26년 내년에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8권으로 발간하고 또 내용은 저희 사료 아카이브에 탑재해서 여러 가지 검색하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번역

작업을 하신 최진욱 선생님께 논문도 작성해 주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작업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번역도 해주시고 논문도 작성해 주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론자로 지정이 됐으니까 사소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풍암공신행록』의 근거해서 서술하는 내용에 각주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문의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에서 되어 있는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논문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때 그걸 좀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완해서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목차를 제가 제시했는데 목차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충분한, 가능한 내용 구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아까도 새롭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너무 평면적으로 나열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적인 정황이라든지 또 다른 관련 자료를 근거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병춘의 행적이라든지 또 천도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적이나 또 천도교 관련 자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차검증하는 그런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향후의 과제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래야 이것이 어떤 사료로서 또 실제 의미로서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이병춘 선생의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반도에 저 멀

리 강원도까지 활동 반경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그걸 시기를 통해서라도
든지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지도 형식으로 표시해 준다면 상당히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장 김양식

토론 답변해 주시죠.

발표자 최진욱

최진욱: 감사합니다. 앞서 쉬는 시간에 자료집에 실린 토론문을 먼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번역과 발표
문 작성 작업에 대한 격려 말씀과 함께, 발표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각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표문에 각주를 너무 많이 생략
해 버렸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아직 관련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각주를 달려고 한다면 이제 막 번역
을 마친 『이풍암공실행록』에서 해당 부분의 사료를 인용하는 수밖에 없
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각주에 사료 원문만 나열되어서 굉장히 밋
밋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즉 각주에 자료를 많이 제
시함으로써 오히려 발표문 전체가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느라 각주 작업을 일부러 생략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평면적 구성과 내용’을 언급한 두 번째 질문과도 연
결되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학술지 게재를 위해 수정하는 과정

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풍암공신행록』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교차 검토하여 각주에 반영하면서 동시에 사료의 내용도 많이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외형상으로는 실제 내용상으로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풍암공신행록』에만 들어 있는 사료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말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점은 정말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능력이 좀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관련 연구를 많이 검토했으면 좀 더 나은 발표문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자료 번역을 마친 뒤 발표문을 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동학사』를 비롯한 주요 사료들과 관련 논문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교차검증해 가면서 입체적으로 작성했다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사료와 논문을 최대한 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을 먼저 기준으로 삼은 뒤 『이풍암공신행록』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자료의 주요 내용을 중심에 놓고서 다른 연구들이 어떤 서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신을 찾아온 이병춘에게 손병희가 질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최시형 사망 후에 왜 하필 자신을 찾아다녔느냐는 거죠. 당시 김연국도 있고 손천민도 있는데, ‘너는 무슨 이유로 굳이 나를 찾아올 생각을 했느냐’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병춘이 하는 말이, ‘최제우가 살아 생전에 자신을 천황씨에 비유를 했다. 그러므로 최제우

는 천황씨이고 그렇다면은 최시형은 지황씨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다음 계승자는 인황씨인데, 나는 선생님이 인황씨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발언은 최시형 사후에 누가 교주의 지위를 계승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에서 해석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병춘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동학 교단의 최상층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병춘이 손병희 추대를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료의 내용과 그 해석을 먼저 제시하고서, 기존의 다른 연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풍암공실행록』을 소개하는 글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모양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춘이 움직였던 동선을 지도에 표시하는 게 어떠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병규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대단히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동학에 입도하기 전 이병춘은 생활이 어려웠던 관계로 어머니를 모시고 전라도 여러 고을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또 입도 후에는 최시형이나 손병희를 찾아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갔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 그가 움직였던 노선을 지도상에 표시한다면 『이풍암공실행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도상에 동선 표시하는 작업은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사항들은 학술지 투고 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김양식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자 진윤식(전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역총서』 제5권에 취의록 관련 부분, 48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취의록』이 그때 당시에 고창군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집한 내용이고, 『거의록』은 흥덕 쪽이고 그렇죠. 그런데 무장에는 그런 조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창의 『취의록』중에 고부, 부안, 장성, 무장, 심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무장 중에 전정언 김수형 또 이제 전정언 최인휴 이렇게 나오는데, 김수형은 청도김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또 이름이 나오느냐면은 동학도 선운사 미륵비기 탈취 과정에 영상 오개원 그 다음에 좌상인가 우상인가 거기에 김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서울에서 관직을 했던 사람이고 정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족보에 보면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전정언 그 다음에 최인휴 전 여기도 전정언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취의록에 참여를 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왜냐면은 고창 지역에 하역튼 아까 얘기했던 300 몇 명인가 되는데, 동부 서부 뭐 다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또 이 양반은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관직을 했었기 때문에 대단한 영향이 있는 분이고, 또 여기 이제 내려와 있을 때거든요. 비기 탈취할 때 이미 관직을 그만두고 내려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이미 미륵 비기 탈취 사건에 참여를 한

사람인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서 동학도 때려잡자고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다 그냥 말하자면 허울 좋게 이름만 올린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김양식

여기에 대해서 정경민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발표자 정경민

제가 사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500여 명의 인명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다 추적하기에는 너무 지난한 작업이라 거기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아까 서울에서 정부 관리를 지냈던, 정언이라고 하는 것을 지냈던 분이 과연 참여했겠는가? 아마 이름만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고 그분이 동의했건 안 했건간에 이름만 기재가 됐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관직을 지내고 내려왔던 분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지도 향후에 사실은 한번 더 추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이제 좌장 선생님께서 이제 과제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아까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들의 그런 인적 관계라든지 정말 활동 영역,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후의 과제로서 아마 수행이 되어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자 진윤식(전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고창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 지역에서 그 토호들의 세력을 다 가진 분들이거든요, 거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개인이 라든가 그 문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떨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김양식

예, 그 『취의록』과 『거의록』에 대해서는 지금 전북일보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연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 아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상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진윤식 이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 대부분 이와 같은 취의록이나 거의록이 전세가 역전되면서 많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보신용으로 그냥 이름을 걸쳐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기재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은 지역사회에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했는지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연구자들보다는 그 지역 사이에서 지역 향토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분석을 하면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 김용선(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예. 저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 김용선입니다. 오늘 토론회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학술대회 오는 분들이 다른 문제를 이렇게 동학 연구하는 역사학자분들이 모이시는 자리니까 한번 부탁 드리고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계나 학계에서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들 참여자분들은 국가유공자 서훈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서훈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정계나 학계라고 했는데, 정작 동학농민혁명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동학사에서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 서훈운동에 참여해서 열심히 선양사업 완성에 대해서 참여하셨다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유족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또 연구하시는 학자들 입장에서 본 것 하고는 어떤 괴리가 있는 것인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학자로서는 아마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과연 유족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저 뭐 어려우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답변을 오늘 주장과 좀 동떨어지지만 드려보는 겁니다.

좌장 김양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10월 1일부터 동학 서훈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동학서훈연대에서 하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부터는 구체적으로 동학서훈연대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은 서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낙관을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왜 학자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사실 학자들도 행동으로 나서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문도 하고. 다만, 학자는 학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에겐 학문적인 목소리를 왜 내지 않느냐 하는 비판은 해야 하지만, 왜 서훈운동에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과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뒤로는 다 참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이길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병춘 유족)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서훈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이제 전주교구장, 천도교 전주교구장 직임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 서훈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역사적 평가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독립운동은 아니더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구국운동으로, 보국안민 정신이 천도교에 있거든요. 보국안민의 정신을 실천한 구국운동이다. 왜 잘못 평가를 하다 보면 나라의 존립 자체를 없애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청나라와 예를 들어서 명나라와 이런 오래된 역사 속에서 제가 단견이지만 조공을 바치고 공녀를 당하고 계속 왕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주권이 있었나?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는 국가인가? 그 다음에 남북 통일 문제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문제인 정부때도 그런 문제가 존 볼턴이 막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재정 주권이 없어요, 경제 주권이.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국가가 존립 자체가 조선시대 때 없었던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중국의 변방 국가, 개내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동북공정 거기에 우리가 빨려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됩니다. 혹자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독립 위공자 후손으로 돼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만, 오늘 우리 유족회 고창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포·법포지설과 남접 북접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보면. 그런데 제가 천도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동학사』에는 제가 남접 북접을 제가 오지영 선생이 쓴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천도교 동학 내에서는 남접 북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포·법포지설은 남접의 전봉준 접주가 말하자면 서장옥 선생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서포 그 밑에서 움직였고, 법포는 법현 최시형 선생 위주로 해서 움직여서 서포·법포지설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조부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서포·법포지설은. 왜냐면 은저감에 수는 최제우 대신사께서 계실 적에 그때 서장옥 선생은 거기에서 아홉 살짜리 어린이였어요. 근데 그때 네가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연세나 이런 걸 따져보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제 개인적으로 파헤쳐 보니까. 뭐 맞는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서 가장 눈물을 흘렸던 부분은 해월 최시형 선생을 제가 존경을 하는데, 4월 5일은 수훈 대신사께서 순도를 다한 날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제를 올렸습니다. 그 때 각 지역의 두령들이 대두령들이 모였어요. 손병희 선생부터 저희 조부님들 대두령들. 송암 구암 뭐 의암 다 모였는데, 그해 1898년도 4월 4일만 혼자 모시겠다고 하면서 다 떠나라고 합니다. 너희들끼리 들어가서 본인은 본인이 잡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체포당할 것을. 그래서 체포당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의아스럽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앞을 내다보고 실천적인 분이고 제자를 아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키가 있다는 것을 좀 나중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시간 관계상 장황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좌장 김양식

이풍함공 후손 되시는거죠. 성함이?

질문자 이길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병춘 유족)

저는 이길호라고 합니다. 천도교 전주교구장을 맡고 있습니다.

좌장 김양식

예 감사합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짓겠

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학술대회는 다른 어느 학술대회보다 생산적인 학술대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가지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기존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1894년에 대한 횡적인 연구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종단 연구, 그러니까 1894년 전후를 연결시키는 종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학계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오늘 학술대회는 거시적이고 장기 동태적인 관점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사를 정리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학술대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의미는 최근 들어와서 여러 발표에서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으로 연결되는 맥락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오늘은 이병준이라는 이풍암공의 행적을 통해서, 동학이 여러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천도교로 바뀌고 그 이후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오늘 학술대회에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좌장으로서 오늘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학술대회를 정시에 마칠 수 있어 기쁩니다. 끝까지 자리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5

총괄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기획 이병규(연구조사부장)
편집 오주연(연구조사부)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인쇄 2025년 12월 04일
발행 2025년 12월 08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누리집 www.1894.or.kr
전화 063-530-9438
전송 063-538-2893
편집인쇄 흐름(www.heureum.com)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비매품

ISBN 979-11-990487-8-2 94910

ISBN 979-11-990487-0-6 (세트)

* 발행처의 승인 없이는 본서의 무단복제를 금함